

嶺南文化財研究

9



1998. 12

社團
法人 嶺南埋藏文化財研究院

〈표지原字〉

朝鮮 中宗 壬申刊本 『三國史記』에서 集字

嶺南文化財研究

第 9 輯

1998. 12

【論考】

- 대구 팔달동 유적 목관묘에 대하여 진수정 5
- 三國時代 聚落의 立地에 관한 一考察 張容碩 33
- 大邱·慶山地域을 中心으로 -
- 포항 옥성리고분군 출토 철기에 대한 금속학적이해 장경숙 55

【遺蹟調查概報】

- 大邱市 漆谷 3地區 建物址遺蹟 發掘調查 概報 ... 車順喆·許正和·朴達錫 71

대구 팔달동 유적 목관묘에 대하여

진수정*

〈 목 차 〉

I. 머리말	III. 구조분석 및 편년
II. 유구소개	1. 구조분석
1. 목관묘	2. 유물분석 및 편년
2. 토광묘	IV. 맺음말

I. 머리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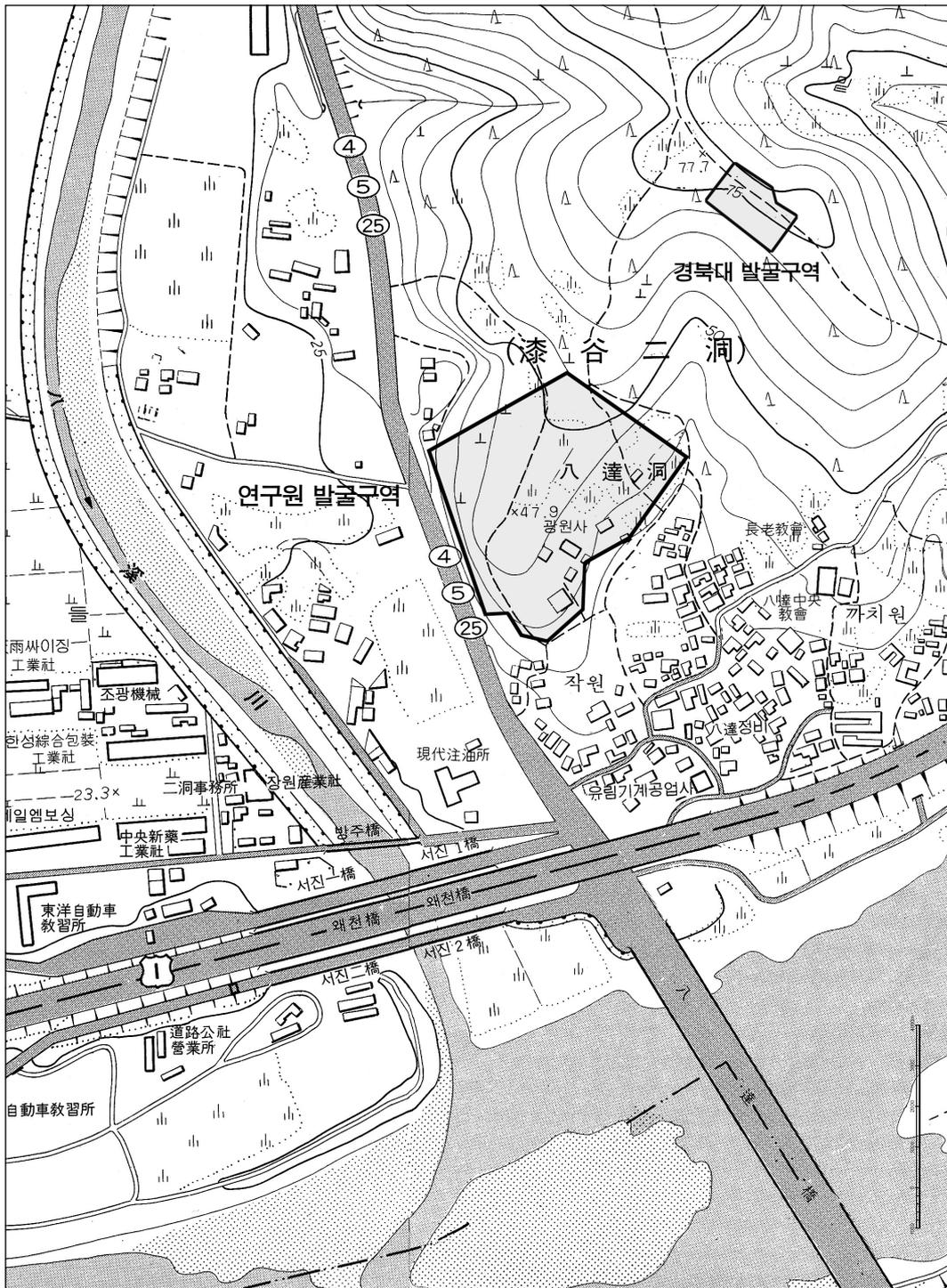
팔달동 유적은 1980년대 이후 경북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지표조사와 발굴조사¹⁾가 이루어져 청동기시대로부터 삼국시대에 이르는 유적이 있음이 밝혀져 학계의 관심을 받아왔다. 특히 원삼국시대의 각종 유물과 옹관묘의 존재가 확인되어 당시의 대표적인 유적으로서 인식되어져 왔다. 그러던 중 1996년 (주)대백중합건설에서 아파트 건설을 위해 발굴조사를 의뢰해 옴에 따라 1996년 8월부터 1997년 6월까지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팔달동 유적은 대구광역시 북구 팔달동 145번지 외 16필지에 이르는 지역으로 대구에서 팔달교를 건너 안동 방면으로 우측에 자리잡고 있는 구릉에 위치한다. 이 구릉은 함지산에서 남서쪽으로 뻗은 지맥의 끝부분에 해당되며, 해발고도 30~50m 정도의 낮은 구릉이다. 구릉의 남쪽으로는 금호강이, 서쪽으로는 팔공산 서록에서 시작되는 팔계천이 흐르는 배산임수의 좋은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다.

대구 팔달동 유적은 청동기시대, 원삼국시대, 삼국시대 및 근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구

* (사)영남매장문화재연구원

1) 尹容鎭 外, 1993, 『大邱 八達洞遺蹟』, 대구시·경북대학교박물관.



〈도 1〉 유적위치도(S=1:5,000)

가 조성되었으며 조사된 유구는 471기에 이른다. 청동기시대 유구로는 환호를 비롯하여 주거지 25동과 부정형 수혈유구가 확인되었으며, 원삼국시대 옹관묘가 139기, 목관묘와 토광묘가 103기, 삼국시대 목곽묘 24기, 석곽묘 32기, 골호 1점, 고려시대 이후 분묘가 146기 조사되었다.

이 유적은 한 유적내에 청동기시대부터 근세에 이르기까지 넓은 시간폭을 두고 주거지와 분묘 등 다양한 유구가 확인되었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특히 원삼국시대의 목관묘, 토광(직장)묘와 옹관묘는 모두 242기로 원삼국시대의 문화상을 밝히는데 중요한 자료임에 틀림없다. 특히 목관묘는 다양한 형태의 유구가 확인되어 구조해석에 용이한 자료들이 많이 있다.

목관묘라는 묘제를 인식하게 된 것은 1970년대末 경주 조양동 유적의 조사²⁾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며, 1980년대末~1990년 初에 이르기까지 의창 다호리 유적의 조사³⁾로 인하여 목관묘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알 수 있게 되었다. 그 후 영남지방에서 활발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김해 양동리⁴⁾, 同 대성동⁵⁾, 함안 도항리⁶⁾, 경산 입당동⁷⁾ 등의 유적에서 목관묘가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묘제에 대한 연구자들의 연구활동도 활발해져 임효택⁸⁾은 낙동강 하류역 가야의 토광목관묘의 조사성과를 바탕으로 3단계로 유형을 설정하고 편년을 시도했으며, 최

-
- 2) 1979, 「慶州朝陽洞古墳發掘 概報」『博物館 新聞』96; 1979, 「慶州朝陽洞古墳群 二次調査 發掘 概報」『博物館 新聞』100; 1981, 「慶州市 朝陽洞 三次 調査概報」『博物館 新聞』114; 1982, 「朝陽洞土墳墓群 4次 發掘」『博物館 新聞』126.
 - 3) 李建茂 外, 1989, 「義昌茶戶里遺蹟進展報告(Ⅰ)」『考古學誌 1』; 1991, 「義昌茶戶里遺蹟進展報告(Ⅱ)」『考古學誌 3』; 1993, 「義昌茶戶里遺蹟進展報告(Ⅲ)」『考古學誌 5』; 1995, 「義昌茶戶里遺蹟進展報告(Ⅳ)」『考古學誌 7』.
 - 4) 문화재연구소, 1989, 『김해양동리 고분』發掘調査報告書; 동의대학교박물관, 1990 『金海 良洞里 古墳群 第1次 發掘調査 概要』; 1991, 『金海 良洞里 遺蹟 概要』; 1992, 『金海 良洞里 古墳群 第2次 發掘調査 概要』.
 - 5) 申敬澈, 1990, 「金海大成洞 古墳群 第1次 發掘調査의 成果」『경성대신문』; 1991, 「金海大成洞 古墳群의 發掘成果」『加耶史의 再照明』金海市 昇格 10周年 記念學術會議; 慶星大學校博物館, 1992, 『金海大成洞 古墳群 2·3次 發掘調査概要』; 김재우, 1992, 「金海大成洞 第3次 發掘調査」『第35回 全國歷史學大會 發表要旨』.
 - 6) 國立昌原文化財研究所, 1997, 『咸安道項里古墳群 I』.
 - 7) 韓國文化財保護財團, 1998, 『慶山 林堂遺蹟 I~V』; 嶺南大學校博物館, 1998, 『慶山 林堂地域 古墳群 III』.
 - 8) 林孝澤, 1978, 「洛東江下流 伽倻土墳墓 研究」『韓國考古學報』4, 韓國考古學會; 1990, 「洛東江下流域 土墳墓 文化」『嶺南考古學』7, 嶺南考古學會, 1992 「洛東江下流域 伽倻墓制系統」『제3회 학술발표요지 가야사의 제문제』, 韓國古代學會; 1993, 『洛東江下流域 伽倻의 土墳木棺墓 研究』한양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1993, 「良東里 遺蹟의 諸問題- 發掘調査成果를 중심으로-」『東北아시아에 있어서 伽倻와 倭』; 1993, 「洛東江下流域 土墳木棺墓의 登場과 發展」『三韓社會와 考古學』第17回 韓國考古學全國大會 發表要旨; 1993, 「洛東江下流域 伽倻墓制 系統」『先史와 古代』.

종규는 조양동 유적 발굴을 시작으로 와질토기의 편년, 철기, 묘제 등 삼한시대에 대한 총체적인 연구 결과⁹⁾를 발표했다. 와질토기와 목관묘에 대한 연구로 신경철¹⁰⁾, 이성주¹¹⁾, 김형곤¹²⁾, 이주현¹³⁾, 함순섭¹⁴⁾, 김옥순¹⁵⁾, 이경순¹⁶⁾ 등의 논고가 있다.

그러나 후기 와질토기와 목관묘에 대한 많은 연구활동에 비해 전기 와질토기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이며, 특히 목관묘의 구조에 대해서는 목관의 목재가 잘 보존될 수 있는 외부적인 자연환경조건이 갖추어진 경우¹⁷⁾를 제외하고는 목관이 잘 부식되어 없어지기 때문에 자세히 밝혀진 바가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사된 팔달동 유적은 다양한 구조의 원삼국시대 묘제를 포함하고 있어 묘제의 구조과약과 그 유형별 분류에 좋은자료라는데 의의가 있다.

이 글에서는 팔달동에서 조사된 목관묘와 토광(직장)묘를 대상으로 구조별 분류를 시도하고, 출토유물을 통하여 편년을 해보도록 하겠다. 그러나 유물의 정리작업이 현재 진행중이고, 유물실측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유형별 분류에 따른 편년작업은 많은 한계가 있음을 우선 지적해 두고자 한다.

9) 崔鐘圭, 1995, 『三韓考古學研究』, 書景文化社.

10) 申敬澈, 1982, 「釜山·慶南出土 瓦質系土器-이른바 熊川·金海期土器의 實體와 實例」 『韓國考古學報』12 韓國考古學會; 1994, 「瓦質土器에서 陶質土器로-嶺南地方의 경우-」 『제2회 환태평양국제학술회의 발표요지』; 1995, 「瓦質土器文化論-그 성과와 과제-」 『韓國考古學的 半世紀』第19回 韓國考古學全國大會發表要旨.

11) 李盛周, 1987, 『原三國時代 土器의 研究』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原三國時代 土器의 類型, 系譜, 編年, 生産體系」 『韓國古代史論叢』 2.

12) 金亨坤, 1992, 「土壙木棺墓 構造研究 (I)」 『韓國上古史學報』 第10號.

13) 李柱憲, 1994, 「三韓의 木棺墓에 대하여-嶺南地方 出土資料를 中心으로-」 『三韓時代와 彌生時代 中·後期 韓·日 考古學的 諸問題』.

14) 咸舜燮, 1995, 「2. 원삼국시대 분묘」 『清堂洞Ⅱ』 국립중앙박물관; 1996, 「天安清堂洞遺蹟 周溝墓의 特徵」 『第39回 全國歷史學大會 發表要旨』.

15) 金玉順, 1994, 『嶺南地方 原三國時代 墓制 研究-木棺·木槨墓를 中心으로-』, 영남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16) 이경순, 1994, 『세형동검 문화기의 묘제에 관한 고찰』, 동의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17) 천안 화성리 목관묘유적과 의창 다호리유적이 그 대표적인 예로, 다호리 유적의 경우 점토질로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보존상태가 꽤 양호했으며 1호분의 경우 통나무관의 구조를 잘 알 수 있게 했다.

Ⅱ. 유구소개

목관묘와 토광묘는 능선의 정상부와 서쪽사면에 집중적으로 분포한다. 장축방향은 주로 동-서향이며 등고선 방향과 직교한다. 서쪽사면에서 남동쪽으로 이어지는 구릉과 동쪽사면에 5기 정도 단독으로 위치하는 것도 있으나 거의 목관을 쓰지 않은 토광(직장)묘가 주류를 이룬다. 목관묘의 분포양상으로 볼 때 입지의 우월성에 따른 공간분할은 보이지 않고 있으며, 또한 시기적 변화에 따른 공간이동도 보이지 않는다. 조밀하게 밀집분포하면서도 서로 중복된 유구가 없는 점을 볼 때 묘역의 표시기능을 한 봉토(적석)가 존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¹⁸⁾.

1. 목관묘

1) 82호 판재식목관묘(도 3-①, 사진 1-②)

유적의 서쪽사면 아래에 위치하는 목관묘로 주축방향은 N-62°-W이고 등고선방향에 직교한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으로 동단벽은 교란되어 일부 유실되었다. 본 분의 축조는 길이 255cm, 너비 85cm, 현재깊이 55cm의 묘광을 파고 울퉁불퉁한 암반인 묘광바닥을 2~3cm정도의 점토를 깔아 정지한 다음, 길이 170cm, 폭 45cm, 높이 25cm(추정 최소치)크기의 목관을 묘광바닥 가운데에 놓았다. 묘광과 목관 사이는 황색암반편을 포함한 적갈색 사질점토로 충전하고, 서단벽과 동단벽의 충전도위에 유물을 매납하였다.

82호 목관묘는 암반을 파고 조성되었기 때문에 묘광벽에 굴지흔이 잘 남아 있는데 굴지흔의 날방향은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비스듬하게 나 있으며, 날의 크기는 3~5cm정도가 가장 많았으며 7~8cm의 큰 것도 있다. 출토유물은 와질 단경호 2점, 주머니호 2점, 철부 1점으로 단경호 2점과 주머니호 1점은 서단벽쪽의 충전도 위에, 주머니호 1점은 동단벽쪽의 충전도 위에 매납되었으며, 철부는 북장벽쪽 충전도 안에 매납되었다.

2) 99호 판재식목관묘(도 3-②, 사진 3-①)

유적의 서쪽사면에 위치하는 목관묘로 장축방향은 N-60°-W이고 등고선 방향과 직교한다. 본 분의 축조는 길이 300cm, 너비 110cm, 현재깊이 70cm의 장방형 묘광을 파고 길이 220cm, 폭 50cm, 추정최소높이 30cm의 목관을 내부에 설치하였다. 바닥은 암반면을 그대로 이용하였으며, 목관과 묘광의 빈 공간에는 충전석을 1~2단 쌓고 흙을 채웠다. 서단벽쪽은 충전석이 후대교란으로 유실되었다. 99호 목관묘는 다른 유구에 비해 충전석을 정연하게 쌓았다. 유구

18) 물론 고총고분에서 보이는 거대한 봉분은 아니더라도, 목관묘의 형성기간인 B.C.2C~A.D.2C초 즉, 300년 동안은 봉분이 유실되지 않을 정도의 크기였을 것이다.

의 중앙에서 동쪽으로 치우친 곳에 직경 30cm 정도의 할석이 평평한 면을 밑으로 하여 놓여 있는데 목개 위에 1개 놓았던 것이 떨어진 것 같다.

출토유물은 칠초, 두형토기, 철모, 격지편이 있다. 칠초는 유구의 중앙에서 북동쪽으로 약간 떨어진 곳에 위치하는데, 칼집은 옷칠을 했다. 병부와 검파두식은 출토되었으나 검신은 출토되지 않아 매납당시부터 없었거나 목검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두형토기와 철모는 유구의 중앙에서 서쪽으로 치우쳐 출토되었으며 레벨로 보아 두형토기는 관내부에, 철모는 목관상부에 놓여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격지편은 충진토 속에서 출토되었다.

3) 79호 판재식 적석목관묘(도 3-③, 사진 2-①·②)

유적의 서쪽사면 정상부에 위치하는 평면형태 장방형의 목관묘로 서쪽사면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목관묘군에서 산 정상부쪽으로 25m정도 떨어져 있다. 79호는 유구확인 당시 길이 20~30cm의 할석이 4~5개 노출되어 있었다. 유구의 규모는 길이 235cm, 너비 100cm, 현재깊이 45cm이고 장축방향은 N-75°-W로 등고선 방향과 직교한다.

본 분의 축조는 기반층인 암반에 장방형 묘광을 파고 길이 205cm, 너비 50cm, 높이 30cm 크기의 목관을 묘광바닥 가운데에 놓았다. 묘광은 수직으로 파지 않고 경사지게 내려오는데 양장벽이 단을 지게하여 묘광 바닥쪽은 거의 목관의 너비와 크기를 비슷하게 하였다. 유물은 서쪽단벽 가까운 곳의 충진토 위에 매납하였다. 목개 위에 적석을 했는데, 적석이 충진토 레벨까지 함몰되어 있다. 적석사이에서 무문토기편이 출토되었는데 적석사이나, 적석상부에 놓여져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유구는 다른 유구에 비해 삭평이 많이 되었고, 1차로 적석된 돌은 20여개로 길이 15~45cm의 할석이다.

출토유물은 충진토 위에 놓인 장경호 1점, 두형토기 1점, 무문토기 2점과 적석사이에서 출토된 무문토기편이 있다.

4) 86호 판재식 적석목관묘(도 4-①, 사진 2-③·④)

유적의 서쪽사면 중앙에 위치하며 장축방향은 N-73°-W로 등고선 방향과 직교한다. 환호를 파괴하면서 설치되었고, 34호 민묘와 중복되어 있다. 본 분의 축조는 길이 240cm, 폭 80cm, 현재깊이 130cm의 장방형 묘광을 파고, 길이 165cm, 너비 40cm, 추정 최소높이 30cm의 목관을 내부에 설치하였다. 바닥은 암반면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목관과 묘광사이의 빈 공간에는 충진석을 1열로 돌리고 충진토를 채웠다. 충진석은 서단벽 쪽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남장벽 쪽에는 3개의 돌만 간격을 넓게 두고 놓았다. 상부는 목개를 덮고 40~50cm정도의 큰돌을 10여개, 그것보다 작은 돌들은 20여개 정도 적석했는데 모두 할석이다.

출토유물은 토기 1점, 철기 2점으로 모두 서단벽 쪽에서 출토되었다. 토기는 변형점토대토기로 충진토 위에 놓여져 있었고, 철기는 모두 주조철부로 바닥에 매납하였다.

5) 83호 통나무관목관묘(도 4-②, 사진 3-②)

유적의 서쪽사면 거의 중앙에 위치하는 목관묘로 평면형태는 서단벽이 병모양으로 짧게 돌출하는 장방형이다. 장축방향은 N-87°-W로 등고선방향에 직교한다. 본 분의 축조는 기반층인 암반에다 길이 240cm, 너비 110~70cm, 현재깊이 90cm의 묘광을 파고 묘광바닥 가운데에 목관을 놓았다. 묘광은 남장벽은 2단 굴광으로 비스듬하게 내려가다가 바닥에서 50cm되는 높이부터는 거의 수직으로 파 내려갔는데, 이는 목관의 높이부터는 묘광을 목관크기에 맞추어 파내려 간 것으로 생각된다.

목관은 토층에서 나타나는 U자형의 회백색 니질 점토로 통나무관임을 알 수 있다. 회백색 니질점토는 묘광바닥에 전체적으로 U자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회백색 점토로 추정된 목관은 길이 195cm, 너비 35cm, 높이 50cm의 규모로 목관과 묘광사이에는 암갈색 암반괴가 다량 포함된 적갈색 사질점토로 충전하였다.

유물은 토기류만 4점 출토되었는데 무문토기 옹 2점은 북장벽의 중앙부 충전토 안에 매납되었고, 평저소옹 1점과 무문토기 저부 1점은 서단벽쪽 충전토 안에 매납되었다.

6) 100호 통나무관 목관묘(도 6-①, 사진 3-③·④)

유적의 서쪽사면에 위치하는 통나무관 목관묘로 장축방향은 N-74°-W로 등고선 방향에 직교한다. 묘광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이고, 규모는 길이 360, 너비 160, 현재깊이 210cm로 팔달동 유적에서 가장 큰 목관묘이다.

본 분의 묘광은 기반층인 암반과 적갈색사질점토층을 장방형으로 굴착하여 조성되었다. 경사아래쪽인 서단벽은 3단으로 굴착하였는데, 현재 가장 깊이가 깊은 동단벽쪽의 깊이가 210cm인 점을 감안하면 출입을 용이하도록 한 것 같다. 양장벽은 경사지게 내려오다가 바닥에서 70cm정도의 높이에서 폭을 좁혀 거의 수직으로 내려간다. 바닥에는 울퉁불퉁한 암반면에 청동기류와 철기류의 유물을 놓고 바닥을 정지한 다음 통나무관을 놓았다. 묘광 아래쪽은 두께 4cm의 회백색 점토가 깔려 있다. 특히 동단벽쪽으로는 회백색 점토사이에 목질이 일부 남아 있는 것이 있어 수중분석을 한 결과 참나무과 밤나무속으로 판명되었다. 통나무관의 규모는 길이 245cm, 너비 45cm로 높이는 현재상태에서는 추정하기가 어렵다. 통나무관은 바닥에서 나타나는 회백색점토로 추정컨데 서단벽쪽으로는 완전히 붙이고 동단벽쪽은 약 20cm의 빈공간에 각각 길이 25cm와 10cm의 충전석을 세워 놓았다.

내부 토층은 거의 수직에 가까운 함몰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역시 바닥에서 U자형의 회백색점토띠가 나타난다.

출토유물은 토기류 2점, 철기류 4점, 청동기류 3점이 있다. 토기류는 흑도 조합식우각형과 수부호 1점과 무문토기편, 철기류는 철검 1점, 철모 2점, 철착 1점, 철부 1점, 청동기류는 세형동검과 검과두식, 동모 2점이 출토되었다. 조합식우각형과수부호는 서단벽쪽의 첫번째단위에 올려놓았으며 그 주위에서 무문토기편이 출토되었다. 철기류와 청동기류는 모두 관아래

암반면 위에서 출토되었는데 철기류는 묘광의 중앙부분에, 청동기류는 동단벽쪽에 날방향은 모두 동쪽으로 놓았다.

7) 45호 통나무관 적석목관묘(도 5-①, 사진 4-①·②·③)

유적의 서쪽사면에 위치하는 목관묘로 유구확인 당시 크고 작은 돌들이 여러개 노출되어 있었다. 유구의 장축방향은 N-77°-W이고, 규모는 길이 290cm, 너비 140cm, 현재깊이 140cm이다.

묘광은 거의 수직으로 암반을 굴착하였으며, 북장벽의 일부는 바닥에서 65cm의 높이에 계단상으로 편평하게 만들어 출입을 용이하게 하였다. 묘광내부는 할석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길이 40cm이상되는 큰 것은 13개, 20~40cm의 중간크기가 50여개, 20cm이하의 작은 것이 40여개로 모두 100여개의 돌들이 가득 차 있었으며 적석사이에는 지석도 1개 포함되어 있었다.

유구 내부 토층은 적석된 돌과 퇴적토가 수직에 가까운 함몰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바닥에는 남장벽쪽에 치우쳐 회백색 점토가 U자형으로 나타난다. 통나무관은 울퉁불퉁한 암반면을 5cm정도의 두께로 정지하여 남장벽에 치우쳐 놓았다. 관의 규모는 길이 210cm, 너비 55~40cm이다. 유구의 동남쪽 모서리에 붙여 길이 70cm, 깊이 20cm 규모로 평면형태 방향의 부장갱을 설치하였고, 서단벽쪽에는 직경 30cm, 깊이 5~6cm정도의 췌기공이 있다. 부장갱은 서쪽을 2단으로 굴착하였으며, 유물을 남장벽쪽으로 길게 놓아 나머지 빈 공간은 췌기공의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유물은 토기류 6점, 청동기류 2점, 철기류 4점이 출토되었다. 토기류는 주머니호 1점, 무문토기 장경호 1점, 조합식우각형파수부호 2점, 장경호 경부 2점이 출토되었는데 주머니호와 장경호, 조합식우각형파수부호 2점은 모두 충진토내에서 출토되었다. 장경호 경부 2점은 목관묘의 상부 적석사이에서 출토되었는데 봉토의 적석들과 함께 매납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청동기류와 철기류는 세형동검과 검파두식 1점, 철모 1점 철부 2점, 철착 1점으로 철착을 제외하고 모두 부장갱 내에서 출토되었다. 철착은 동단벽 중앙에 바닥에서 70cm의 높이에서 날이 암반쪽으로 박힌 채로 출토되었다.

2. 토광묘

1) 42호 토광묘(도 5-②, 사진 4-④)

유적의 서쪽사면 북쪽에 위치하는 토광직장묘로 유구의 동단벽과 남장벽 일부는 후대 교란에 의해 유실되었다. 장축방향은 N-88°-W이며, 등고선 방향에 직교한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이고, 규모는 길이 180cm, 너비 80cm, 현재깊이 20cm이다.

묘광은 기반토인 적갈색 사질점토층을 거의 수직으로 굴착하였으며, 바닥은 기반토를 그대로 이용하였다. 출토유물은 토기류만 2점으로 두형토기와 흑도장경호가 서장벽과 남단벽쪽에서 출토되었다. 유물은 모두 바닥면 위에서 눕혀진 상태로 출토되었다.

Ⅲ. 구조분석 및 편년

1. 구조분석

기존의 목관묘 연구는 묘광의 크기, 깊이, 형태, 그리고 요갱의 설치 유무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으로의 분류작업이 이루어져 왔고, 이러한 요소들이 분묘군내 피장자의 신분차이나 지역별·시기별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왔다. 이러한 기존의 연구성과위에 이 글에서는 우선 매장주체시설로 목관을 사용한 것과 사용하지 않은 것, 토광직장묘로 대별하기로 한다. 다시 목관묘는 매장주체시설인 목관의 형태에 따라 판재식 목관(Ⅰ형)과 통나무관(Ⅱ형)의 2 유형으로 대분류하고, 다시 적석유무에 따라 무적석식(a)과 적석식(b)으로 소분류하기로 한다.

다시 정리하면

- Ⅰ 판재식목관묘
 - └ a 무적석식
 - └ b 적석식
- Ⅱ 통나무관목관묘
 - └ a 무적석식
 - └ b 적석식으로 유형설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하나의 유형으로 나누기는 어려우나 충진토 안에 충진석을 보강한 예가 있는데, 비교적 크기가 작은 돌을 충진토안에 섞은 것과, 돌을 2단 정도 세워 쌓은 것이 있다. 토광묘를 제외하고 모든 유형에서 충진석을 쓴 예가 있다. 영남지방에서는 김해 양동리 유적 70호가 이러한 예로 충진토안에 수개의 할석을 채우고 남단벽쪽 충진토에는 소형 판석을 1매 세워 놓은 형태로 임효택은 소형 석관계 석곽묘를 연상시킨다 하고 전형적인 목관묘 유구와 비교했을 때 다소 이질적이라¹⁹⁾ 보고 있다. 충진석의 유무에 따른 소분류도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추후 더 많은 자료가 축적되길 기대하며 이 글에서는 구조분석의 속성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또한 유구의 중앙부에 비교적 큰 할석이 1개 놓여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봉토위에 돌을 놓아 묘의 표시기능을 한 것으로 보인다.

1) 목관묘

(1) 판재식목관묘(Ⅰa형)

판재를 조립하여 목관을 만든 것으로 조합식, 또는 결구식이라고도 하나 팔달동유적에서는 결구형태를 알 수 있는 목관묘는 1기도 없으므로 판재식이라고 하기로 한다.

결구식 목관묘의 구조는 천안 화성리 유적²⁰⁾, 석촌동 3호묘 동쪽 고분군 1호 토광묘²¹⁾, 김해

19) 林孝澤, 1993, 「洛東江下流域 土壙木棺墓의 登場과 發展」『三韓社會와 考古學』, 제17회 한국고고학 전국대회발표요지.

양동리 7호묘를 통해 잘 알 수 있다. 천안 화성리 유적의 경우 목재가 부식되어 회백색토로 변해 결구형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팔달동 유적에서는 자세한 판재조립 방식을 알 수 있는 유구는 없으나 토층에서 나타나는 충진토로 목관의 높이와 크기는 복원할 수 있다. 이 유형에 해당되는 유구는 모두 49기로 전체 목관묘의 50%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82호와 같은 전형적인 목관묘와 99호 같이 충진석을 놓은 것이 있다. 그리고 팔달동 유적에서 주구가 있는 목관묘가 2기 확인되었는데 26호와 50호로 모두 이 유형에 해당된다.

(2) 판재식 적석목관묘(Ib형)

적석목관묘는 묘광을 파고 목관을 설치한 후 목개를 얹고 그위에 적석을 한 후 봉토를 쌓는 방식으로 축조된다²²⁾. 지금까지 영남지방에서 조사된 적석목관묘는 조양동 5호가 대표적이며 팔달동 유적에서는 11기가 조사되었다. 이 중 86호는 할석이 묘광 내부에 가득 차 있었으며 나머지 유구는 1차에 걸쳐 할석이 가득차 있는 경우와, 10개 이하의 비교적 작은 돌이 얹혀 있는 경우가 있다. 다시 말해 목개위에 큰 할석을 2~3겹으로 여러차례 쌓는 경우와, 1겹으로 깔아 놓는 경우, 유구의 중심에만 몇 개 놓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적석목관묘²³⁾는 적석목관묘 또는 석관계 석곽묘, 적석석관묘 등의 여러 용어로 불려오던 대진 괴정동²⁴⁾, 예산 동서리²⁵⁾, 함평 초포리²⁶⁾, 부여 합송리²⁷⁾, 장수 남양리²⁸⁾ 유적의 계보를 잇는 것으로 현재까지 발견된 적석목관묘의 하한선으로 보아도 될 것이다.

20) 김길식, 남궁승, 이호동, 1991, 『천안 화성리 백제묘』국립공주박물관 보고자는 목관의 결구방식을 4유형으로 나누고 있다.

I 유형은 □ 刑, II 유형은 □ 刑, III 유형은 II 刑, IV 유형은 □ 刑이다.

21) 金元龍, 林永珍, 1986, 『石村洞 3號墓 東쪽 古墳整理調查報告』, 서울대학교박물관. 단축판이 장축판의 밖으로 돌출된 평면형태 II 形을 보인다.

22) 이때 목관과 목개사이의 공간이 문제가 되는데 팔달동 유적에서는 대체로 공간이 비어있었던 것 같다. 토층에서 이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충진토위의 토층이 목개위에 얹혀 있던 적석과 함께 거의 수직으로 떨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만약 흙이 채워져 있었다면 적석된 돌이 거의 충진토 레벨까지 떨어지기는 힘들 것이라고 보이며, 일부 유구에서는 어느정도 흙이 채워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도 있다.

23) 적석목관묘라는 용어는 함평 초포리 유적에서 사용되었는데, 묘광을 파고 매장주체부에는 목관을 놓고, 묘광의 상면에 목개를 얹고 적석을 한다는 의미에서 적석목관묘라는 용어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24) 1969, 「大田 槐亭洞 出土 一括遺物」『考古學』第2輯.

25) 지건길, 1978, 「예산 동서리 석관묘 출토 청동일괄 유물」『백제연구』9집, 충남대 백제문화연구소.

26) 국립광주박물관, 1988, 『咸平草浦里遺蹟』.

27) 李健茂, 1990, 「夫餘 合松里遺蹟 出土 一括遺物」『考古學志』2.

28) 池健吉, 1990, 「長水 南陽里 出土 青銅器·鐵器 一括遺物」『考古學志』2.

(3) 통나무관목관묘(Ⅱa형)

구유형목관이라 하기도 하며 목관을 판재조립하는 대신 통나무를 종방향으로 잘라낸 후 각각의 내부를 구유처럼 파내어 관의 蓋部와 身部로 사용하여 고정시켜 놓은 구조이다.

모두 10기가 확인되었다. 다호리 1호분처럼 목재가 잘 유지되는 환경이 아니면 통나무관 확인이 어려우나 팔달동 유적에서는 2가지 증거로 통나무관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번째는 토층에서 나타나는 U자형의 회백색 점토이다. 이는 가장 확인하기 용이한 경우로 내부조사 하면서 바닥쪽으로 내려갈수록 양 장벽쪽에서 회백색 점토가 확인되는데 이 점토를 따라 노출하면 U자형으로 통나무관 형태가 확인된다. 두 번째는 충진토의 함몰양상이다. 판재식목관묘의 경우 충진토의 함몰은 ‘ㄱ’ 자 상으로 나타나지만 통나무관의 경우 정연한 U자형태로 곡선을 보인다²⁹⁾. 통나무관 아래의 묘광바닥에서 신부와 개부를 고정시키는 켜기공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58호, 71호, 64호가 여기에 해당되며 이러한 경우는 통나무관의 확실한 증거가 된다.

(4) 통나무관 적석목관묘(Ⅱb형)

화순대곡리³⁰⁾ 유적이 대표적이며, 팔달동 유적에서는 45호, 55호, 90호 3기가 확인되었다. 45호와 90호는 묘광내부 전면에 할석들이 가득 차 있었으며, 55호는 5개 정도의 할석만 함몰된 상태로 노출되었다.

2) 토광묘

토광묘는 묘광을 파고 다른 시설없이 시신을 매납하는 방법으로 팔달동 유적에서 확인된 것은 30기에 이른다. 이 유구는 다른 유형에 비해 묘광의 크기가 작을 뿐더러 현재 깊이가 얼마 남아 있지 않은 것들이 많다. 이는 목관묘와 시기차이나 입지차이가 나지않고, 목관묘의 깊이가 1~2m로 비교적 깊은 점을 생각할 때 토광묘는 축조당시부터 깊이를 깊게 파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 유물분석 및 편년

목관묘와 토광묘에서 출토된 유물은 토기류 256점, 철기류 123점, 청동기류 19점, 장신구류 8점, 그리고 기타 23점이 있다. 토기는 무문토기와 와질토기가 출토되며, 무문토기로는 점토대토기, 두형토기, 흑도장경호, 웅, 개, 소형장경호, 대부발 등이 있다. 와질토기로는 전기와 질토기의 대표적인 유물인 주머니호, 조합식우각형파수부호와 파수부옹, 단경호, 완, 편구옹, 양이부호 등이 있다.

철기류는 주조철부와 판상철부, 철검, 철모, 철검, 철촉, 철착, 도자, 따비 등이 있다. 청동기

29) 이러한 경우 회백색점토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U자형태로 파기가 어렵다.

30) 趙由典, 1984, 「全南 和順 靑銅遺物 一括 出土遺蹟」 『尹武炳博士回甲紀念論叢』.

류는 세형동검과 검파두식, 동모, 동과, 환형동기, 쌍두관상동기 등이 있으며, 장신구류로 유리제구슬과 천하석제 구슬, 골제구슬 등이 있고, 그 외 방추차, 어망추 등이 있다. 이 글에서는 금속류의 정리와 보존처리가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토기류에 한정하여 유물의 조합상을 살피고 편년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다.

1) 유물의 부장위치

유물의 부장위치는 7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지는데, 충진토 상면과 충진토 내부, 목관내부와 목관상면, 부장갱과 관하부 묘광바닥, 그리고 봉토내 적석사이에 부장된다. 이 중 가장 많은 유물이 부장되는 위치는 충진토 상면과 목관 내부이다.

첫째, 충진토 상면에서 출토되는 유물은 두형토기, 점토대토기, 흑도장경호, 주머니호, 조합식우각형과수부호등과 같은 토기류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목관묘에서 출토되는 토기류는 충진토 내부에 출토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충진토 위에 매납된 것이다. 청동기류나 철기류는 거의 출토예가 없다. 묘광을 파고 목관을 놓을 때 대부분은 묘광의 정중앙에 설치하지만, 한쪽 단벽이나 장벽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충진토 상면에 토기를 매납하기 위한 현상으로 판단된다.

둘째, 충진토 내부에 매납하는 유물은 주로 철부와 같은 철기류가 다수를 점하고 있으며, 45호 통나무관 적석목관묘와 같이 토기를 충진토 안에 매납하는 경우도 있다. 충진토 내부에서 출토되는 철부의 날 크기는 묘광 굴착시 생긴 굴지흔의 폭과 일치하는 경우가 많아, 묘광을 굴착한 철부를 관외부에 놓고 충진한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목관 내부에 매납되는 유물은 철검과 검파두식, 환형동기, 쌍두관상동기와 구슬등이 주를 이루며 토기류도 있다.

넷째, 목관 위에 매납되는 유물은 토기류가 대부분이며 이러한 예는 많지 않다.

다섯째, 부장갱에 매납되는 유물은 청동기류와 철기류가 주를 이룬다. 팔달동 유적에서 부장갱이 있는 유구는 모두 3기로 45호, 90호, 107호가 있다. 45호는 부장갱이 동단벽과 남장벽 모서리에 위치하며, 세형동검과 검파두식 1점, 철모 1점, 철부 2점이 출토되었다. 90호는 부장갱이 남장벽 중앙에 위치하며, 동모, 동과, 판상철부, 철모가 각각 1점씩 출토되었다. 107호는 유구의 중앙에 부장갱이 위치하며 철촉편이 1점 출토되었다.

여섯째, 관 하부 묘광바닥에 부장되는 경우로 역시 청동기류와 철기류가 대부분이다. 90호의 경우 북장벽에 붙어 철검이 출토되었고, 100호에서는 철모, 철사, 판상철부가 유구의 중앙 부분에서, 세형동검과 검파두식 1점, 동모 2점이 동단벽쪽에서 출토되었다.

끝으로 봉토내 적석사이에 매납되는 유물은 대부분 토기류이다. 45호가 이러한 예로 유구 내부로 함몰된 적석사이에, 유구의 어깨선에 가까운 높이에서 장경호 경부 2점이 출토되었다. 봉토내에 매납되었다고 생각되는 예는 극히 드물기는 하나, 목관묘 내부조사시 함몰토에 섞여 나오는 무문토기편과 와질토기편들은 외부에서 쓸려 왔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봉토내 유물일

가능성은 없는지 재고의 여지가 있다. 이외에 특기할 만한 경우로 120호 동모가 남장벽 중앙에 박힌 채로 출토되었고, 45호의 경우 동단벽 중앙에 바닥으로부터 60cm 정도의 높이에서 철착 1점이 수평으로 박힌 채 출토되었다.

2) 편년

목관묘와 토광묘에서 출토된 토기는 2단계로 나눌 수 있다.

I 단계는 흑도장경호와 점토대토기, 두형토기와 같은 무문토기만 출토되는 시기로, 흑도장경호는 저부에 낮은 굽이 달려있고, 동최대경이 중하위에 있는 것이 다수를 이룬다. 점토대토기는 구연에 단면 타원형과 삼각형점토대가 부착된 예가 많다. 이러한 무문토기의 특징들은 정인성의 편년안³¹⁾에 따르면 B.C.2C~기원년에 해당된다. 이 시기에 주머니호 기형에 낮은 굽과 점토대가 부착된 무문토기가 출토되는데, 주머니호의 발생을 점토대구연 및 흑도장경호와의 유사성을 들어 점토대토기 및 흑도장경호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자료이다.

II 단계는 주머니호와 조합식우각형과수부호와 같은 와질토기만 출토되는 시기이다. 주머니호는 비교적 이른시기의 특징을 지닌 유물만 출토되고 있으며, 동체부 중위에서 심하게 꺾이고 구연이 벌어지는 등의 늦은 시기 주머니호의 특징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조합식우각형과수부호 또한 타날문이나 횡침선문은 나타나지 않는 이른 시기의 특징들이 주류를 이룬다. 따라서 주머니호와 조합식우각형과수부호의 이러한 특징으로 보아 II 단계는 기원년~A.D.2C 초로 편년될 수 있다. 그리고 무문토기와 와질토기가 함께 출토되는 유구가 2기 있는데, 이는 I 단계와 II 단계가 중복되는 어느 시점으로 편년할 수 있겠다.

이상과 같이 목관묘와 토광묘 출토 토기조합상으로 크게 2단계로 시기구분을 하였으나 I 단계에서는 흑도장경호의 저부, 동체, 구연부의 형태, 점토대토기의 구연부, 저부의 형태로 시기구분을 세분화할 수 있고, II 단계에서도 주머니호와 조합식우각형과수부호의 저부, 동체부, 구연부의 형태차이로 시기구분을 세분화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유물 정리작업이 진행중이고, 유물실측이 이루어지지않아 자세한 편년작업은 앞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3) 묘제의 유형별 편년

Ia형인 판재식 목관묘는 모두 49기로 토기가 출토되지 않은 3기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I 단계에 해당되는 유구는 25기, II 단계에 해당되는 유구는 19기, 그리고 무문토기와 와질토기가 같이 출토되는 유구가 2기로 I 단계에서 II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Ib형인 판재식 적석목관묘는 모두 11기로 I 단계에 해당되는 것이 9기, II 단계에 해당되는

31) 鄭仁盛, 1997, 『낙동강 유역권 細形銅劍 文化의 전개』,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것이 2기이다.

Ⅱa형인 통나무관 목관묘는 모두 10기로 유물이 출토되지 않은 1기를 제외하면 9기가 모두 I 단계에 해당된다.

Ⅱb형인 통나무관 적석목관묘는 3기 모두 I 단계에 해당된다.

그리고 토광묘는 모두 30기로 출토유물이 없는 유구를 제외하면 I 단계에 해당되는 유구가 15기, II 단계에 해당되는 것이 6기로 I 단계에서 II 단계까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판재식 목관묘와 토광묘는 I 단계에서 II 단계까지 계속해서 사용되는 묘제이며, 팔달동 유적에서는 I 단계의 유구가 II 단계에 속하는 유구보다 많다. 그리고 적석이 있건 없건 통나무관을 사용한 목관묘는 모두 I 단계에 해당되는 것으로 기원년을 기준으로 기원후에는 통나무관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관의 구조에 관계없이 상부에 적석을 한 유구는 모두 14기인데, I 단계에 해당되는 것이 12기, II 단계에 해당되는 것이 2기로 I 단계에 해당되는 유구가 압도적으로 많다. 이로 보아 B.C. 3C까지 올라가는 한반도 중서부 지방에서 보이는 적석목관묘의 전통이 기원후까지 이어지다가 점차 그 수가 적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흥해 옥성리 유적³²⁾의 A.D.3C 전반으로 편년되는 목곽묘에서도 적석을 한 예가 있는데, 적석목관묘의 전통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재식		통나무관		토광직장묘	
	I a(목관묘)	I b(적석목관묘)	Ⅱ a(목관묘)	Ⅱ b(적석목관묘)		
I 단계 (B.C.2C ~ 기원년)			↓	↓		
Ⅱ 단계 (기원년 ~ A.D.2C초)	↓	↓			↓	

IV. 맺음말

대구 팔달동 유적의 발굴조사를 통해 목관묘의 구조연구에 많은 고고학적 자료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로 대구·경산지역의 목관묘 유적 뿐 아니라 타 지방의 목관묘 유적에 대해서도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된다. 앞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32) 嶺南埋藏文化財研究院, 1998, 『浦項玉成里古墳群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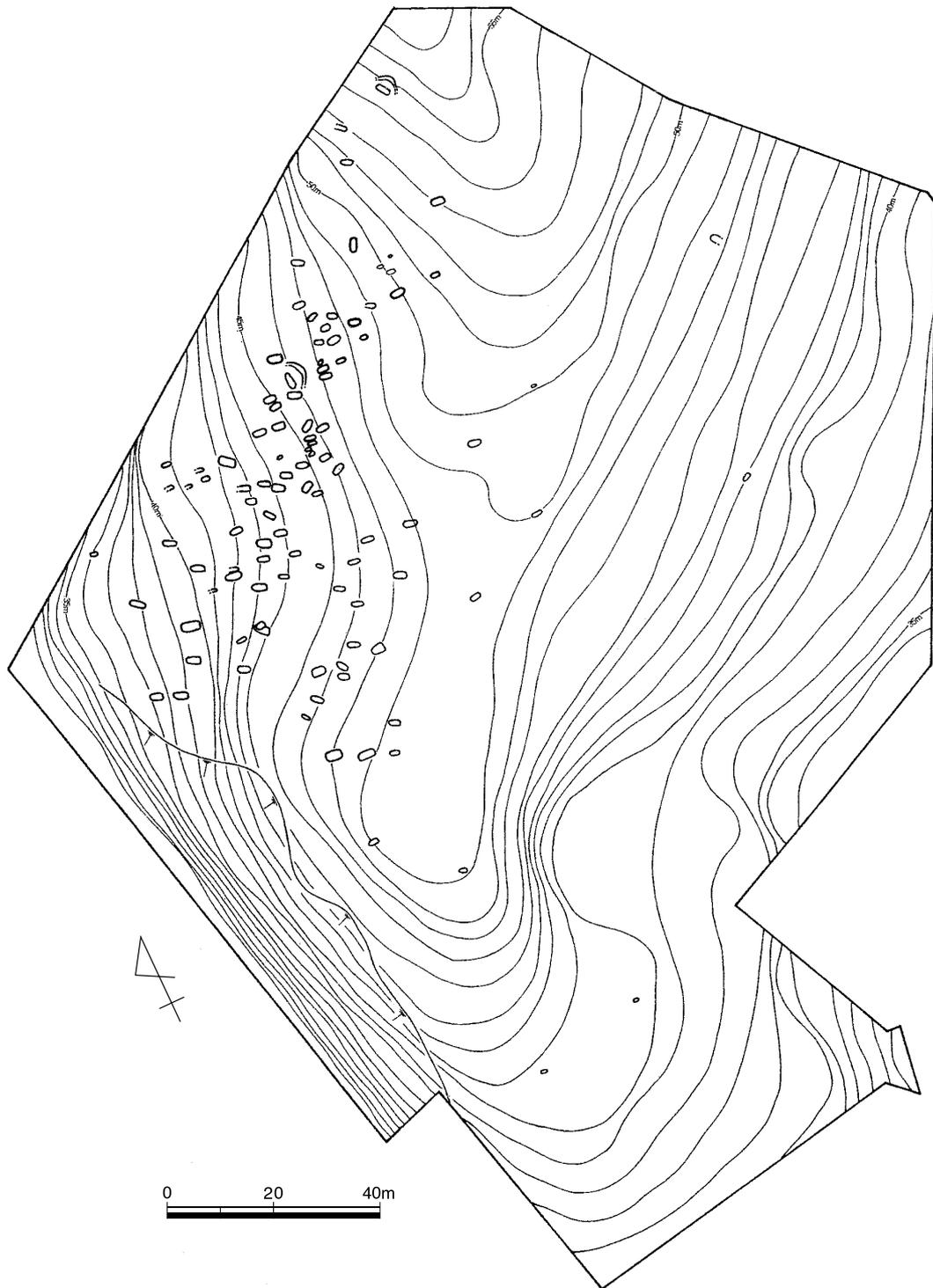
보고자는 봉토축조과정에서 목곽상부에 의도적으로 한 벌 덮었던 것으로 보고있다.

첫째, 팔달동 유적에서 확인된 목관묘는 관의 형태에 따라 조합식 목관과 통나무 목관으로 대분류되고 다시 적석유무에 따라 소분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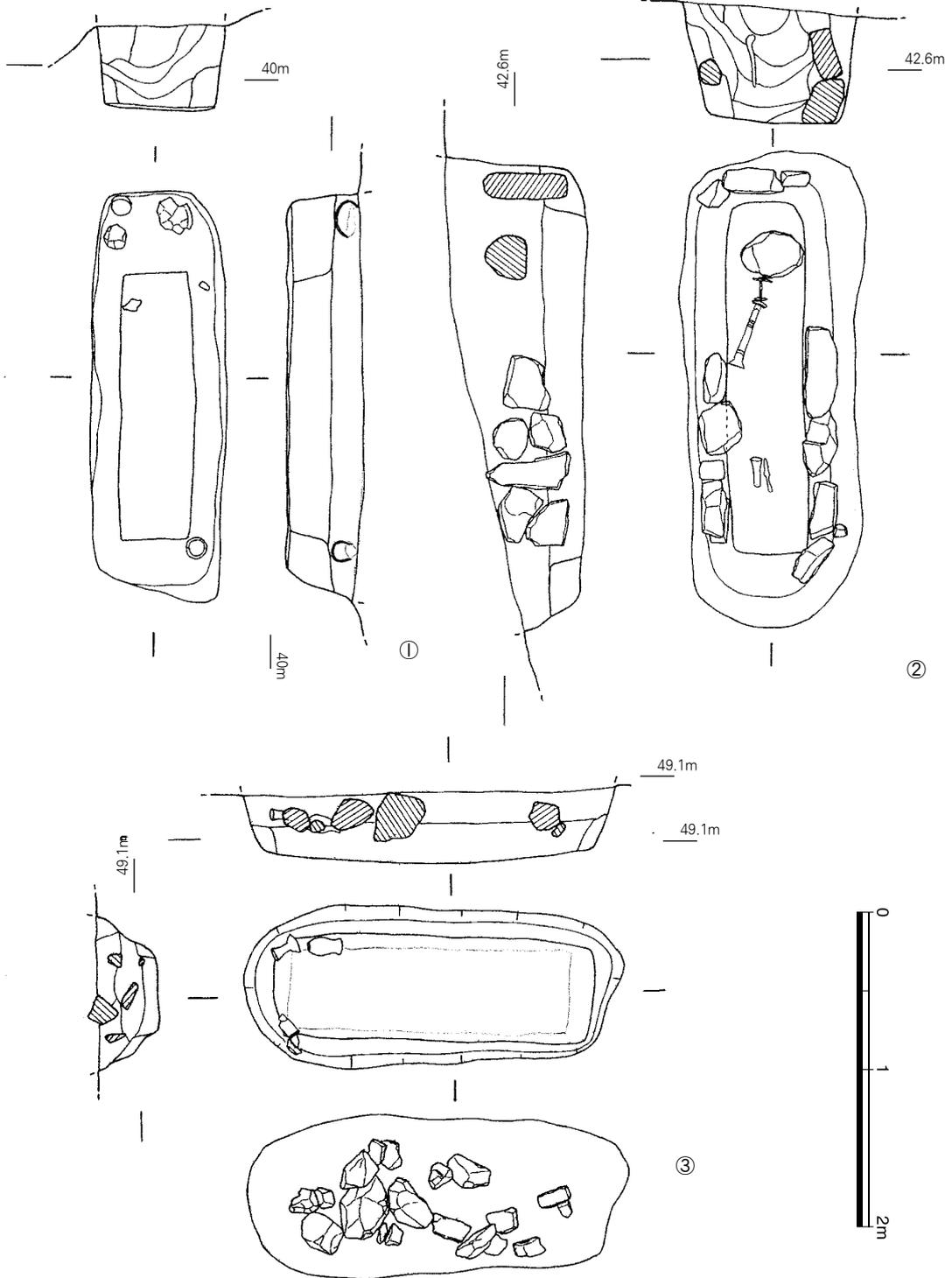
둘째, 팔달동 유적 목관묘의 중심연대는 B.C.2C~A.D.2C초로 무문토기가 출토되는 I 단계와 와질토기가 출토되는 II 단계로 나뉜다.

셋째, 조합식 목관묘와 토광묘는 B.C.2C~A.D.2C초까지 계속해서 사용되었으며 통나무관은 I 단계에 해당되는 B.C.2C~기원년 까지만 사용되었다. 적석목관묘는 I 단계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며 II 단계에서도 조합식 적석목관묘는 예가 드물지만 지속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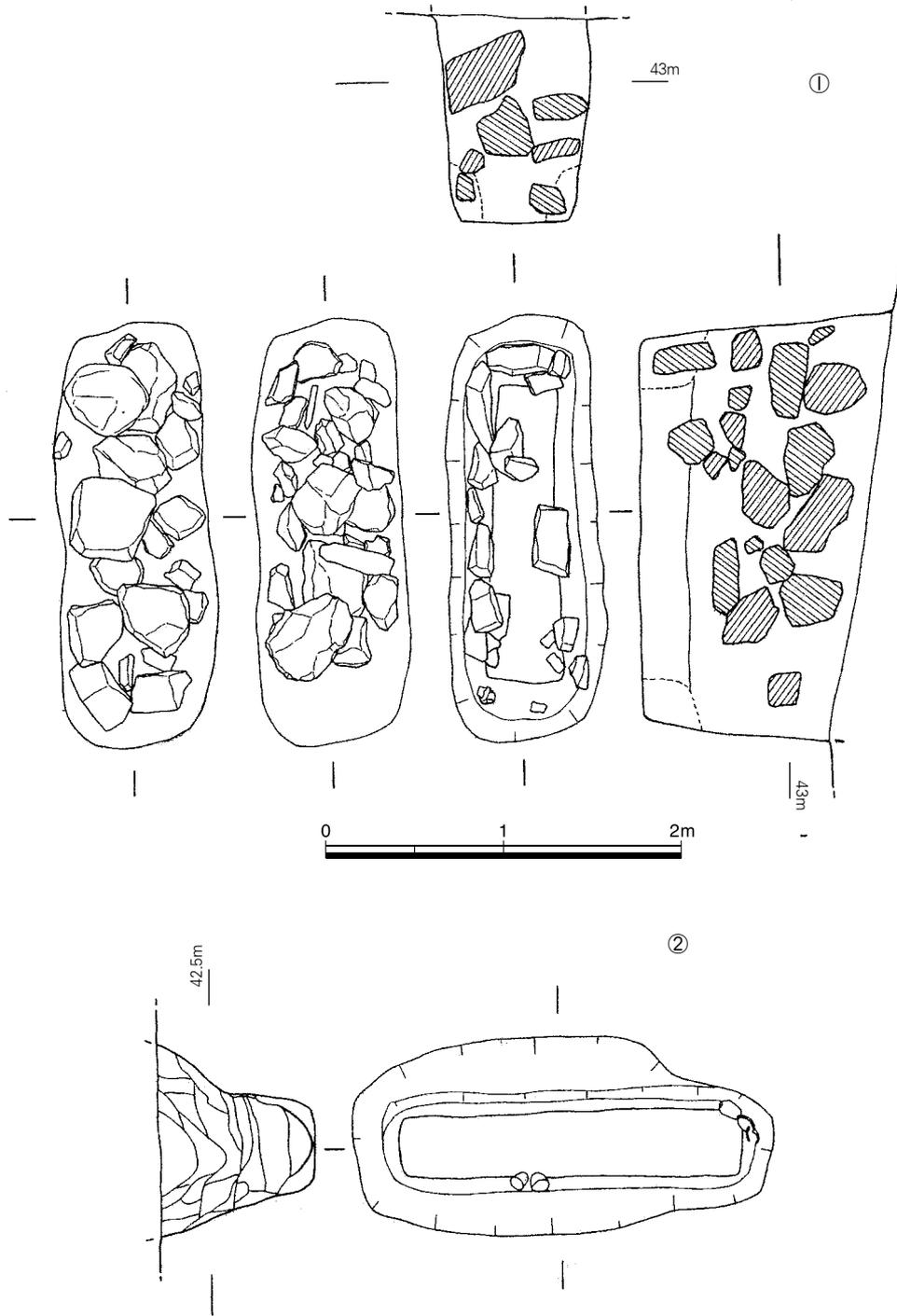
끝으로 적석목관묘 자료는 영남지방에서는 검토된 바 없었던 자료로 팔달동 유적보다 앞선 시기의 한반도 중서부 및 호남지방의 자료들과 상호관련성을 유추할 수 있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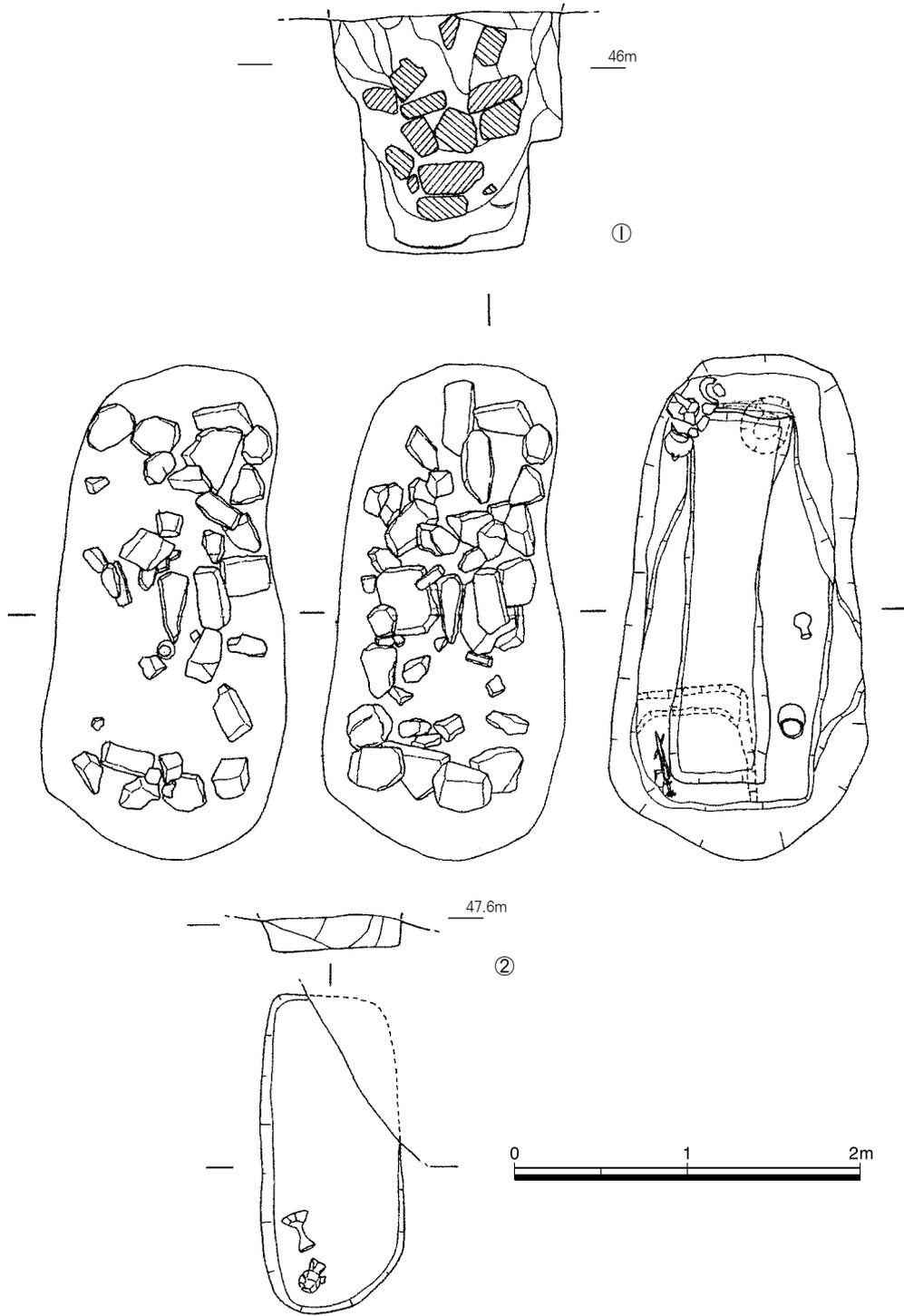
〈도 2〉 대구 팔달동유적 목관묘 및 토광묘 유구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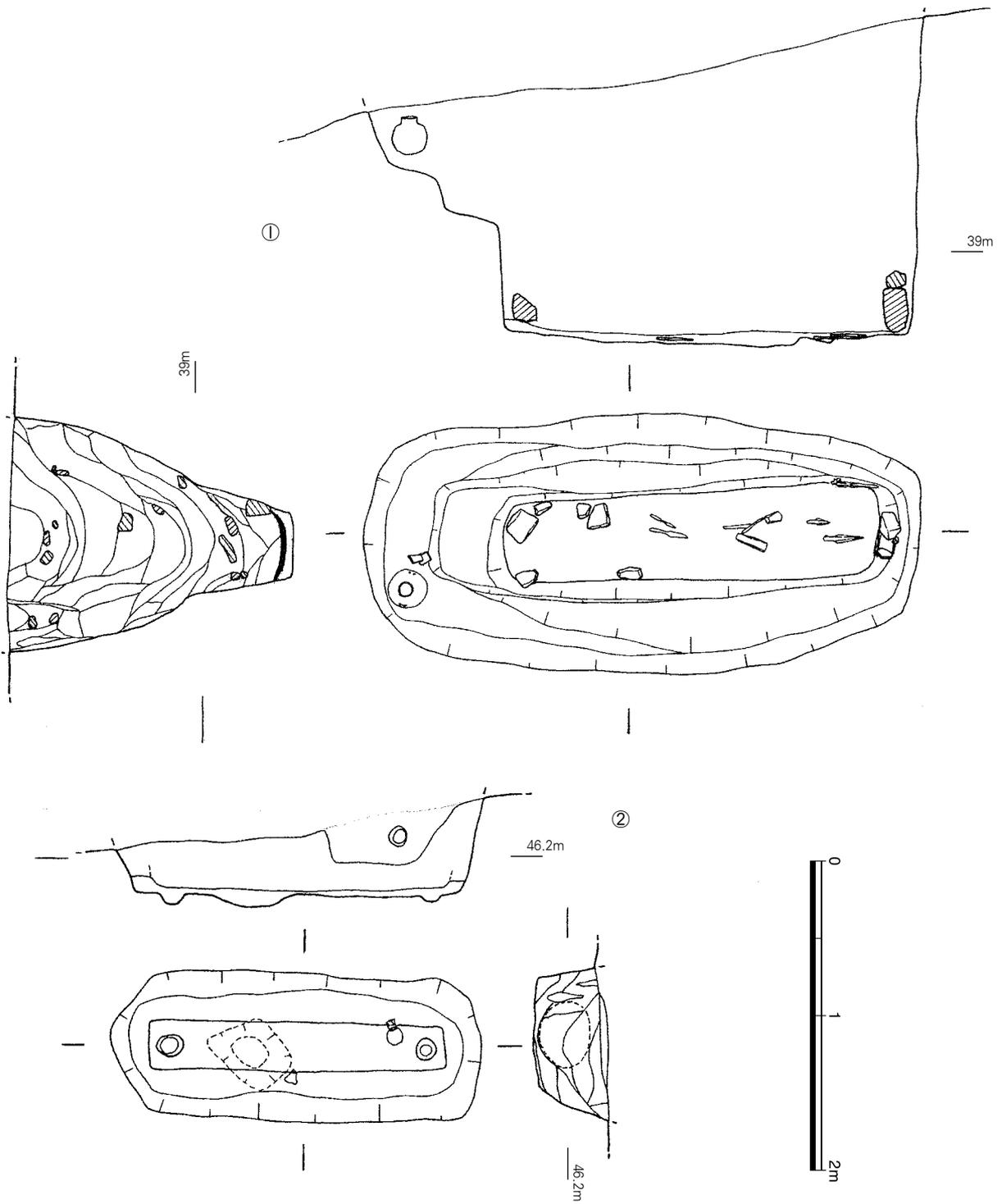
〈도 3〉 ① 82호 ② 99호 ③ 79호



〈図 4〉 ① 86号 ② 83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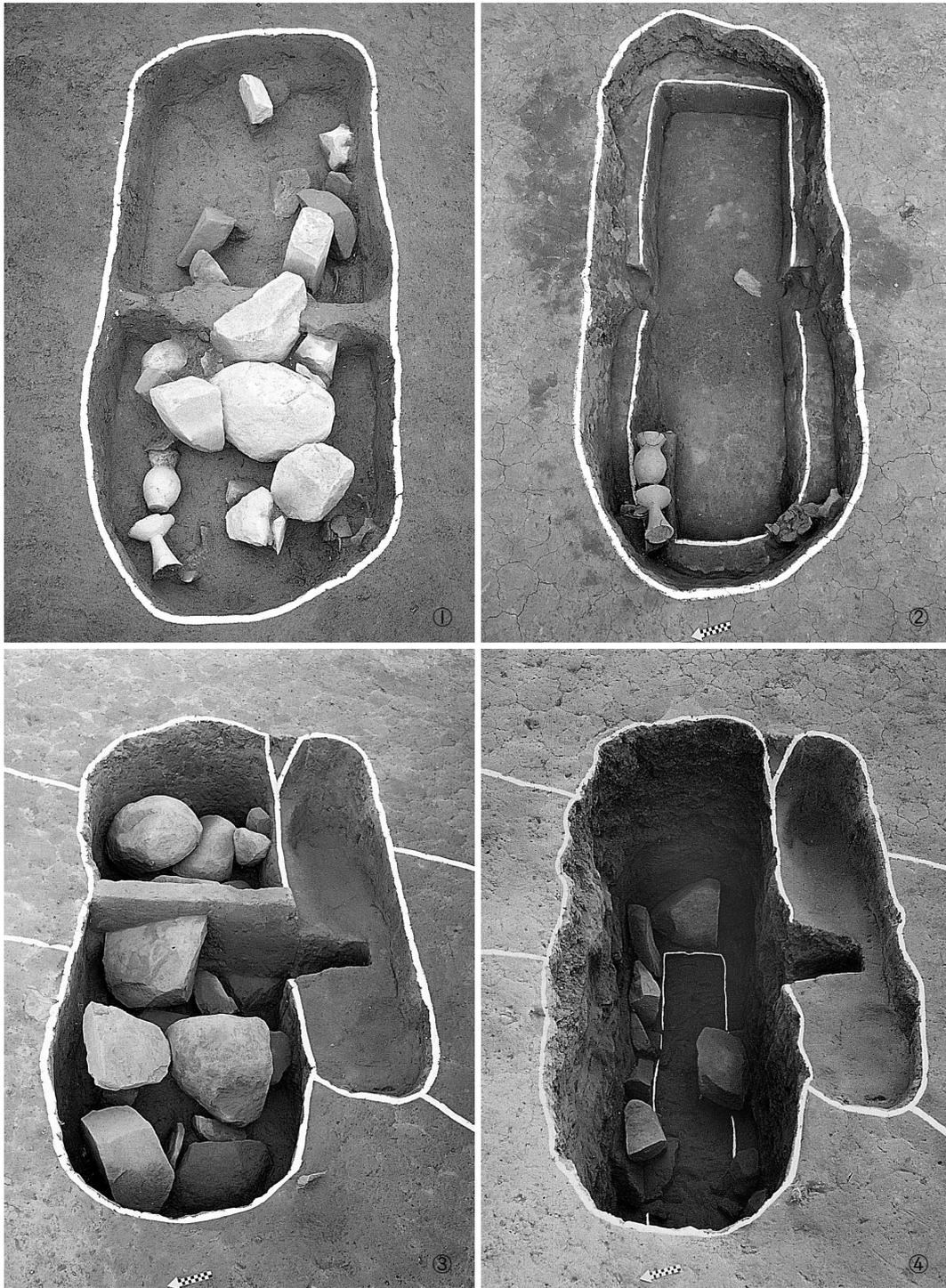
〈도 5〉 ① 45호 ② 4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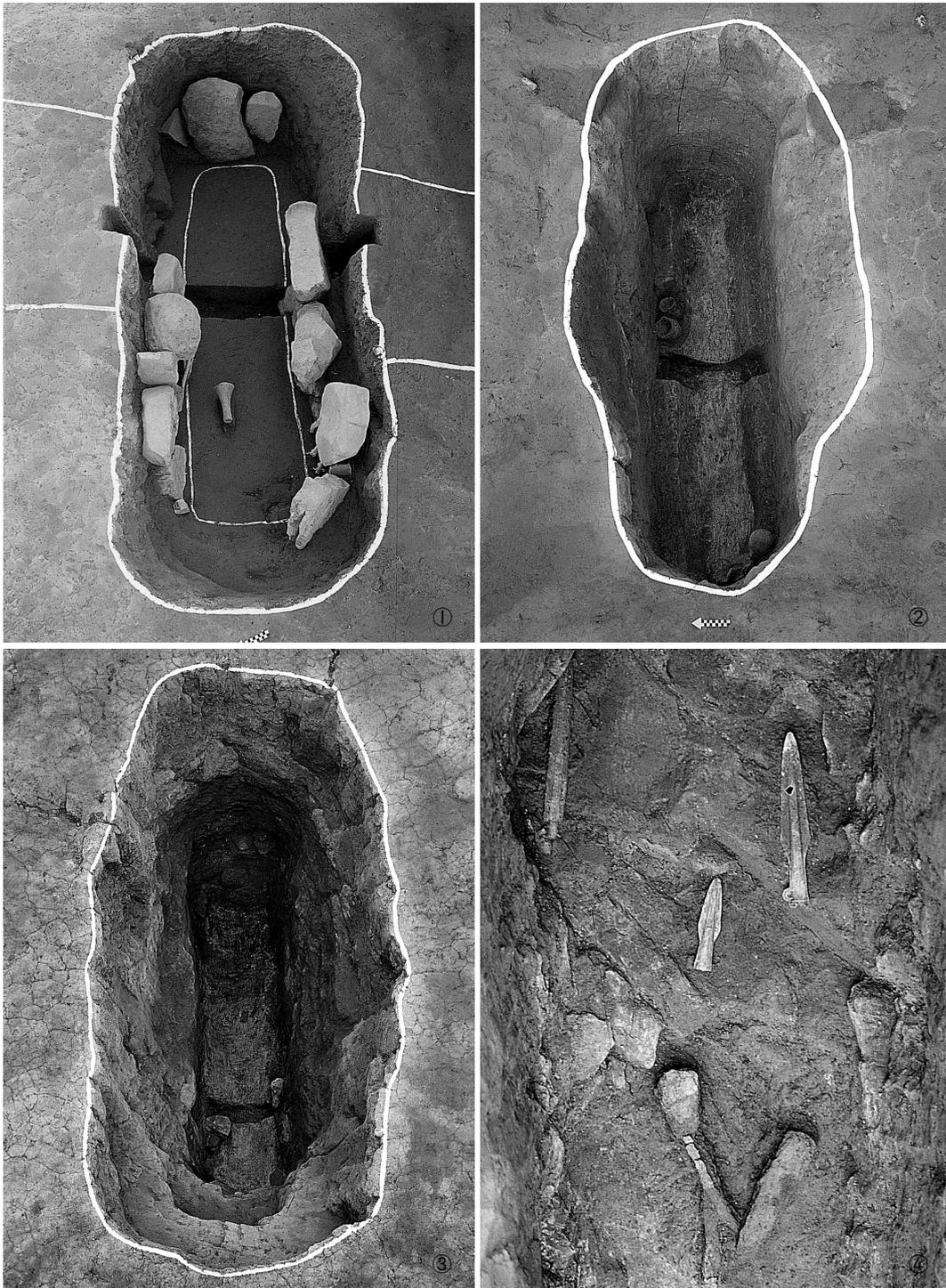
〈도 6〉 ① 100호 ② 58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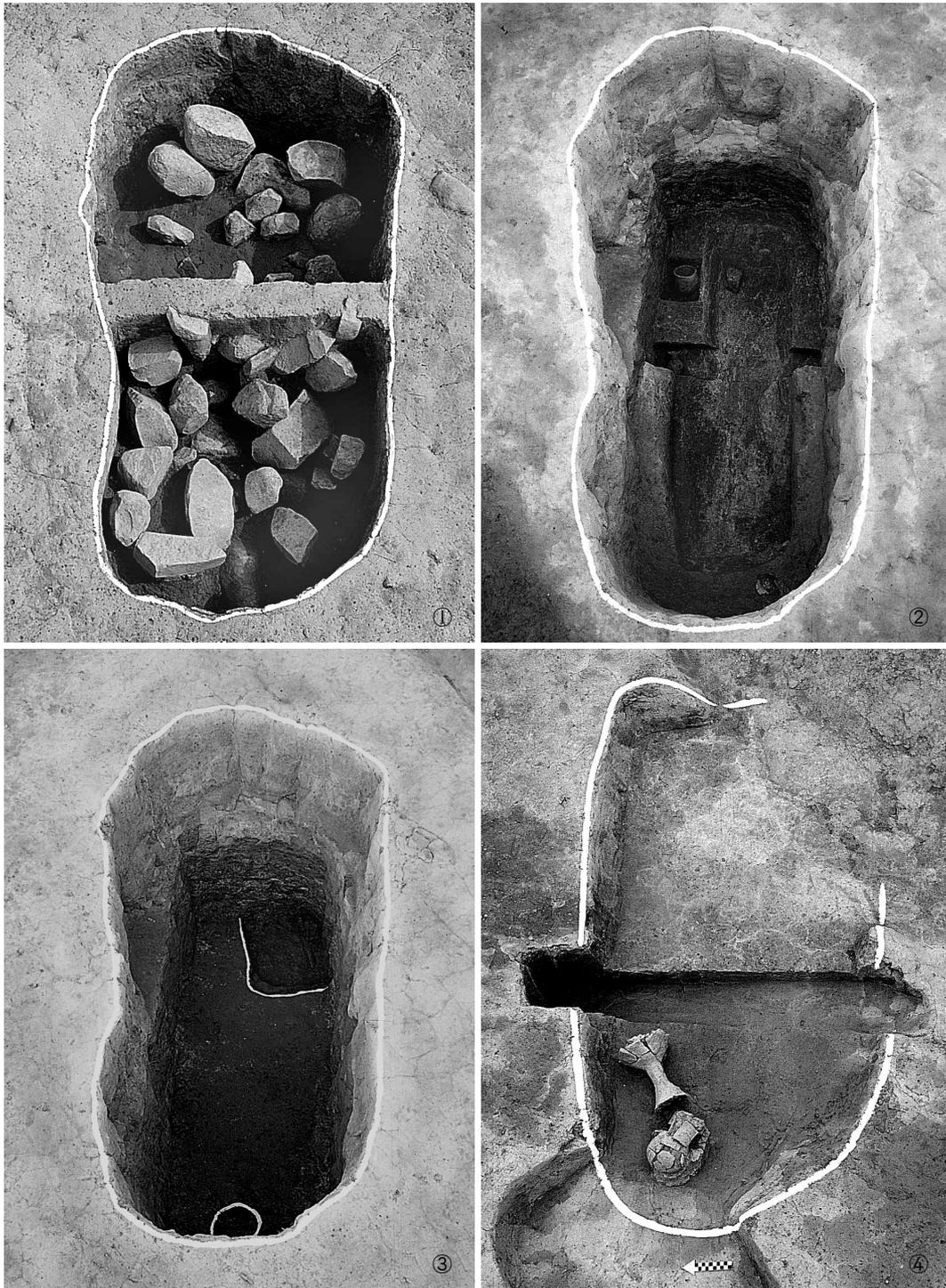
〈사진 1〉 ① 유적전경 ② 82호 전경



〈사진 2〉 ① 79호 적석함물상태 ② 79호 전경 ③ 86호 적석함물상태 ④ 86호 전경



〈사진 3〉 ① 99호 전경 ② 83호 전경 ③ 100호 전경 ④ 100호 유물출토상태



〈사진 4〉 ① 45호 적석함물상태 ② · ③ 45호 전경 ④ 42호 전경



〈사진 5〉 ① 82호(좌2), 99호(우1) ② 79호(좌2), 86호(우1) ③ 83호(좌3), 42호(우2)



〈사진 6〉 ① 45호(좌3), 100호(우1) ② 두형토기 각종(55호,57호,63호,77호)
③ 대부주머니호(76호), 대부발(110호)



〈사진 7〉 ① 흑도장경호 각종(41호, 71호, 60호, 75호) ② 주머니호 각종(87호, 31호, 29호, 96호)



〈사진 8〉 ① 조합식우각형파수부호 각종(85호, 111호, 106호) ② 단경호 각종(74호, 105호)

三國時代 聚落의 立地에 관한 一 考察

- 大邱 · 慶山地域을 中心으로 -

張容碩*

〈 목 차 〉

I. 머리말	1. 사료상의 취락입지
II. 대구 · 경산지역 삼국시대 고분군의 분포	2. 칠곡유적 취락지
1. 대구지역 고분군의 분포	3. 시지유적 취락지
2. 경산지역 고분군의 분포	4. 임당유적 취락지
III. 대구 · 경산지역 삼국시대 성 (토성, 산성)의 입지	V. 고분군 · 성 · 취락과의 관계
1. 토성의 입지	1. 취락과 고분군과의 관계
2. 산성의 입지	2. 취락과 성과의 관계
IV. 대구 · 경산지역 삼국시대 취락유적 조사례	3. 입지 및 기능론적 연구
	VI. 맺음말

I. 머리말

최근들어 대규모의 택지개발사업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면서 고대 생활유적과 관계된 유구들이 전국 도처에서 발굴조사되고 있다. 이는 택지개발지구의 입지가 주거의 적합성, 교통의 편리성 및 주변지역과의 관계성을 고려하여 개발지구로 확정되기 때문이며, 이러한 지역은 주로

* (사)영남매장문화재연구원

넓은 평야지대나 얇은 구릉을 포함한다. 당시의 고대인들도 이러한 지형은 그들의 삶을 영위 하기에 매우 적당한 입지였기 때문에 그들이 남긴 생활유적이나 매장행위와 관계된 고분군이 넓게 분포하고 있음이 조사과정에서 밝혀지고 있으며, 이러한 유적들에 대한 일련의 조사성과로 인하여 당시의 생활상 및 사회상의 연구에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삼국시대 고고학은 주로 고분유적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온 것이 사실이며, 이를 통하여 당시 사회의 발전과정, 교역체계, 생산체계, 내부구조 등을 파악하여왔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조사성과들로 인하여 사료가 빈약한 삼국시대 역사의 상당부분을 보완해준 것은 고고학의 큰 업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러한 조사성과는 지금까지 주로 영남지방이 다른 지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져왔으며, 이로 인하여 영남지방의 고분유적에 대한 일차적인 정리(고분편년 및 유물의 상대서열)는 대략적으로 이루어진 상태이다. 그러나 고분유적은 당시인들의 사후세계와 관련된 자료라는 한계성을 항시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해 줄 적극적인 자료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자료로서 고고학 분야에서는 생활유적과 관련된 聚落遺蹟, 製鐵遺蹟, 農耕관련 生産遺蹟, 그리고 역사학 쪽에서는 金石文 자료를 들 수 있을 것이고, 기타 제 학문들과 유기적인 협조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고고학적 조사에서 매우 드물기는 하지만 고대 생활유적과 관계된 취락지에 대한 조사가 일부 이루어졌으며, 이와 관련하여 취락고고학에 대한 연구경향과 방법론들이 일부 소개되었다¹⁾. 취락은 그 개념상 협의적 개념과 광의적인 개념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주거지만을 연구대상으로 하며, 후자는 주거지를 포함하여 그 주변에 배치되어 있는 주거지, 경작지, 도로, 수로, 패총, 공지, 사회공공건물지, 제사유적 등을 포함하는 의미²⁾로 사용된다. 따라서 고대 취락과 관계해서는 주변에 위치하는 고분군, 토기요지, 경작지, 성, 저습지 등이 포함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취락유적은 주생활과 관련된 고고학의 대표적인 자료로서, 당시인들의 일상적인 생활내용을 담고있는 자료이기도 하다. 지금까지는 취락고고학이 주로 개별 주거지의 구조문제에 치중한 반면 취락의 기능 및 취락 주변의 생산유적 등의 문제에는 등한시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의 바탕에는 전면적인 주거유적의 미조사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³⁾. 그러나 대규모의 개발사업으로 인한 전면적인 조사의 결과로 완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취락의 규모나 주변 생활유적에 대한 새로운 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점차 증

-
- 1) 추연식, 1994, 「취락고고학의 세계적 연구경향」『마을의 고고학』제18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요지, 45~57쪽.
 - 2) 秋淵植, 1994, 「聚落考古學의 세계적 연구경향」『마을의고고학』제18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요지, 45~46쪽.
 - 3) 權鶴洙, 1994, 「역사시대 마을고고학의 성과와 과제」『마을의 考古學』第18回 韓國考古學全國大會 發表要旨, 40~41쪽.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조사예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고분군과 성의 입지를 살펴보고, 최근에 발굴 조사된 삼국시대 취락지 유적의 입지를 통하여 고분군 및 성과의 관계성을 찾아보고자 한다.

한편 본고에서는 극히 제한된 몇 개의 취락유적-이들 유적은 당시로서는 상당한 규모의 취락지로 추정되며, 소규모 고분군과 관계될 자연촌에 해당하는 취락유적은 현재까지 대구·경산 지역에서 조사되지 않음-을 선정한 결과로 인하여 고분군 및 성과 취락의 입지 상관관계에 상당한 오류를 발생시킬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각각의 취락유적은 서로 시기적으로 큰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고분군과 성, 취락의 종합적인 연구 없이는 당시의 사회상과 국가 성립과정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연구는 대구·경산지역⁴⁾의 고고학적 자료와 문헌사료 및 지리학적 연구성과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개발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Ⅱ. 대구·경산지역 삼국시대 고분군의 분포

1. 대구지역 고분군의 분포

현재까지 대구지역에서는 42곳의 삼국시대 고분군이 확인되었다. 대구가 광역시로 확대되기 전의 시역에서 22곳, 광역시로 새로이 편입된 달성군에서 20곳⁵⁾의 고분군이 조사되었으며, 이를 다시 행정단위별로 분류하면 대구시 동구 7곳, 서구 1곳, 남구 1곳, 북구 4곳, 수성구 6곳, 달서구 3곳 등이며, 달성군 화원읍 4곳, 논공읍 2곳, 현풍면 3곳, 유가면 3곳, 옥포면 5곳, 다사면 2곳, 하빈면 1곳, 구지면과 가창면에서는 한 곳도 확인되지 않았다. 고분군들의 대부분은 낙동강과 금호강의 주변에 넓게 형성된 평야지대 및 주변 구릉상에 분포한다. 현재까지 대구지역에서는 5곳에서 대형봉토분들이 포함된 고분군이 확인되었는데, 달성고분군, 구암동고분군, 문산리고분군, 성산리고분군, 불로동고분군 등이며, 이들은 모두 당시 소국의 국읍에 비정되고있다. 이들 고분군들은 김용성이 제시한 분류기준인 분묘에서 출토되는 유물의 질과 양, 분묘의 규모에 의해서 볼 때 최상위 집단인 “A”급 고분군에 해당한다.

4) 본고에서의 대구·경산지역은 현재의 행정구역을 나타낸다. 즉 대구는 광역시로 편입된 달성군을 포함하며, 경산은 경산시 및 과거의 경산군을 포함하는 의미이다.

5) 大邱廣域市 達成郡·大邱大學校博物館, 1997, 『達成郡 文化遺蹟 地表調査報告書』, 114~171쪽.

〈표 1〉 대구·경산지역 “A”급 고분군간의 이격거리

고분군명	이격거리
구암동고분군 - 달성고분군	6.5km
구암동고분군 - 불로동고분군	7.5km
문산리고분군 - 성산동고분군	7.5km
불로동고분군 - 달성고분군	8.5km
성산동고분군 - 달성고분군	11km
불로동고분군 - 임당동고분군	12km
임당동고분군 - 달성고분군	16km

〈표 1〉에 의하면 “A”급 고분군간의 이격거리는 대체로 6.5km~16km 정도이다. 대구지역의 중심부에 해당하는 달성고분군을 중심으로 본다면 경산지역의 임당동고분군과 달성지역의 성산동고분군에서의 거리는 여타 대구지역에 분포하는 고분군(구암동, 불로동)보다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분포하고 있다. 또한 이들 고분군들은 낙동강 및 금호강을 경계로 북쪽에 3곳(구암동, 불로동, 문산리), 남쪽에 나머지 2곳(달성고분군, 성산동고분군)이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각각의 고분군은 임당유적의 경우처럼 대단위의 취락지가 주변에 분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고분군들의 입지가 주로 넓은 평야의 주변지역인 점에서 인구의 밀집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고분군의 조영이 대단위로 이루어진 점에서도 알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B·C”급 고분군들은 소하천이나 산지를 경계로 야트막한 능선상에 입지하고 있으며, 각 “A”급 고분군을 중심으로 한 대단위집단에는 복수의 소단위집단들이 존재하였으며(2~4개), 소단위집단의 하부에는 다시 복수의 최소단위집단이 존재하였다. 이들 소단위, 최소단위고분군간의 거리는 대체로 500m (가천동고분군-시지동고분군)~4km (팔달동고분군-서변동고분군)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좀더 충실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고분군간의 거리는 좁혀질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2. 경산지역 고분군의 분포

경산지역에는 삼국시대 고분군이 모두 43곳에 분포하고 있다. 이들 고분군을 행정단위별로 분류하면 와촌면 10곳, 하양읍 7곳, 진량면 4곳, 압량면 7곳, 경산시내 4곳, 자인면 2곳, 남천면 4곳, 남산면 5곳, 용성면 2곳 등이다⁶⁾. 고분군들은 대구지역의 경우와 같이 대부분 넓은

6) (社)嶺南埋藏文化財研究院·慶山市, 1997, 『慶山埋藏文化財 地表調査 報告書』, 16~19쪽.

평야지대나 하천(특히 금호강 및 오목천)을 따라 형성된 범람원 또는 협곡평야를 배경으로 한 산지의 말단부 구릉이나 독립된 구릉지에 분포한다⁷⁾. 특히 넓은 평야를 바탕으로 한 와촌면, 진량면, 하양읍, 압량면에 집중해서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경산의 동쪽과 남쪽에 해당하는 자인면, 용성면, 남천면의 경우는 삼국시대 고분군이 각각 2곳 씩 밖에 분포하지 않고 있다. 이들 지역은 험준한 산지가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한 결과로 생각되며,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경지가 절대적으로 좁게 나타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들 고분군들은 모두 소하천이나 산지로 구분되어 각각 소집단을 형성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까지의 조사에 의하면 대형봉토분들이 남아 있는 “A” 급 유적으로는 임당동고분군 1곳이며, 중형분들이 남아있는 “B” 급 유적으로는 부호리고분군, 내리고분군, 당음리고분군, 갈지리고분군, 북사동·교촌리고분군, 신상리고분군등 6곳이다. 나머지 고분군은 대부분 소형분들이 밀집분포하고 있다.

〈표 2〉 경산지역 “A”·“B”급 고분군간의 이격거리

고 분 군 명	이 격 거 리
내리고분군 - 당음리고분군	1.5km
임당동고분군 - 내리고분군	2.5km
부호리고분군 - 신상리고분군	4.5km
북사리고분군 - 갈지리고분군	6km
신상리고분군 - 북사리고분군	6km
임당동고분군 - 북사리고분군	6.5km
임당동고분군 - 신상리고분군	6.5km

〈표 2〉에 의하면 “A” 급 고분군과 “B” 급 고분군들, 그리고 “B” 급 고분군들 간의 거리는 대체로 1.5Km~6.5Km 정도 떨어져서 분포하며, 중심고분군인 임당동고분군을 중심으로 모두 경산지역의 동쪽, 남동, 북동쪽에 분포하고 있다. 그리고 부호리고분군, 신상리고분군, 북사리·교촌리고분군, 갈지리고분군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일렬로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경산지역의 중심고분군인 임당동고분군의 주변고분군인 내리고분군과 당음리고분군은 나머지 “B” 급 고분군들 보다 근거리에 입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당시 국읍으로 추정되는 임당유적의 주변으로 대규모의 취락이 형성되어 있었다는 추론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C” 급인 소형분들로 이루어진 고분군간의 거리는 500m(와촌면 신월리고분군들)~1Km(진량면 마곡리고분군-현내리고분군) 정도의 거리를 유지한다.

7) 金龍星, 1998, 『新羅의 高塚과 地域集團』, 춘추각, 259쪽.

Ⅲ. 대구·경산지역 삼국시대 성(토성, 산성)의 입지

고대 국가의 발생과 관련하여 고고학의 입장에서는 고총고분의 출현과 함께, 성곽 시설을 들 수 있다⁸⁾. 이 시기는 정복전쟁이 활발한 시기로 대구 및 경산지역의 주요 지점에는 고분군들을 중심으로 많은 성(토성 및 산성)들이 입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토성의 입지

현재까지 확인된 토성의 수는 대구 7곳, 경산 5곳 등이다. 토성의 축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대체로 삼한시대부터 삼국시대에 걸쳐서 축조된 것으로 이해되며, 4세기를 전후해서 축조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백제지역의 경우에도 3세기 후반부터 4세기경에 걸쳐서 漢城期 百濟의 도읍지인 서울에 토성이 축조되기 시작했으며, 대표적인 토성으로는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이 있다. 토성은 이전 시기까지 방어시설로 사용되던 木柵과 環濠에 비하면 축조와 관련된 노동력, 시간, 기술수준 등에서 한 단계 발전된 형태이다. 지금까지 대구지역에서 확인된 토성으로는 고산토성, 봉무토성, 달성토성, 용두토성, 검단토성, 구라리토성, 문리토성(성담토성) 등이며, 경산지역에서는 임당토성, 내리토성, 압량토성, 평고두미토성, 선화리토성 등이다. 토성의 입지는 대체로 독립구릉 또는 넓은 평야를 가까이 하고 있으며, 낮은 구릉 정상부를 따라서 축조하였으며, 성의 둘레가 그리 길지 않다는 점, 주변에 큰 강(낙동강, 금호강)이 흐른다는 점, 주변에 고분군(대구모고분군 및 소규모고분군)이 존재한다는 점⁹⁾ 등이다. 최근에 조사된 임당토성은 낮은 구릉의 자연경사면을 따라 축조되었으며, 성의 내부와 외부에서 성과 관련된 취락이 조사되었다. 또한 일부분만 조사된 달성토성도 성벽아래의 포함층에서 와질토기가 출토된 점으로 보아서 삼한시대부터 성 주변에 취락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¹⁰⁾.

한편, 대구지역의 토성 가운데 검단토성과 봉무토성은 자연적인 입지상황을 최대한 이용하였는데, 검단토성은 성의 동쪽부분을 금호강에 의해 형성된 자연 단애면으로 이용하였으며, 봉무토성은 성의 앞 쪽인 남쪽부분의 가파른 경사면을 최대로 이용한 점이다.

2. 산성의 입지

현재까지 확인된 산성의 수는 대구 시내 15곳, 경산 4곳 등이다. 산성의 출현이 4세기경이라는 견해도 있으나¹¹⁾, 파괴되거나 수축, 개축 등으로 인하여 초축 시기를 알기에는 상당히 힘이

8) 大邱市史編纂委員會, 1995, 「先史 및 古代」『大邱市史』第一卷(通史), 203쪽.

9) 大邱市史編纂委員會, 1995, 「先史 및 古代」『大邱市史』第一卷(通史), 204쪽.

10) 大邱直轄市·慶北大學校博物館, 1990, 『大邱의 文化遺蹟』, 213쪽.

11) 李銖勳, 1993, 「新羅 村落의 立地와 城·村名」『國史館論叢』第48輯, 152쪽.

〈표 3〉 대구·경산지역 성과 고분군과의 관계

성	고 분 군
구라리성지	성산리고분군
설화리산성	설화리고분군
수문진성지	성하리고분군
양리산성	양리고분군
석문산성	.
내리토성	.
문산리산성	문산리고분군
죽곡리산성	죽곡리산성
하산리성지	.
삼산리성지	.
오리성지	.
사방산성지	.
고산토성	성동고분군
달성토성	달성고분군
용두토성	대명동고분군
봉무토성	봉무동·불로동고분군
검단토성	북현동고분군
팔거산성	구암동고분군
용암산성	봉무동·불로동고분군
대덕산성	.
옥수동산성	중산동·성동·옥수동고분군
임당토성, 압량리토성 내리토성, 평고두미토성	임당동고분군
선화리토성	신상리고분군
용산성, 소용산성	갈지리고분군
단북리산성	북사리·교촌리고분군
구일리산성	대명리고분군

* 달성군 유적은 『達城郡 文化遺蹟 地表調査報告書』(1997), 나머지 유적은 金龍星의 『新羅의 高塚과 地域集團』(1998)에서 轉載함.

든다. 대구지역에서 확인된 산성은 옥수동산성, 용암산성, 대덕산성, 오리성지, 우록동, 삼산리성지, 팔거산성, 죽곡리산성, 하산리성지, 설화리산성, 수문진성지, 양리산성, 석문산성, 문산리산성, 사방산성지 등이며, 경산지역에서 확인된 산성은 구일리산성, 단복리산성, 소용산성, 용산성 등이다. 산성은 공법상 전시기로 추정되는 토성보다 발전된 형태로서, 성의 규모, 축성 시간, 노동력의 동원 등으로 볼 때 전시기보다 더 발전한 정치체의 존재를 상정할 수 있다. 산성의 입지는 험준한 산악지형을 이용하여 외부에서 내부로 통하는 교통로 상의 군사적 요충지에 축조하거나, 또는 유사시에 대피할 수 있는 취락지의 주변에 성을 축조하였을 것이다. 이처럼 대구·경산지역의 산성들은 앞쪽면에 넓은 평야지대가 분포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며, 험준한 지형을 이용하여 사방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분포하고 있다. 산성의 입지가 이처럼 주요한 지점을 택하여 축조된 것은 각국간의 치열한 전투 및 무기의 발달로 인한 방어의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생각되며, 토성만으로 효과적인 방어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생겨난 것으로 생각된다.

Ⅳ. 대구·경산지역 삼국시대 취락유적 조사례

본 장에서는 먼저 사료상에 나타난 내용을 통하여 삼국시대 취락에 대한 대강의 입지를 살펴본 뒤, 대구·경산지역에서 고고자료를 통해 조사된 칠곡유적 취락지, 시지유적 취락지, 임당유적 취락지의 입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사료상의 취락입지

① 先是, 朝鮮遺民 分居山谷之間爲六村,¹²⁾

사료 ①은 삼국사기 초기 기사로서 사료육촌의 성립이 산곡간을 중심으로 발생했음을 나타내며, 이는 당시의 취락입지가 산지와 평지가 만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각 취락간에는 일정한 거리(分居)를 유지하면서 떨어져 있었는데, 《삼국유사》에 기록된 진한(사로)의 6촌은 다수의 자연취락의 결합체라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② 夏四月 暴雨 關川水溢 漂流人家 金城北門自毀,¹³⁾

사료 ② 기사는 阿達羅王 7년(160) 기사로서, 기사 ①이 산곡간에 취락이 입지하고 있으며, 각 취락간에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분포함을 알 수 있는데 비하여, 기사 ②는 취락의 범위가 확대되어 알천 주변부에까지 사람들이 살고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아마도 대규모 취락의

12) 《三國史記》新羅本紀1, 始祖 赫居世 居西干 卽位年條.

성립이 점차적으로 성립되기 시작했음을 나타내는 기사로 추정되며, 인구증가로 인한 공간부족의 탈출구로서 평야지대로 진출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은 경주분지 내에 성을 축조함으로써 자기방어를 위한 공간확보를 마련한 것으로 생각된다.

③ 春正月 定京都坊里名 夏四月 國西大水 漂毀民戶 秋七月 王巡撫經水州郡,¹⁴⁾

사료 ③ 기사는 자비왕 12년(469) 경주분지에 방리를 정하였고, 큰 물로 인한 자연재해로 인하여 취락과 농경지등이 상당수 무너졌거나 떠내려갔음을 짐작케하고, 왕이 친히 수해지역을 돌아다니며 백성들을 위로해주었다는 기록이다. 이 즈음의 경주분지 내에는 상당수의 취락이 분포하고 있음을 방리의 제정으로 알 수 있으며,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를 방지할 수 있을 정도의 치수관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해석된다.

위의 기사들을 바탕으로 취락의 입지를 살펴보면, 취락은 산지와 평지가 만나는 지점 및 분지임을 알 수 있고, 점차적으로 경주분지 내에 취락이 증가한다는 내용이다. 아직까지 경주분지 내에서 사로국의 6촌에 비정할만한 유적이 조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시기의 취락 분포를 결정지을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로 보면 경주지역 외곽에 분포하는 입실리, 조양동, 구정동, 사라리, 중산리고분군 등이 대부분 구릉의 경사지 및 평야와 접한 구릉경사면에 접해서 분포하고있으며, 동시기에 해당하는 대구 팔달동, 경산 임당동유적의 경우에도 능선 말단부 및 평야와 접한 소구릉의 경사면에 위치하고 있다. 이 가운데 경산 임당동유적의 경우는 당시의 분묘유구와 취락이 서로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음이 조사결과 확인되었다. 따라서 다른 유적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양상으로 고분군과 취락이 결합될 가능성이 높다.

2. 칠곡유적 취락지¹⁵⁾

칠곡유적은 대구시 북구 구암동 및 동천동 일대에 분포하며, 이곳에서는 무문토기시대 및 삼국시대 유적이 조사되었다. 유적은 범람원 위에 형성된 자연퇴적층을 따라 남-북으로 길게 분포하며, 유적의 상당부분은 팔계천의 상습적인 범람으로 인하여 유실되었다. 한편 유적의 동쪽에는 팔공산의 가지능선인 함지산이 북동-남서 방향으로 길게 뻗어 있으며, 함지산의 남쪽 끝자락에는 팔달동유적이 위치하고 있다. 함지산의 정상부에는 팔거산성이 축조되어 있으며, 산성에서 서쪽으로 약간 떨어진 곳에는 구암동고분군이 위치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조사

13) 《三國史記》新羅本紀2, 阿達羅王 7年條.

14) 《三國史記》新羅本紀3, 慈悲王 12年條.

15) 慶北大學校博物館, 1993, 「漆谷宅地(2)地區 文化遺蹟 1次發掘調查 結果報告」; 慶北大學校博物館, 1994, 「大邱漆谷宅地開發地區 文化遺蹟 2次發掘調查 結果報告」; 한국문화재보호재단, 1998, 「대구 칠곡 3택지 개발지구내 2구역 문화유적 발굴조사」-지도위원회 및 현장설명회 자료; 嶺南埋藏文化財研究院, 1998, 「大邱 東川洞 마을遺蹟 發掘調查」-현장설명회자료.

결과 칠곡유적은 무문토기시대에 형성된 생활유구, 분묘유구, 경작유구가 함께 분포하는 복합 유적임이 밝혀져 이른 시기부터 이 지역이 인간거주와 매장공간으로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삼국시대에 들어와서는 주로 취락공간 및 경작공간으로만 활용된 듯 하며 매장공간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동쪽에 위치하는 능선상부 쪽으로 이동하였다. 삼국시대 취락유적에서 확인된 개별유구들은 주로 토광, 굴립주건물과 관계된 주혈군, 부정형수혈유구, 도랑(水溝), 목조우물, 석조우물, 토기조우물 등이 조사되었으며, 여기서는 중심연대가 5-7C대인 토기 및 목제품들이 출토되었다. 이곳에서 조사된 개별 유구들의 대부분은 시지유적 취락에서 조사된 유구들의 성격과 매우 흡사하다. 즉 수많은 주혈군, 정확한 형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수혈유구, 다수의 우물 등이 그것이다. 최근에 실시된 칠곡 3택지 개발지구내 발굴조사에서는 통일신라시대 유구로 추정되는 豎穴遺構, 溝狀遺構, 木柵列유구, 高床家屋과 관련된 주혈군 등이 확인되었다. 보고자들은 이 유적의 중심연대를 8세기경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통일신라기 지방에 기와(막새)의 사용은 官衙, 寺刹, 山城과 같은 군사 관련 시설에 한정된 점에 주목하면서, 주변 유적의 입지 및 수혈, 구상유구에서 다수의 철축이 출토되는 점에 중시하면서 관아의 부속건물이나 兵營과 관련된 임시주둔지로 추정하였다. 그리고 유적의 동쪽에 분포하는 구암동고분군은 능선을 따라 대형봉토분들이 조영되어 있으며, 그 주변으로는 소형분들이 분포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구암동 56호분 1기만 영남대학교 박물관에 의해서 조사되었으며, 56호분의 크기는 길이 18m, 높이 4.5m의 半球狀의 적석분을 형성하고 있다¹⁶⁾. 대형봉토분들의 규모 및 분포로 볼 때, 이곳은 당시의 국읍에 비정되며 따라서 대규모의 취락이 분포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고분군과 취락과의 직선거리는 약 300m 정도 떨어져 있으며, 고분군의 동쪽에는 산성이 입지하고 있어서 세 유적은 일정한 세트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시지유적 취락지¹⁷⁾

최근에 조사가 완료된 시지유적에서는 청동기시대 고분, 삼국시대 생활유구 및 고분유구, 조선시대 생활유구등이 발굴조사 되었으며, 주변지역에는 삼국시대에 만들어진 성동토성과 옥수동산성, 중산동 토기요지등이 보고되고 있다. 이처럼 삼국시대의 이 지역은 생활유구, 분묘유구, 성, 토기요지등이 한 지역내에 일정한 공간배치를 이루고있는 複合生活遺蹟이다. 삼국시대 취락이 분포하는 지형은 대구-경산간 고산국도의 남쪽에 접해있으며, 유적의 남쪽으로는 안산(해발 470.9m)과 성암산(해발 469.1m)이 위치한다. 유적은 안산과 성암산 계곡에서 흘러내리는 옥수천으로 인하여 생긴 비교적 넓은 扇狀地가 형성되어 있는 곳으로서, 취락지에서

16) 金宅圭·李殷昌, 1978, 『鳩岩洞古墳發掘調査報告』, 嶺南大學校博物館, 41~42쪽.

17) 嶺南埋藏文化財研究院, 1995, 「大邱 時至洞 生活遺蹟 發掘調査(Ⅰ)」-현장설명회자료.

조사된 삼국시대 생활유구로는 5C~7C대에 축조된 지상식건물지, 부정형 수혈유구, 도로유구, 구, 우물, 인공연못, 석조구조물 등이다. 그리고 취락지의 서쪽에는 현재까지 조사된 800여기 이상의 삼국시대 고분이 남북으로 길게 뻗은 능선을 따라 분포하고 있으며, 취락지의 동쪽으로도 중산동고분군과 토기요지가 남북으로 뻗은 능선상에 분포하고 있다. 또한 유적의 북쪽지역, 즉 扇狀地形의 선단부에 해당하는 곳에는 성동토성이 위치하며, 성의 남쪽 경사면을 따라서는 삼국시대 고분군이 분포하고 있다. 金龍臺에 의하면 성동고분군은 B급, 옥수동고분군은 C급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옥수동고분군의 조사결과 현재까지 약 800여기의 고분군이 확인되었으며, 시기적으로도 4세기 목곽묘 단계부터 6세기 이후 석실분까지 계속해서 조영되고 있는 반면, 성동고분군에서는 지표조사 결과 5m 내외의 석곽묘들이 일부 조사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후자의 경우는 유적의 성격이 아직 불분명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고분군의 등급이 뒤바뀌는 현상도 예상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조사결과 시지유적 취락의 경우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점은 다수의 주혈군, 부정형 수혈유구, 우물들이 조사되었지만 유적의 정확한 성격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에 비하여 앞선 시기에 해당하는 임당유적에서는 2세기 말이나 3세기초부터 5세기에 해당하는 방형, 장방형, 원형의 지상식주거지들이 일정한 형태를 가지면서 축조된 점에 비추어보면 사회의 발전이나 주거형태의 발전이 더욱 이루어진 5세기 이후부터 7세기에 걸쳐서 축조된 시지유적 취락들의 형태가 부정형의 수혈과 주혈로만 이루어진 점은 상당한 의문으로 남는다. 따라서 시지유적 취락의 경우 지금까지 조사된 유구는 일상적인 주거용도로 사용되었기 보다는 다른 특수한 용도(주변에 입지한 중산동토기요지 집단의 특수 시설)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일상적인 주거용도로 사용된 당시의 취락은 선단부에 해당하는 성동고분군과 성동토성이 위치하는 주변지역으로 생각된다. 특히 지금까지 지리학의 연구성과로 볼 때 선단부쪽이 취락의 입지조건으로 가장 유리하다는 견해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4. 임당유적 취락지¹⁸⁾

임당유적은 1982년 이후 영남대학교 박물관에 의하여 3차에 걸쳐 고분유구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1995년 영남매장문화재연구원과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 의해서 조사가 완료된 유적이다. 영남매장문화재연구원이 조사한 지구에서는 주거지, 토성, 고분, 저습지, 환호 유구등이 조사되었으며,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조사에서는 1,000여기의 고분이 조사되었다. 특히 임당유적의 서쪽편에 해당하는 F·I지구에서는 생활유구가 처음으로 확인되어 단일지

18) 嶺南埋藏文化財研究院, 1995, 「慶山 林堂遺蹟 發掘調査 -F지구-」-현장설명회자료; 嶺南埋藏文化財研究院, 1996, 「慶山 林堂遺蹟 發掘調査 -F·G·H·I지구-」-현장설명회자료; 嶺南埋藏文化財研究院, 1997, 「慶山 林堂遺蹟 發掘調査 -I지구-」-현장설명회자료.

역내의 고분유구와 생활유구간의 공간배치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F지구에서 조사된 58기의 주거지는 능선의 동쪽사면에 위치하며, F지구를 사방에서 감싸면서 축조된 토성의 내측에 포함된다. 주거지의 말단부에서 확인된 목책과의 층위관계는 주거지가 먼저 축조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이들 주거지들 가운데는 토성의 축조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축조된 것들도 확인되고 있다.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에 의하면 주거지 및 토성의 축조시기는 3C~4C경으로 추정된다. 한편 I지구에서 조사된 주거지는 2C후반~7C대에 걸쳐서 형성되었는데, 6, 7C대의 주거지는 적심석들의 일부만 남아있다. 또한 본 지구의 북서쪽 모서리에서는 목관묘 단계에 해당하는 유구로 추정되는 2중 환호 시설의 일부분이 조사되었으며, 내부에서는 두형토기, 무문토기, 고식와질토기, 석기등이 출토되었다. 특히 환호와 관계해서 분포할 것으로 추정되는 당시의 취락은 전부 조사구역의 바깥에 분포하고 있어서 취락의 내부구조는 현재로서 전혀 알 수 없는 실정이다. I지구 취락지가 입지하는 지형은 주변지형보다 낮고, 완만한 북고남저의 지형이다. 취락지의 남쪽에는 사적 300호가 위치하는 능선이 북쪽으로 경사를 이루면서 내려오다 동쪽의 사적 331호가 위치하는 능선에서 뺏어내린 구릉과 만나는 지점에 I지구가 위치한다. 이곳에서는 2C후반~5C대에 해당하는 주거지가 모두 59기 조사되었으며, 후대에 해당하는 적심석건물지와 담장시설, 대·소형 溝들이 분포하고 있다. 이들 주거지들의 분포는 현재의 민가(상궁당과 하궁당 마을)가 입지한 지역과 유적의 서쪽 경작지대 쪽으로 계속 진행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주거영역이 끝나는 남쪽편에서는 자연적인 지형으로 인하여 생긴 低濕地유구가 형성되어 있었다. 이곳에서는 주로 3C~4C대의 주거지를 축조한 당시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다가 버린 토기류, 토제품, 철기류, 석기류, 골제류, 조개류, 목기류, 농공구류등 다양한 유물들이 저습지라는 특수성으로 인해서 거의 원상태로 출토되었다. 한편 취락지의 동쪽과 남쪽편, 즉 사적 300호의 북서쪽 능선에는 취락지를 축조한 당시인들의 고분군이 조성되어있다. 그리고 취락지의 서쪽, 남쪽, 북쪽으로는 谷底平原인 '대정들', '임당들', '대동들', '대평들'이 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유적의 북서쪽에는 금호강의 지류인 남천과 오목천이 흐른다¹⁹⁾.

5. 기타지역 취락유적

위의 세 유적을 제외하고는 대구·경산 지역에서 삼국시대 취락유적으로 정식 조사된 곳은 없다. 다만 대구 팔달동유적의 경우 구릉의 남쪽 사면에서 원삼국시대, 삼국시대 토기편 및 무문토기편들이 채집되었으며, 소토층의 존재도 확인되어 이곳에 취락지가 입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취락인들과 관계된 고분군은 뒤편인 서쪽과 북쪽 능선상에 입지하고 있다²⁰⁾. 최근 조사된 창원 반계동유적²¹⁾에서는 6C~7C대에 해당하는 삼국시대 취락지, 고분군, 경작지등이

19) 韓國土地公社·韓國文化財保護財團, 1998, 『慶山 林堂遺蹟(Ⅰ)』, 9쪽.

조사되어 취락내의 공간분할방식과 토지이용에 대한 정보들을 획득하게 되었다. 취락은 구릉의 완사면부와 舌狀으로 파출된 저위평탄 대지면을 이용하였으며, 수혈유구들은 구릉의 비탈에 의지하여 축을 맞추어 대부분 배치되었다. 조사자는 이러한 현상을 노동력 절감효과와 아울러 일조량의 확보를 위하여 선택한 결과로 보고 있다. 또한 2구역의 경우는 수혈주거지와 석곽묘 등이 동일한 입지에 분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는데, 조사결과 주거공간의 폐기이후 매장공간으로 사용했음이 밝혀졌다. 전남 여수시 美坪洞 陽地 遺蹟²²⁾에서도 삼국시대 주거지 1기 및 토기요지, 태토저장수혈 등이 조사되었는데 주거지 및 기타시설들은 능선의 남서사면에 위치하며, 이들의 장축방향은 등고선과 대체로 나란한 방향으로 설치되었다. 大田 九城洞遺蹟²³⁾은 갑천변의 얇은 구릉지대에 위치하는 유적으로서 청동기시대, 원삼국시대, 백제시대, 조선시대 유구들이 밀집 분포하는 유적이다. 이 가운데 원삼국시대 취락지들은 구릉의 완만한 남쪽 경사면 일대에 29기가 조성되어 있다. 조사결과 대부분의 주거지는 경사면 아랫쪽의 주거지 前面部(출입시설)가 후대의 경작 등으로 인하여 대부분 유실되었다. 그리고 취락지와 관계된 고분군은 확인할 수 없었으며, 취락지 폐기후 4C 중엽경부터 구릉의 동쪽 경사면에 백제시대 고분군이 조성되었다. 또한 유적의 서쪽에는 구성동 토성이 입지하고 있으나 정확한 성격은 알 수 없으며 다만 보고자들은 원삼국시대 취락과 백제시대 고분군과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한강 지류 炭川 상류인 龍仁 水枝遺蹟²⁴⁾에서도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전반경으로 추정되는 백제시대의 소규모 취락지가 조사되었는데, 유적은 선상지의 중앙부 가까이 분포하고 있다.

V. 고분군 · 성 · 취락과의 관계

고대인들은 생업활동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지형에 그들의 주거공간을 마련하고, 그 주변지역에는 사후세계와 관계된 매장공간을 조성한다. 또한 대규모의 취락지나 대형고분군들의 주변에는 외부의 적을 방어하기에 유리한 지형을 이용하여 만든 방어시설물들이 축조된 것을 볼

20) 尹容鎮·崔兌先, 1993, 『漆谷宅地(2)地區 文化遺蹟基礎調查報告書』, 慶北大學校 博物館 叢書 19, 17~18쪽.

21) 崔憲燮, 1998, 「昌原盤溪洞 聚落遺蹟 調查豫報」『제8회 영남매장문화재연구원 조사연구발표회』, 영남매장문화재연구원, 71~72쪽.

22) 林永珍·趙鎮先 徐賢珠, 1998, 『麗水 美坪洞 陽地 遺蹟』, 全南大學校博物館·麗水市.

23) 崔秉鉉·柳基正, 1997, 『大田九城洞遺蹟』, 韓南大學校博物館遺蹟調查報告 第2冊.

24) 李南珪·權五榮·趙大衍·李東完, 1998, 『龍仁 水枝 百濟 住居址』, 韓新大學校博物館調查報告書 第9冊.

수 있다. 여기서는 취락인들의 일상생활 공간인 취락과 사후세계와 관계된 고분군 조성과의 관계, 그리고 잦은 전쟁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집단의 방어와 관계된 취락과 城과의 관계 등을 검토해 보고자한다.

1. 취락과 고분군과의 관계

취락은 기본적으로 背山臨水에 따라서 출입 시설을 남쪽으로 향하게 하여 장시간 일조권을 확보하거나, 경제적 기반인 넓은 평야지대의 주변에 분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 나라는 지형적으로 2/3정도가 山이기 때문에 山地와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산록주변에 취락이 입지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조사결과 고분군은 대체로 독립구릉, 평지 및 강안, 산록의 남사면, 구릉의 정상 부등에 입지한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경주지역의 초기 목관묘 단계에 속하는 입실리, 조양동, 구정동, 사라리, 중산리유적들이 모두 구릉의 경사지 및 평야와 접한 구릉경사면에 접해서 분포하고 있으며, 대구 팔달동, 경산 임당동유적도 능선 말단부 및 평야와 접한 소구릉의 경사면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경주지역의 대형분토분들이 조영되기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대부분의 고분들이 경주평지에 분포하는 것으로 보아서 주거유적도 고분군과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는 곳에 위치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²⁵⁾. 이처럼 취락과 고분군과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성을 나타내는데, 그것은 삶과 사후세계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함께 계속된다는 인식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남해안 근처에서는 4C대 이후의 유적으로 인식되는 김해기 패총유적들이 일부 조사되었다. 이 유적들은 입지와 연관시켜 볼 때 모두 방어적 개념을 염두에 둔 주거유적들로서, 대부분 지근거리(대체로 2km)에 고분군이 입지한다고 한다. 그리고 김해기 패총의 경우 일부 유적(부원동 패총, 수가리 패총, 성산 패총, 웅천 패총, 양산 패총, 조도 패총 등)이 발굴조사되었으나 이 유적들의 패각층 내에서 확인된 유구들이 수혈주거지, 고상주거지 및 분묘 몇 기 정도로 매우 빈약한 상태로 출토되었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에서는 김해기 패총과 주변지역에 입지한 고분군과의 직접적인 관계성을 논하기에는 시기상조이다. 즉 동래 패총과 복천동고분군, 김해 유하리 패총과 양동고분군 등의 관계에서 과연 이들 패총집단인이 이처럼 대형고분군을 조영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이들 대형고분군을 조영한 집단의 취락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며, 패총인들은 이들 집단 구성원들의 극히 일부분에 속했을 가능성이 크다.

25) 姜仁求, 1991, 「三國時代 古墳의 墓地에 관한 一考察」『韓國古代國家 形成時期的 考古學的研究』,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2~14쪽.

〈표 4〉 연구대상유적의 聚落址·古墳群·城과의 관계성

유적 \ 내용	취락지	고분군	성	취락 및 고분군의 중심연대	비 고
임당유적	◎	◎	◎	3C - 5C	임당토성
시지유적	◎	◎	◎	5C - 6C	성동토성·옥수동산성
칠곡유적	◎	◎	◎	6C	팔거산성

〈표 5〉 연구대상유적의 聚落址와 古墳群과의 離隔距離

유 적	임당유적	시지유적	칠곡유적
이 격 거 리	100m 내외	200m 내외	300m 내외

한편 〈표 5〉에서도 알 수 있듯이 취락지와 대규모 고분군과의 거리는 대체로 100m~300m 정도의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규모 고분군이 분포하는 주변에는 당시인들의 취락이 반드시 입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취락의 입지는 주변지형과 관련하여 서로 다르게 분포함을 알 수 있다. 야트막한 소구릉상에 형성된 임당유적은 구릉의 정상부 및 능선 상부쪽에 고분군이 분포하며, 토성의 내측 및 완만한 평탄면에는 취락이 분포하고 있다. 그리고 구릉의 바깥으로는 경작지인 넓은 들이 분포한다. 한편 시지유적과 칠곡유적은 각각 선상지와 충적평야에 취락이 분포하고 있다. 두 유적은 모두 그 배후가 높은 산지로 이루어진 지형 때문에 야트막한 구릉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취락의 주변에 넓은 들이 분포한다고 해서 모든 취락들이 반드시 선상지나 충적평야에 위치하는 것은 아니며 소구릉들로 이루어진 지형의 경우는 취락의 분포가 평야에 입지하기 보다는 앞은 구릉의 평탄지 및 성(토성)의 내측에 분포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고분군의 조영에 있어서 일반적인 현상은 동일지역(동일 고분군) 내에서 시기적인 차이를 두면서 고분의 계속적인 조영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즉 육안으로 확인되는 특정시기의 고분군들 이외에도 앞선 시기나 늦은 시기의 고분들이 함께 입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당유적은 초기철기시대부터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및 근대에 이르기까지 시기를 달리하면서 무덤의 축조가 이루어졌다. 이와 병행하여 취락도 시기를 달리하면서 동일지역 및 주변지역에 계속적으로 입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서 임당유적 초기철기시대의 고분군에 해당되는 취락유구가 임당 I지구의 북서쪽 모서리 부근에서 조사된 2중 환호유구이다. 또한 원삼국시대에서 삼국시대에 해당하는 고분군과 평행하는 시기의 취락도 환호유구가 확인된 I지구 및 F지구에서 대규모로 조사되었다. 칠곡유적의 경우에도 대형봉토분 시기와 관계된 취락유적이 조사되었으며, 지표채집품 가운데 대형봉토분 시기보다 앞선 시기인 목곽묘 단계의 토기유물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서 이 시기에 해

당하는 취락의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서변동고분군의 경우도 능선의 동쪽구역에서 1세기에 해당하는 토광묘(목관묘?)가 조사되었으며, 능선의 서쪽구역에는 3·4세기 대에 축조된 목곽묘가 분포한다. 그리고 5·6세기가 되면 무덤의 축조는 다시 능선의 반대편인 동쪽구역으로 이동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즉 무덤의 조영순서는 1세기를 전후한 시기에는 능선의 동쪽구역에서 이루어지다가 3·4세기 대에는 반대편인 능선의 서쪽구역에서만 무덤의 축조가 이루어진다. 그후 다시 5·6세기 대에는 능선의 동쪽에 매장공간이 마련된다. 한편 본고분군의 경우 현재까지로는 2세기대에 만들어진 무덤은 확인되지 않지만 3·4세기 대의 무덤이 축조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1세기 대에 만들어진 무덤과 같은 구역인 능선 동쪽에 분포하리라 추정한다. 이러한 추론이 가능한 이유는 능선의 서쪽구역에서 조사된 목곽묘는 모두 3·4세기 대에 만들어진 무덤들만 조사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이러한 매장공간의 변화양상은 주변지역으로 추정(특히 고분군의 남쪽에 해당하는 현재의 민가들이 입지한 곳)되는 취락의 입지와 관련하여 앞으로 연구해야 할 중요한 문제점으로 생각된다. 즉 시기를 달리하면서 매장공간이 변화하는 양상이 과연 단순한 무덤 입지의 변화로만 파악해야 할지,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변화의 양상이 취락의 입지변화와도 관계가 있는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고분군의 입지는 주거지의 방향성과도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는데, 임당유적의 경우 취락이 분포하는 I지구는 북고남저, 동고서저의 지형을 이루고 있어서 주거지의 출입시설은 당연히 경사면의 아래쪽인 남쪽과 서쪽으로 배치되었을 것이다. 실제 조사과정에서도 주거지(약간의 수혈을 파고 방형, 장방형, 원형의 주거지를 설치)의 남쪽 부분의 굴광선이 잘 확인되지 않는 유구들이 조사되었는데(임당 I-11, 18호 등), 이 부분은 주거지의 출입시설로 추정되고 있다. 그리고 고분군은 주거지의 뒤쪽과 측면부에 해당하는 북동쪽에 위치하며, 또한 주거지의 정면인 남쪽편에 입지한다 하더라도 남북으로 연결된 능선의 서쪽사면에 입지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주거지와 마주보고 위치하지는 않는다. 시지유적의 경우에도 취락이 입지하는 지형은 선상지형으로서 아주 완만한 남고북저의 지형을 이룬다. 임당유적의 고분군의 분포와 주거지 입지와 방향성을 예로 볼 때, 주거지들의 측면에는 고분군이 입지하고 있다. 칠곡유적의 경우도 남북방향으로 평탄한 충적평야가 분포하며, 이곳의 주거지들도 남서쪽으로 출입시설이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주거지들의 측면인 동쪽편에 고분군이 입지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최근 조사된 창원 반계동유적에서도 삼국시대 취락지, 고분군, 경작지 등이 조사되었는데, 취락은 능선의 남서쪽 사면에 입지하고 있으며 이들 주거지들의 출입시설도 역시 경사면의 아래쪽 방향인 남쪽으로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고분군은 취락의 뒤편 또는 측면부에 해당하는 북동쪽에 입지하고 있다. 경주지역에서 조사된 황성동유적의 경우도 취락들의 입지는 고분군의 앞쪽인 남쪽편에 입지하고 있으며, 팔달동유적의 경우도 고분군의 앞쪽인 남쪽 사면에서 취락과 관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소토층의 존재가 확인되었다. 결국 주거지의 방향성은 일조권, 지형조건 등 주변에 분포하는 여러 현상들과 밀접한 관련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고분군은 주거지의 정면(출입시설)쪽에 설치하지 않는 점

과 농경지를 배경으로 주변의 산지나 구릉상에 분포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고분군만 확인되고 주변지역에서 취락의 분포가 확인되지 않은 유적의 경우도 주변의 지형-하천, 평야, 산록, 고분군 등 -을 면밀히 관찰하면 고분군과 관계된 취락의 분포지를 어느정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2. 취락과 성과의 관계

史記朝鮮列傳에 의하면 B.C. 2C경에 평양성의 존재가 최초로 나타나며, 남부지방에 있어서의 본격적인 축성은 3C~4C경으로 추정된다. 토성은 대체로 삼한시대부터 삼국시대에 걸쳐서 대부분 축조되었으며, 이들 가운데 현재까지 정식발굴조사를 실시한 토성은 임당토성 밖에 없으며, 조사결과 4C를 전후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달성토성은 공원 입구남쪽 일부분 및 공원내부의 일정공간을 조사한 결과 최하층에서 3C대로 편년되는 흑색마면 4족 토기등이 출토되어 토성의 초축시기는 3C대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유적에 대해서는 지표조사 자료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토성의 초축과 관련해서는 앞으로의 조사성과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토성의 입지는 대부분 강변의 낮은 구릉상과 독립 구릉상에 주로 위치한다.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임당토성, 달성토성, 성동토성, 검단토성, 봉무토성 등이다. 특히 새로운 무기류의 출현은 그 전시기와는 다른 전술의 개발을 야기시켰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외부로부터 집단의 보호를 위해서 城과 같은 방어시설물을 축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강력한 무기를 소유한 집단은 그렇지 못한 집단에 대하여 그들의 영향력을 확대시키고자 노력했을 것이다. 철기를 바탕으로 한 고대사회, 특히 삼국시대의 경우 중심 읍락들은 집단의 방어를 위한 측면에서 취락과 성(토성, 산성)을 긴밀하게 관련지으면서 발전시켜왔다. 즉 대형고분군이 입지한 경우에는 그 주변에 대부분 성(토성, 산성)이 입지하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본고에서 제시한 세 유적의 경우, 칠곡유적은 팔거산성, 임당유적은 임당토성, 시지유적은 옥수동산성과 성동토성(고산토성)이 주변에 각각 입지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표 3과 같이 대구·경산지역의 주요 고분군은 모두 성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城과 관계있는 고분군의 축조 당시에 이들 지역이 주변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지역이었음을 시사한다. 이들 가운데 칠곡유적과 임당유적은 당시의 국읍으로 비정되고 있으며, 시지유적은 읍락에 해당되고 있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특히 경산지역의 국읍에 해당하는 임당유적의 주변에는 경산지역에서 확인된 5개의 토성 가운데 4개가 밀집해서 입지하고 있어서 당시 국읍의 방어시설 및 거성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검단토성은 초축시기를 알 수 없으며, 이웃하는 복현동고분군과의 관계도 현재로서는 불확실하다. 성은 내부에 취락이 입지할 만한 공지는 있으나 주변지역의 지표조사 결과 토성의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현재의 민가지역 주변이 당시의 취락입지로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²⁶⁾. 따라서 1.5km~2km 정도 떨어진 복현동고분군(5·6C대) 이외

의 고분군과 연결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럴 경우 검단토성의 취락과 관계된 고분군은 취락 및 성에서 그리 멀지않은 구릉에 분포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 주변지역은 대부분 개발이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고분군의 존재를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그리고 봉무토성의 경우는 성내부가 협소하기 때문에 취락이 존재하더라도 소규모의 취락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으며, 성 남쪽의 넓은 들과 주변의 불로동고분군의 규모를 고려한다면 대단위의 취락은 성 남쪽지역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달성토성의 경우도 주변에 분포하는 달성고분군과 비교해 볼 때 대규모의 취락지는 성 외부의 구릉지로 판단된다. 토성과 마찬가지로 산성도 출현이 4C경 또는 그 이후로 추정되고 있다. 산성의 입지는 高所한 산악지형을 이용하여 축조되기 때문에 주변 취락인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에는 부적합한 요소들이 많으며, 다만 방어시설로서의 기능이 높다. 대구지역의 북쪽에 설치된 용암산성은 각각 대구에서 영천, 경주로 가는 육로의 요충지이며²⁷⁾, 팔각산성은 칠곡방면을 방어하기 위한 시설로서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달성군의 서쪽으로는 낙동강을 따라서 북쪽 하산리산성(霞山里 山城)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문산리산성, 죽곡리산성, 구라리성지, 수문진성지, 석문산성(임진왜란 당시 축조), 내리토성 등이 차례로 입지하고 있다. 이들 성들은 모두 낙동강의 주요지점에 위치하여 강 서쪽지역을 감시하기에 최적의 입지를 보이며, 또한 성의 주변에 분포하는 고분군과 관련된 취락을 방어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을 것이다(표 3 참조). 이 가운데 하산리산성의 주변에서는 관계되는 고분군이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성의 동쪽 및 남쪽에 넓은 들이 분포하는 것으로 보아 이곳에도 고분군이 분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경산지역의 경우, 남서부에 위치하는 구일리산성은 청도에서 경산으로 넘어오는 통로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하며, 주변에는 대명리고분군이 입지한다. 또한 경산의 동쪽에 위치하는 단북리산성은 북사리·교촌리고분군이 주변에 입지한다. 성내부에서는 진량면, 자인면, 남산면, 경산읍 등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을 정도이다. 용성면에 위치하는 용산성도 자인면, 진량면, 하양읍, 경산읍 등을 조망할 수 있을 정도로 지형상 요새이며, 주변에는 갈지리고분군이 입지한다. 그리고 최근의 연구성과에 의하면 산성은 전투를 위한 목적 및 왕성의 방어력 강화를 목적으로 왕성과 가까운 거리에 산성을 축조했다고 한다. 따라서 경산지역의 경우 국읍에 해당하는 임당유적을 중심으로 경산지역의 외곽에 방어적 성격의 산성을 축조했다. 이들 산성간의 거리는 임당유적과 구일리산성이 6.5km, 임당유적과 단북리산성이 7km, 단북리산성과 용산성이 8km로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임당유적을 먼 외곽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주변지역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곳에 축조하였다.

26) 지표조사시 주변지역의 지형 및 퇴적층을 실제 관찰한 결과 취락이 입지하기에 가장 적합한 지형으로 판단된다.

27) 大邱直轄市·慶北大學校博物館, 1990, 앞의 책.

3. 입지 및 기능론적 연구

취락을 연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론이 존재한다. 이러한 방법론은 주로 지리학에서 발전시킨 방법론으로서, 취락의 발생과 발달을 연구하는 발생론적 연구, 취락이 특별한 장소를 선택하게 된 지리적조건(지형, 기후, 지하수, 자원등)에 대한 취락의 입지관계를 연구하는 입지론적 연구, 취락이 어떠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가를 연구하는 형태론적 연구, 취락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연구하는 기능론적 연구 등이 그것이다²⁸⁾. 본고에서는 이들 4가지 방법론들 가운데 입지론적 연구와 기능론적 연구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입지론적 연구 대상인 취락의 입지와 관계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취락의 성립은 입지의 선택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교통수단이나 토목기술이 발달하지 못한 고대사회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연구성과에 의하면 삼한시대 및 삼국시대에 조성된 취락의 대부분은 독립된 구릉지, 선상지, 산록완사면, 산록과 평지가 만나는 접촉지점, 해안지역 등이다. 이러한 지형은 기본적으로 주변에 넓은 평야를 바탕으로 생업활동을 하기에 유리한 입지이며, 또한 주변집단이나 상대국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전쟁때 방어의 효율적인 측면도 고려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당시의 취락이 대부분 능선의 남사면쪽에 입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일조권의 확보와도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분묘군은 취락과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취락의 뒤쪽인 북쪽이나 측면인 동, 서쪽에 배치되는 현상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본고의 연구대상으로 삼은 시지동 취락유적, 칠곡 취락유적, 임당 취락유적 등이 모두 이러한 입지성을 보이고 있다. 한편 시지동 취락유적과 칠곡 취락유적에서는 많은 수의 우물이 조사되었는데, 우물이 가지는 의미는 단순히 음용수를 얻는다는 의미도 있으나 이를 통하여 당시 취락의 규모나 유적의 성격규명을 위한 중요한 고고학적 자료라는 최근의 연구성과²⁹⁾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능론적인 입장에서 보면 개별 취락들은 모두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주 황성동유적은 철기제작과 관련된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는 집단공방취락지의 성격을 나타내는 유적으로서, 이곳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공급된 철재를 단야하여 만들거나, 못쓰게 된 철기를 보수하는 대장장이의 수준이었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는데 이는 상당한 설득력을 가진 것으로 생각된다. 즉 '국'의 중심읍락인 국읍은 교역의 담당자로서 일차적인 재분배를 담당하였으며, 하위 읍락들은 다시 읍락을 구성하던 취락들에 분배하는 과정을 거쳤을 것이다. 이렇게 분배된 원료들은 개별 취락에서 완성품으로 만들어진 다음 다시 국읍으로 재공급되는 과정을 거쳤을 것이며, 황성동의 경우도 이러한 사이클의 연속선상에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된다. 시지동 취락유적에서는 상당수의 부정형 수혈유구,

28) 洪慶姬, 1985, 『村落地理學』, 法文社, 36~38쪽.

29) 金昌億, 1996, 「三國時代 井에 대한 檢討」『碩學尹容碩教授停年退任紀念論叢』, 509쪽.

우물, 도로, 주혈, 연못, 구 등이 조사되었으며, 주변에는 옥수동 분묘군, 중산동 분묘군 및 중산동 토기요지 등이 분포하고 있다. 최근의 연구성과에 의하면 시지동 취락유적은 도공집단, 장인집단, 농경집단 등이 존재했다는 지적이 대두되었는데³⁰⁾, 자료의 부족으로 확실치는 않다. 다만 주변에 분포하는 토기요지와 취락지의 관계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토기요지를 경영하던 사람들이 시지동 취락지 사람들의 일부일 것이라는 점은 인정된다. 한편 김용성은 임당유적에서 철제망치, 철제집게 등의 단야구가 출토되지 않는다는 점과, 토기요지 및 공급은 국읍에서 자체생산하지 않고 하위 읍락에서 공납 받아 재분배한다는 점을 들면서, 이들은 모두 인근의 시지동 취락지 사람들에 의해서 생산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시지동 취락지 사람들 가운데는 장인집단이 분포했으리라고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당저습지에서는 3~4C대의 층위에서 토제 내박자 및 목제 박자판 등이 출토된 점, 중산동 토기요지에서 아직까지 이 시기에 해당하는 유물이 출토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서 의문의 여지는 많이 남아 있다.

Ⅵ. 맺음말

지금까지 대구·경산지역의 삼국시대 취락의 입지와 관련하여 고분군의 입지 및 성(토성, 산성)의 입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최근에 조사된 삼국시대 취락유적의 조사예를 통하여 취락과 고분군, 취락과 성의 관계성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구지역에서 확인된 고분군은 모두 42곳이다. 이 가운데 “A”급 고분군으로 분류된 곳이 5곳이며, “A”급 고분군간의 거리는 6.5km~16km 정도이다. 이들은 모두 낙동강 및 금호강을 경계로 북쪽에 3곳(구암동, 불로동, 문산리고분군), 남쪽에 2곳이 분포하고 있다.

둘째, 경산지역에는 삼국시대 고분군이 모두 43곳 조사되었으며, 중심고분군은 임당동고분군이다. 그리고 “B”급 고분군은 6곳으로서 이들간의 거리는 1.5km~6.5km 정도이다. 특히 임당동고분군의 주변인 내리고분군과 당음리고분군은 1.5km~2.5km 정도의 근거리에 입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읍으로 추정되는 임당동고분군의 주변으로 대규모의 취락들이 다수 입지하고 있었다는 추론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소규모 고분군간의 거리는 500m~1km의 거리를 유지한다.

셋째, 조사된 취락들의 입지는 선상지, 충적평야, 구릉의 저위 평탄면 등이며, 고분군의 앞쪽이나 측면부에 입지한다. 그리고 개별주거지들의 출입시설은 일조량이 많이 확보되는 쪽을 택

30) 金龍星, 1998, 앞의 책 310쪽.

하고 있으며, 주변지형에 따라서 약간의 변화는 예상된다.

넷째, 삼국시대 유적에서 취락, 고분군, 성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임당동고분군, 옥수동고분군 및 성동고분군, 구암동고분군 등은 대규모의 고분군이 조성된 지역으로서 이들은 모두 당시의 국읍이나 읍락으로 추정되는 지역으로서 주변에는 대규모의 취락유적이 분포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유적의 주변에는 취락 및 고분군과 관계해서 성(토성 및 산성)이 입지하고 있다.

다섯째, 성은 토성과 산성으로 대별된다. 토성은 대체로 4C를 전후해서 축조되기 시작했으며 그 입지는 독립구릉, 넓은 평야주변, 낮은 구릉정상부 및 대규모 고분군의 주변에 입지한다. 산성은 험준한 산악지형이나 외부에서 내부로 통하는 교통로 상에 축조되거나, 대피할 수 있는 취락지의 주변에 축조한 것으로 추정된다.

포항 옥성리고분군 출토 철기에 대한 금속학적이해

장경숙*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4. 포항 옥성리출토 철기의
금속학적 분석 |
| 2. 철제유물에 대한 금속학적
기초지식 | 5. 분석결과에 대한 검토 |
| 3. 금속시료의 채취방법과 분석방법 | 6. 맺음말 |

1. 머리말

鐵은 고대사회부터 인류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으며 역사적으로 볼 때 인간은 철을 사용하면서부터 진정한 문명사회를 이룩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철기문화 발생의 중심지로는 대개 세계적으로 두 지역을 꼽을 수 있다. 그 중 하나가 기원전 12세기의 동부지중해지역이며, 시대적으로 다소 늦으나 춘추말기의 중국을 들 수 있다. 이 두 지역의 차이점은 동부지중해지역의 경우 해면철을 기본재로 한 鋼의 제작만 실시되었으나, 중국은 해면철 단조기술과 주철기술이 초기부터 거의 동시에 활용되었다는 점이다.¹⁾

고고학에서 철제유물을 고찰함에 있어, 대개 형식학적인 연구를 토대로 철기를 분류하고 그 기능을 상정해 보고, 더 나아가 의기성 철기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시의 사회상을 복원하는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이와 다른 방향으로 금속학적인 연구와 연계하여 철기의 형식학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철 자체에 대한 분석 통해 철기를 이해하려는 연구²⁾가 시도되고 있다.

* (사)영남매장문화재연구원

1) 윤동석, 1984, 『한국초기철기의 발전과 금속학적 이해』, 고려대출판부.

철기는 토기와 달리 철이 지닌 특성에 따라 부식(산화)이 발생하여, 철기제작방법을 비롯해 고고학적으로 중요시 되는 속성들이 파괴되거나 관찰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철기내부에 산화되지 않고 남아 있는 소지금속의 분석을 통해서만이 그 유물의 제작방법을 관찰할 수 있다.

포항 옥성리고분군³⁾은 1995년 영남매장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하여 3세기에서 4세기에 이르는 철제유물 수백점이 출토되었다. 철제유물을 보존처리하는 과정에서 분석시편이 채취되었으며, 이에 대한 분석과 해석은 신경환선생님⁴⁾께서 담당해 주셨다.

포항 옥성리고분군 출토 철기의 분석은 분석자와 보수자의 공동작업을 통하여 유물원형의 보존과 분석이 동시에 이루어졌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이 글에서는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철제유물에 대한 금속학적인 이해와 함께 분석을 통해 밝혀진 판상철부의 성격과 초강법(炒鋼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철제유물에 대한 금속학적 기초지식

현재 철(鐵)이란 용어는 일반적으로 금속원소로서의 철과 철제품에 대한 포괄적인 총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철은 순수한 철(Fe)만을 단조한 것이 아니고 탄소와 철의 합금으로 제작된 것으로, 그 함량에 따라 성질과 재질을 변화한다.

철은 탄소함량⁵⁾에 따라 일반적으로 탄소함량 0~0.02% 순철(순철), 0.02~2.1% 강(강), 2.1~6.7% 주철(주철)로 분류한다.⁶⁾ 탄소함량은 철의 성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2) 윤동석, 1983, 「가야유적에서 출토된 철기유물의 실험금속학적 연구」『대한금속학회지』 21-2, 21-3, 21-4; 1983, 「철기의 성분과 조직검사」『한국사론』 13, 국사편찬위원회; 1986, 「고대 제철시 생긴 철재에 대하여」『논문집』 25, 학술원; 1984, 「한국초기 철기유물의 금속학적연구」, 고려대학교출판부; 1989, 「삼국시대 철기유물의 금속학적연구」, 고려대학교출판부 외 다수; 윤동석·이남규, 1985, 「백제의 제철기술과 기술발전-철기유물의 금속학적 고찰을 통하여-」,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고려대학교생산기술연구소; 이남규, 1982, 「남한초기철기문화의 일고찰 -특히 철기의 금속학적 분석을 중심으로」『고고학보』 13, 한국고고학회 외 다수; 윤동석·신경환, 1981, 「한강유역의 초기철기유물에 관한 금속학적 연구」, 대한금속학회 19-8 외 다수; 신경환, 1982, 「폐총유적에서 발굴된 초기 철기유물에 대한 금속학적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금속공학과 석사학위청구논문; 1997, 「가야지역의 철기와 철생산공법」『가야고고학논총』 2, 가야문화연구소 외 다수.

3) 영남매장문화재연구원, 1998, 『포항 옥성리 고분군 I』, 영남매장문화재연구원 학술조사보고제 14책.

4) (주)동환산업상임고문, 국립창원대학교 겸임교수

신경환·장경숙, 1998, 「포항옥성리고분 출토 철기유물의 금속학적 분석」『포항옥성리고분군 II』, 영남매장문화재연구원 학술조사보고 제14책.

5) 현대에는 탄소함량 2%를 경계로 鋼과 鐵로 나누고 있다.

탄소함량이 많은 주조철부의 경우 경도는 높지만 인성이 약해 날이 잘 부러지는 단점을 지니게 된다. 또한 탄소함량에 따라 순철의 용융온도가 강하되어 2~4%가 함유되면 1,200~1,300℃ 온도에서 용융상태의 철인 용철(熔鐵)이 생긴다. 현대에는 강의 성질에 따라 중탄소강과 고탄소강을 선별하여 고탄소강은 공구용강으로 중탄소강은 구조용강으로 선별하여 제작하고 있다. 고대철제유물의 소재가 되는 철은 일반적으로 연철과 선철 그리고 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연철은 비교적 낮은 온도인 900℃ 전후에서 목탄을 사용하여 환원시킨 소재로 조직이 치밀하고 연하며 구멍을 가져 해면철이라고도 한다. 함탄량이 낮고 성질이 유연하여 일정한 온도에서 단조하여 성형한다. 일반적으로 탄소함량이 0.1%내외로 숙철, 괴련철, 해면철이라고도 한다. 주철은 목탄투입으로 용융점을 강하시켜 얻은 용탕⁷⁾을 미리 마련된 주형에 주입하여 냉각시켜 제작하는 것으로 주철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선철을 급냉하면 은빛의 백주철이 된다. 백주철은 깨어지기 쉽기 때문에 급냉방법을 달리하거나 열처리하여 반주철이나 회주철로 개선시켜 제작하였다. 고대중국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유럽의 경우 산업혁명 이후 제작되었다.

강은 일정한 함량의 탄소를 포함한 철로 현대에 사용되는 거의 모든 철제품은 강으로 제작된 것이다. 강은 제작방법에 따라 괴련철을 두드려 탈탄하여 만든 괴련강과 선철을 탈탄하여 탄소의 함량을 조절하여 만든 초강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초기철기시대부터 강이 사용되고 있으며, 대개는 환원철을 침탄시켜 제작한 괴련강이나 분석된 몇몇 자료를 통해 초강이 발표되고 있다. 초강은 강의 대량생산을 의미하며 중국에서는 서한~동한기에 성행한 방법으로 제철기술의 획기를 이룬 방법이다. 초강을 만드는 탈탄법으로는 용탕에 철광석 분말을 넣는 방법과 湖混灰(호혼회)를 함유한 버드나무가지로 교반하는 방식⁸⁾ 그리고 석회석 분말을 넣는 방식 등이 있다.⁹⁾

3. 금속시료의 채취방법과 분석방법

포항 옥성리출토 철기 중 12점이 분석대상이 되었으며, 채취부위와 시편중량 등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시료채취대상이 된 철기는 출토후 가속화된 부식으로 인하여 표면에 균열이 일어나고 표피

6) 윤동석, 1987, 「철제유물과 제조법에 따른 기초지식」 『보존과학연구』 7집, 국립문화재연구소.

7) 순철의 용융점은 1,539℃이지만 탄소함량 2~4% 포함선에서 용융점이 1,200~1,300℃로 강하한다.

8) 송용성저·최주역, 1997, 『천공개물』, 전통문화사.

9) 윤동석·신종원, 1985, 「한국초기철기시대의 초강제조 기술에 관한 금속학적 연구」 『학술원논문집』 제24권.

시편번호	출토유구	유물명	편년	채취부위	시편중량(g)
PO-1	1호목곽묘 봉토내	단조철부	3세기	인부	0.64
PO-2	13호목곽묘	단조철부	4세기	인부	2.05
PO-3-①	20호목곽묘 주변	따비	3세기	인부우측측편	4.89
PO-3-②				신부중간	3.41
PO-4	36호목곽묘 주변	따비	3세기	우측인부	0.34
PO-5	59호목곽묘	단조철부	4세기	인부와 공부중간	0.82
PO-6	75호목곽묘 주변	관상철부	4세기	신부	3.65
PO-7-①	108호목곽묘	관상철부	3세기	인부	5.71
PO-7-②				공부	0.17
PO-8	18호목곽묘 봉토	철모	3세기	신부중간	1.44
PO-9	26호목곽묘	철모	4세기	우측인부	1.98
PO-10	38호목곽묘	철부	4세기	인부와 공부 중간	0.43
PO-11	4호상부유구	관상철부	4세기	신부우측	1.10
PO-12	22호목곽묘	관상철부	3세기	인부중간	0.22

가 박락되어가는 상황이었다. 아래의 모식도와 같이 철제유물의 표면이 박락된 사이로 금속심(소지금속)이 드러나게 되면 박락된 사이에서 시료를 채취하였다¹⁰⁾. 시료채취후 보존처리과정을 거쳐 유물의 부식인자를 제거하고 박락되었던 표면과 편들을 집합복원하여 출토당시의 원형을 최대한 손상시키지 않았다.

철기유물 시료의 분석방법으로는 C/S(Carbon Sulfur Determination) 과 프라즈마(ICP) 분석법¹¹⁾에 사용하여 각 시료의 화학성분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금속현미경을 통하여 철기의 현미경조직을 관찰하고 이 현미경 관찰에서 주요한 부분(주로 비금속개재물)의 분석에는 전자현미경(SEM)¹²⁾을 통한 EDS(Energy Dispersive X-ray Spetrometer)분석¹³⁾이 추가로 실시되었다.

10) 김수기, 1993, 「울산중산리출토 철부의 금속학적 연구」, 한양대학교산업대학원 금속공학과석사학위논문.

11) ICP-ES(Inductively Coupled Plasma Emission Spectroscopy 고주파유도결합프라즈마 발광분광분석법) - 고주파기계로 무전극 방전에서 분석, 고온프라즈마염중의 용액을 분무하여 발광분광분석법에 의해 다원소동시분석, 소량분석법, 미량원소분석법.

12) SEM(Scanning Electron Microscope 주사형전자현미경) - 전자선을 시료면상에 주사시켜 발생하는 2차 전자 및 반사전자를 이용하여 확대관찰하는 방법으로 미소량분석이다.

13) EDS(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scopy 에너지분사형 X선분석법) - 특성 X선을 반도체 검출기에 에너지분광하여 원소를 분석하는 방법.

4. 포항 옥성리출토 철기의 금속학적 분석

포항 옥성리출토 철기 중 12점이 분석대상이 되었으며, 모두 단조제품이다. 분석결과는 <표 1>과 <표 2>에 일괄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철부는 4점이 분석대상이 되었으며 유물에 따라 인부와 신부, 인부와 신부사이에서 시편이 채취되었다. 탄소함량은 0.15~0.47%로 대개가 중탄소강에 해당된다. 인부는 성형후 서냉한 조직과 담금질한 조직이 남아 있어 날부분이 강화 처리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화학성분 분석결과, 4점 모두 선철을 탈탄하여 제작한 초강법으로 제작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판상철부는 0.325~0.69%로 중탄소강과 고탄소강에 해당되며, 반복단련을 통하여 조직이 미세화된 단조제품이다. 4호 출토 판상철부는 표면침탄법을 이용한 고탄소강으로 추정되며, 108호 출토 봉상철부 또한 표면침탄법이 사용하여 강화처리된 중탄소강제품이다. 착형철기로도 명명되는 판상철부 1점은 열간단조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중탄소강에 해당되며 무수한 반복단련을 거친 재료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화학성분 분석결과 4호 출토 판상철부를 제외한 3점 모두 선철을 탈탄하여 제작한 초강법으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철모는 인부에서 시편이 채취되었으며, 주로 중탄소강에 해당된다. 금속조직이 매우 미세하여 무수한 반복단련을 통해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재료는 초강으로 분석된다.

<표 1> 포항 옥성리출토 화학성분 분석결과

시료번호	채취부위	C	Si	Mn	P	S	Ni	Cr	Mo	Cu	Al	Ti
Po-1	인부	0.467	0.076	tr	0.036	0.004	tr	0.025	0.0062	0.008	tr	0.0119
Po-2	인부	0.479	0.037	tr	0.021	0.001	tr	0.023	0.0063	0.0055	tr	0.0022
Po-3-①	인부①	0.43	0.106	tr	0.042	0.002	tr	0.021	0.0066	0.005	0.0026	0.0022
Po-3-②	신부②	0.771	0.092	tr	0.038	0.004	tr	0.017	0.0067	0.0057	0.0036	0.0034
Po-4	인부	0.048	0.001									
Po-5	인부/공부 사이	0.153	0.071	tr	0.034	0.001	tr	0.03	0.0039	0.0113	tr	0.0104
Po-6	신부중앙	0.327	0.051	tr	0.025	0.003	tr	0.02	0.0061	0.0049	tr	0.0024
Po-7-①	인부①	0.325	0.039	tr	0.021	0.001	tr	0.019	0.0083	0.0059	tr	0.0023
Po-7-②	공부②	0.631	-	-	-	0.001	-	-	-	-	-	-
Po-8	신부중간	0.435	0.136	tr	0.026	0.005	tr	0.019	0.004	0.0057	tr	0.0041
Po-9	인부좌측	0.30	0.043	tr	0.026	0.014	tr	0.019	0.0092	0.0087	tr	0.0019
Po-10	인부/공부 사이	0.041	0.007									
Po-11	신부우측	0.558	0.154	tr	0.0064	0.002	tr	0.034	tr	0.078	tr	0.0061
Po-12	인부중간	0.693	0.001									

〈표 2〉 포항 옥성고분 출토 철기 금속조직 분석결과

시료번호	유물명	분석위치	화학성분 분석결과	현미경/SEM 조사결과
Po-1	철부	인부	티타늄을 함유한 중탄소강	Pearlite기지에 Ferrite잔존
Po-2	철부	인부	티타늄을 함유한 중탄소강 초강법에 의한 선철 탈탄소재	Pearlite기지에 Ferrite잔존 담금질에 의한 열처리조직 SEM-EDS분석에 의하여 비금속개재 물내에 티타늄잔존
Po-3-①②	따비	인부①	티타늄을 함유한 저탄소강 용융선철의 탈탄소재	Pearlite기지의 열간단조조직 SEM-EDS분석에 의하여 비금속개재 물내에 티타늄잔존
		신부②	티타늄을 함유한 중탄소강	
Po-4	따비	인부	저탄소강으로서 용융선철을 탈탄하여 만들어진 숙철	Pearlite기지에 입계Ferrite 미세한 반복단련에 의한 미세조직
Po-5	철부	인부/ 공부사이	티타늄을 함유한 저탄소강 용융선철의 탈탄재료	Ferrite기지에 입계Pearlite잔존 숙철의 반복단련
Po-6	판상 철부	신부중앙	티타늄을 함유한 중탄소강	Ferrite와Pearlite의 혼성조직으로 반복단련에 의한 미세화조직 SEM-EDS분석에 의하여 비금속개재 물내에 티타늄잔존
Po-7-①②	판상 철부	인부①	티타늄을 함유한 중탄소강	Pearlite기지에 입계에 Ferrite성장 SEM-EDS분석에 의하여 비금속개재물 내에 티타늄잔존
		공부②	침탄강화된 고탄소강	표면으로부터 침탄에 의한 Pearlite조직
Po-8	철모	신부중간	티타늄을 함유한 중탄소강	Pearlite기지에 표면탈탄조직 SEM-EDS분석에 의하여 비금속개재 물내에 티타늄잔존
Po-9	철모	인부우측	티타늄을 함유한 중탄소강 선철을 용융탈탄 재료	Ferrite기지에 Pearlite 잔존 SEM-EDS분석에 의하여 비금속개재물 내에 티타늄잔존
Po-10	철부	인부/ 공부사이	저탄소강 용융선철의 탈탄재료	Ferrite기지의 숙철
Po-11	판상 철부	신부우측	티타늄을 함유한 고탄소강 환원철의 반복단련 및 침탄강화재료	저탄소강의 Ferrite기지에 표면침탄조직 SEM-EDS분석에 의하여 비금속개재물 내에 티타늄잔존
Po-12	판상 철부	인부중간	고탄소강의 선철 용융탈탄재료	Ferrite와 Pearlite 혼성조직 무수한 반복단련에 의한 미세조직

따비는 2점이 분석되었으며, 저탄소강에서 중탄소강에 해당된다. 36호 주변채집 유물의 경우 저탄소강의 속철조직으로 판단되어 선철을 탈탄한 속철을 반복단타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분석결과 포항옥성리출토 철기는 열간단조하여 성형한 제품으로 조직이 치밀하고 인부의 경우 표면침탄법에 의해 강화처리된 점이 주목된다. 소재는 티타늄을 함유한 철광석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며 괴련강이 아니라 철광석을 고온 용해로에서 용융선철로 만든 다음 용강상태에서 철광석을 투입하여 용강이 탈탄되는 이른바 “초강탈탄(炒鋼脫炭)”에 의하여 제작된 중탄소강이나 저탄소강인 속철로 만들어졌다고 판단된다. 또한 반복 단련에 의하여 내부조직이 치밀하게 되면서 철기가 제작되고 특별히 열처리는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성형단조후 서냉 공법은 갖고 있었으며 단순히 물이나 기름에 급냉시켜 재질을 강화하는 담금질 공법도 활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5. 분석결과에 대한 검토

1) 판상철부

판상철부는 판상의 철제품으로 판상철부(板狀鐵斧)·단책형철부(短冊形鐵斧)·판상철정(板狀鐵錠)·판상철부형철기(板狀鐵斧形鐵器) 등으로 불리우며, 시기적으로는 기원전 1세기의 창원 다호리유적에서부터 4세기대인 경주 조양동유적까지 출토양상을 보이고 있다. 판상철부의 용도에 대해서는 목병이 부착된 형태로 출토된 창원 다호리1호분의 예처럼 인부에 수평되게 자루를 장착한 도끼와 인부와 직교되게 자루를 장착한 자귀, 팽이, 따비 등의 공구로 보는 설과 철소재설 그리고 철화폐설이 있다.

東湖¹⁴⁾는 판상철제품(판상철부)을 철정의 원형으로 상징하고 4세기대부터 철정으로 형태가 변화하였으며, 왜의 경우도 4세기말부터 6세기초에 철정이 출현한다고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발전의 양상을 3세기후반의 김해 양동리 162호→4세기전엽 복천동 80호분→4세기중엽 복천동54호분→4세기후반 복천동 1호분으로 도식화하고 있다. 또 이러한 판상철제품이 철정으로 변화해 가는 이유에 대해 도끼나 췌기로 사용되던 판상철부가 더 견고한 유건철부로 변화하고 판상철제품이 장착된 따비나 팽이는 가래나 주조팽이로 대체되어 간 결과 판상철부는 공구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철소재인 철정의 형태로 변화해 간다고 설명한다. 또한 판상철제품이라는 철소재는 농공구를 제작하기 위한 최적의 것이었다가 나중에는 갑주 등 무기·무구의 제작에 유효한 철정으로 변화하였으며 이러한 소재로서의 철정이 교환가치와 화폐가

14) 東湖, 1995, 「변진과 가야의 철」 『가야제국의 철』, 인제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편.

치를 가지게 된 것으로 보았다.

宋桂鉉¹⁵⁾은 판상의 철제품을 목병이 부착이 부착된 채로 출토된 창원 다호리 1호분 출토 판상철부와 같이 실용공구로서의 판상철부와 3~4세기대에 분묘에서 출토되는 판상철부와 같이 철소재로서의 판상철부형 철기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판상철부형철기의 특징으로 평면형태상 판상철부와 유사하나 인부가 직선적이며 양측선이 수평하거나 좁아지다가 인부 가까이에서 급격히 벌어지고 인부에 날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 것이 많으며, 인부의 단면 또한 직선적으로 점차 얇아져 철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형태로 보았다. 또한 매납상태에서도 판상철부는 부장매수가 일정하지 않지만, 판상철부형 철기는 10의 배수로 매납되어 5세기대 철정과 동일한 매납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판상철부형철기는 형태적으로는 판상철부와 유사하나 기능적으로는 판상철부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며, 매납양상도 5세기대 철정과 동일하므로 철정(鐵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파악하였다. 또, 판상철부형 철기에 대한 분석자료로, 일본 복강현(福岡縣) 화용(花嶺) 2호분 출토 판상철부형 철기의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이 판상철부형 철기는 1000℃이상에서 가온성형(加溫成形)된 후 자연냉각된 것으로 판명되었고, 화학조성이나 단면경도의 분석에서 선례가 없는 고순도의 강이며, 성형 후 아무런 열처리가 행해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어 중간 철소재인 철정으로 판명되었다.

安順天¹⁶⁾은 판상철부의 형태에 따라 철소재로 생각되는 A형과 판상의 신부에 공부를 가진 B형으로 나누고, 다시 A형을 폭이 좁고 두꺼운 A1형과 폭이 넓고 얇은 A2형으로, B형을 세장한 착형의 신부를 가진 B1형과 부채꼴의 넓은 신부를 가진 B2형으로 세분하여 고찰하였다. 또한 시기적으로 A1형은 옥성리108호를 마지막으로 소멸하나, A2형은 목곽묘단계에서 출현하여 옥성리 4호 상부유구단계까지 판상철부의 형태를 띠다가 복천동38호분 단계에서는 양끝이 넓고 두께가 얇은 철정의 형태로 변화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B1형은 장방형목곽묘에서 의기로 부장되다가 장방형목곽묘에 이르러 B2형으로 변화하면서 刺가 달린 가진 유자이기로 변화 대체되어 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같은 판상철부는 포항 옥성리고분에서는 4호상부에서 판상철부 2매 그리고 108호에서 奉狀의 철부가 11매 출토되었고, 이중 부식이 심화되어 박락된 유물을 대상으로 시편이 채취되어 분석이 실시되었다.

4호 출토 판상철부는 형식적으로 판상철부의 전형적인 형태를 가진 것으로 길이 31.7cm, 두께 1.2cm로 공부에서부터 양측선이 서서히 벌어지다가 인부에 가까워지면서 급격히 벌어지는 직선상 인부를 가진 형식이다. 시편은 인부 상단의 신부에서 1.10g 채취되었다. 분석의 결과 이 판상철부는 열간단조에 의해 만들어진 철제품이며 C/S 분석결과 고탄소강으로 분석

15) 宋桂鉉, 1995, 「洛東江下流域의 古代 鐵生産」『가야제국의 철』, 인제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16) 安順天, 1998, 「Ⅳ. 고찰 -2. 유물」『포항옥성리고분군Ⅱ』, 영남매장문화재연구원 제14책.

되었으나, 이는 표면의 침탄부를 분석한 결과이다. 신부의 금속현미경 조사결과, 내부는 저탄소강의 Ferrite기지이고 표면은 침탄된 Pearlite 조직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비금속 개재물이 다량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환원철(괴련철)을 제조한 후 반복단련과 침탄강화하여 제작되어진 철기로 분석되었다.

108호분 출토 봉상의 판상부는 울산 하대 44호 출토품과 유사한 형태¹⁷⁾로 길이 29.5cm, 두께 1.5cm로 인부와 공부에서 각각 5.31g과 0.17g의 시편이 채취되었다. 열간 단조에 의해 제작되었으며 인부는 C/S 분석결과 중탄소강에 해당되며, 공부는 고탄소강의 성분을 나타내고 있다. 현미경조직분석결과, 인부는 내부에 Pearlite¹⁸⁾기지에 Ferrite¹⁹⁾가 결정 입계에서 성장해 가는 양상을 보이지만, 표면부에서는 인부와 공부가 똑같이 외부로부터 침탄이 일어나서 Ferrite가 거의 사라지고 Pearlite가 성장하는 조직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인부와 공부가 각각 분석부위가 달랐기 때문이며 표면침탄부가 분석된 공부는 고탄소강의 성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ICP분석결과 규소는 0.039%이고 유황은 인부와 공부에 다같이 0.001%로서 극히 미량을 함유하고 망간은 거의 함유하고 있는 반면 SEM과 EDS 측정결과에 의하면 Ca(Cao), Al(Al₂O₃), Si(SiO₂)가 나타나고 특히 Ti(TiO₂)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화학성분 분석결과를 이 철부가 사철을 원료로 사용하여 선철을 만들고 이 선철을 용융탈탄하여 중탄소강 소재로 만든 후에 이를 다시 침탄 분위기에서 단련을 실시한 결과로 추정된다.

분석결과, 포항 옥성리고분군 출토 판상철부는 일본 북강현(福岡縣) 화용(花嶺)출토 판상철부형 철기와 달리 화학성분상 순철이 아닌 중탄소강이나 고탄소강에 해당되며, 외부로부터 침탄강화된 조직을 보여주고 있어 철기를 만들기 위한 중간소재가 아닌 공구로서 제작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2) 초강법(炒鋼法)

강은 제작방법에 따라 괴련강(塊鍊鋼)과 초강(炒鋼)이 있다. 괴련강은 괴련철을 침탄시켜 강을 제작하는 방법으로 번거로운 단타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생산성과 효율이 상당히 낮은 방법이다. 초강은 용융선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선철을 볶아서 필요한 함탄량을 조절하여 강을 제작하는 방법이다. 초강법은 강의 대량생산이 가능한 방식으로 중국에서는 서한~동한기에 성행하여 제철기술의 획기를 이루었다. 용융선철을 탈탄하는 방법은 앞에서 언급한 대

17) 부산대학교박물관, 1997, 『울산하대유적 -고분 I』, 부산대학교박물관 연구총서 제20집.

18) Pearlite : Ferrite보다 강하고 담금질에 의해 강화된다.

19) Ferrite : 연하고 전연성이 크며 연강강도는 비교적 적다. 상온에서 강자성체이며 전기전도가 높고 담금질에 의해 강화되지 않는다.

로, 철광석분말을 넣는 방법과 버드나무가지로 교반하는 방법 그리고 석회석분말을 혼입하는 방법이 있다.

지금까지 분석된 자료를 살펴보면, 철기유물 중 많은 양이 강에 해당된다. 구의동 출토 철부와 철촉의 분석결과, 현재의 공구강과 구조강에 해당하는 탄소함량과 경도를 가진 것으로 확인되어, 이 시기에 이미 철기의 성격에 따라 탄소함량을 조절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지금까지 분석된 자료를 보면 강의 소재는 대부분이 괴련강이며 소수의 초강 분석결과가 알려져 있다.

창원 삼동동출토 철부²⁰⁾는 분석결과 저탄소강에 해당되며 Ferrite기지에 Pearlite가 조금 잔존하지만 비금속개재물이나 슬래그가 전혀 없는 것으로 미루어 탈탄을 통해 얻어진 초강을 소재로 제작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 구의동출토 철부는 고탄소강에 해당되며 인부 중심은 순철에 가까운 조직을 보이고 있다. 표면조직은 Pearlite기지에 입계를 따라 austenite(일부martensite²¹⁾)와 Ferrite가 생성된 조직을 보이고 있다. 철촉은 중탄소강에 해당되며, Pearlite기지에 따라 가지상의 초정 austenite와 Pearlite가 생성되어 있어 단타 후 공냉한 결과로 추정된다. CMA와 EPMA분석을 통한 비금속개재물 분석 결과 탈탄제인 Ca가 확인되어 초강으로 판명되었다.²²⁾

포항 옥성리고분군 출토 철기 중 분석대상이 된 12점 중 1점을 제외한 11점이 초강을 재료로 제작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화학성분 분석결과, ICP분석에서 규소와 유황이 미량 나타나고 비금속개재물에 대한 EDS분석에서도 Ca(CaO), Al(Al₂O₃), Mn(MnO), Si(SiO₂)의 잔존이 확인되어 선철을 소재로 한 초강정련을 거쳐 제작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6. 맺음말

이상으로 포항 옥성리고분군 출토 철기에 대한 분석결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포항옥성리고분군 출토 철기에 대한 분석은 지금까지 분석된 자료와는 달리 분석자와 보수가 공동작업을 통하여 소지금속의 위치를 파악하고 시료를 채취하여, 비교적 순수한 시료를 채취할 수 있었으며, 시편채취 후 빠른 시간내에 보존처리가 이루어져 유물 원형의 보존과 동시에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번 분석은 단일유적 출토품 중 가장 많은 수의 유물이 분석되었으며, 따비, 판상철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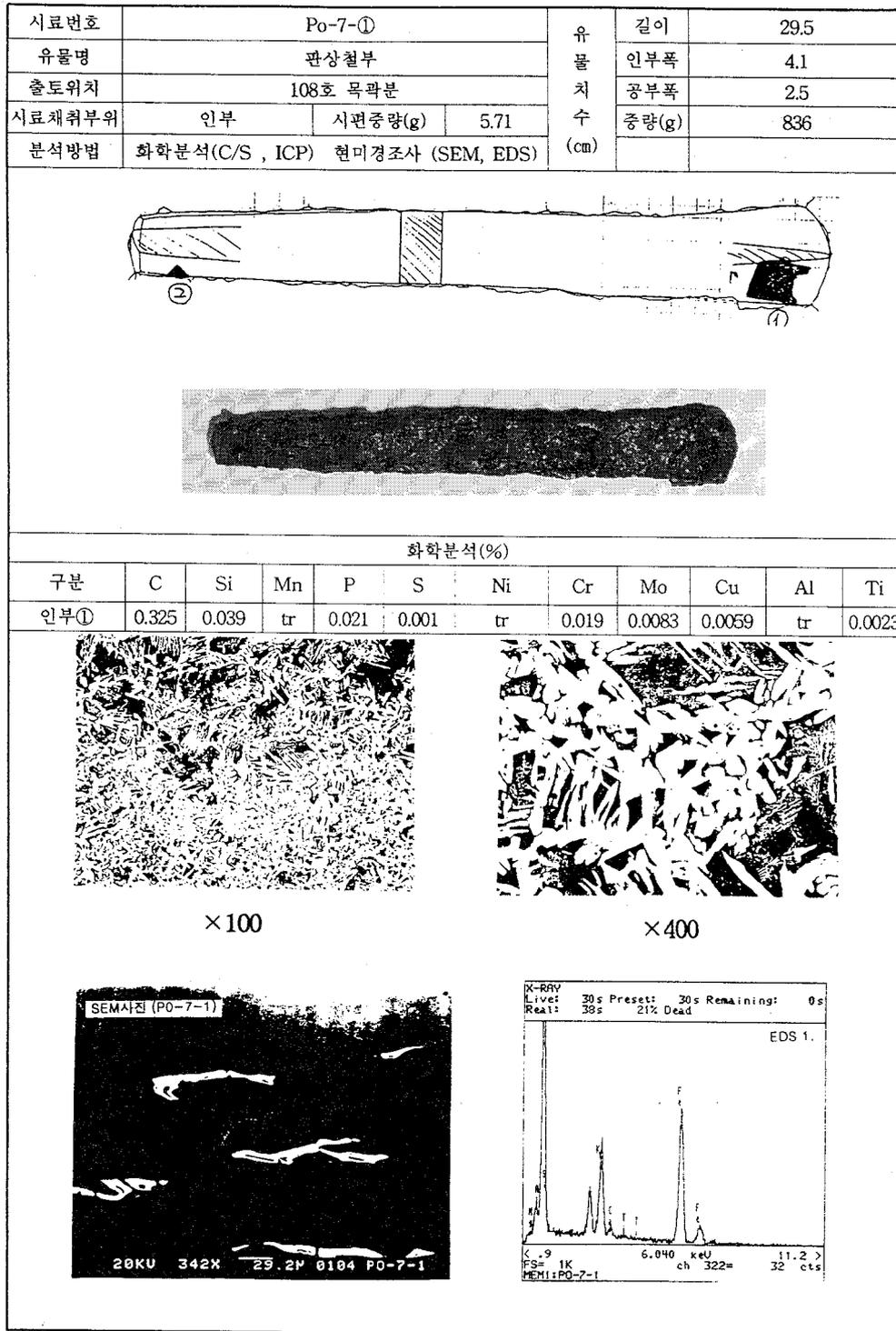
20) 신경환, 1995, 「삼한의 철기기술」 『고대한국의 철기문화』, 철강보 95년 5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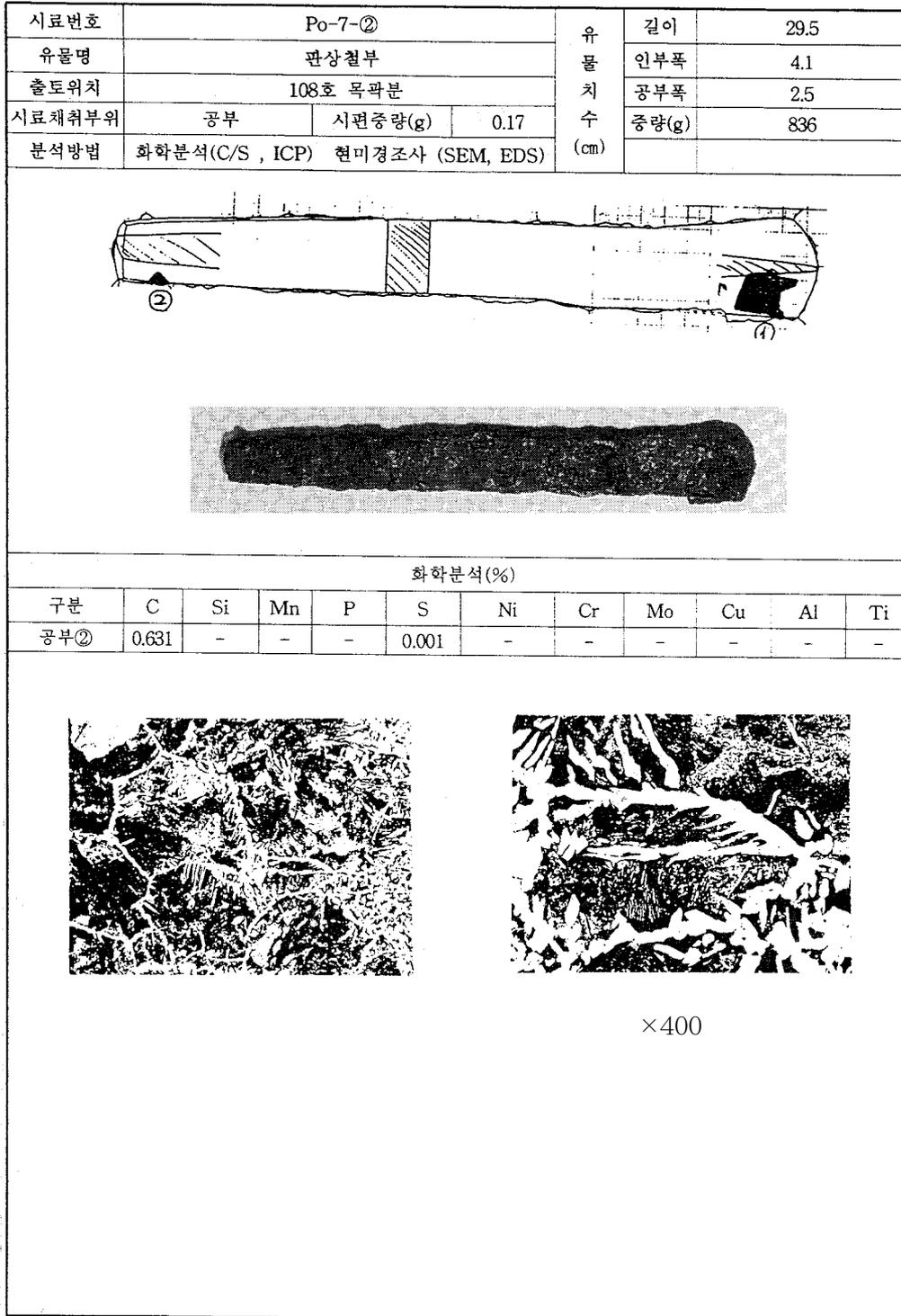
21) Martensite : 탄소가 고용된 철로 담금질강 조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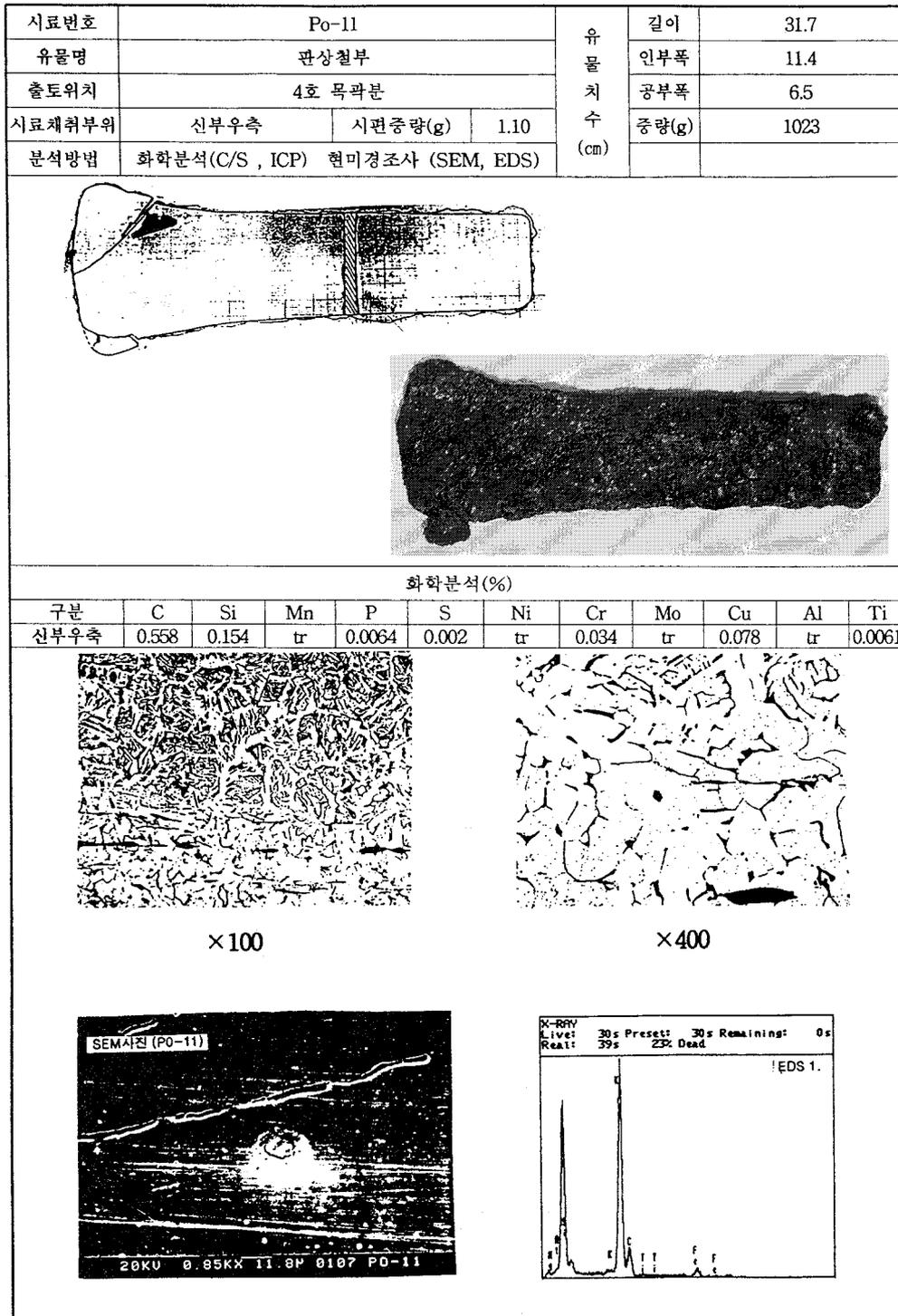
22) 윤동석·이남규, 1985, 「한국고대철기의 CMA와 EPMA에 의한 연구 -구의동철부·철촉을 중심으로-」 『한국고고학보』 17·18, 한국고고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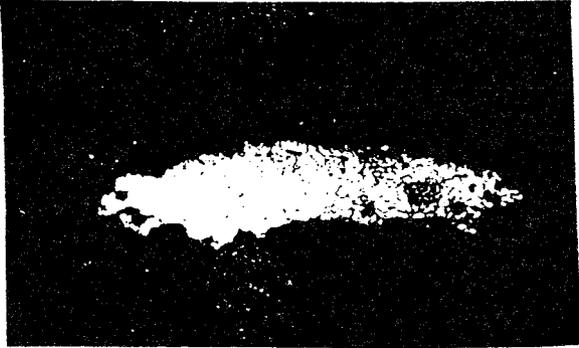
고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다양한 유물이 분석되어, 이 유물들에 대한 금속학적 이해를 도모하게 되었다. 첫째, 판상과 봉상 2가지 형태를 가진 판상철부의 분석결과, 순철에 가까운 복천동 철정과는 달리 중탄소강에서 고탄소강의 탄소함량을 보이고 있으며 열간단조후 침탄강화된 흔적이 남아있어 창원 다호리1호 출토된 판상철부와 마찬가지로 공구의 성격을 지닌 철기로 제작되었음이 추정할 수 있다.

둘째, 분석된 대부분의 유물이 초강법으로 제작된 것으로 밝혀져 제철사적으로 커다란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초강법은 괴련철을 반복단타하여 강을 제작하는 방법에 비해, 대량의 용융 선철을 제작하여 일시에 많은 양의 강을 제작할 수 있는 생산성과 효율성이 높은 방법이다. 울산 중산리유적 출토 철부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2세기~5세기에 이르는 모든 유물이 괴련철을 침탄시켜 강을 제작한 것으로 분석되어, 포항 옥성리유적 출토 철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시료번호	Gb1-2	
유물명	철정	
출토위치	복천동 (Db11호)	
		
<p>복천동출토 철정 (G-1-2)</p>		
		<p>×100</p>
		<p>×400</p>

大邱市 漆谷 3地區 建物址遺蹟 發掘調查 概報

車順喆* · 許正和** · 朴達錫***

〈 목 차 〉

I. 머리말	IV. 出土遺物
II. 입지환경	V. 考察
1. 역사적 배경	1. 建物址의 性格에 대해서
2. 유적의 입지	2. 爐의 性格 및 生産物에 대해서
III. 調査內容	3. 同范瓦 分布에 대해서
1. 建物址	4. 도가니에 대해서
2. 竪穴 및 爐址	VI. 맺음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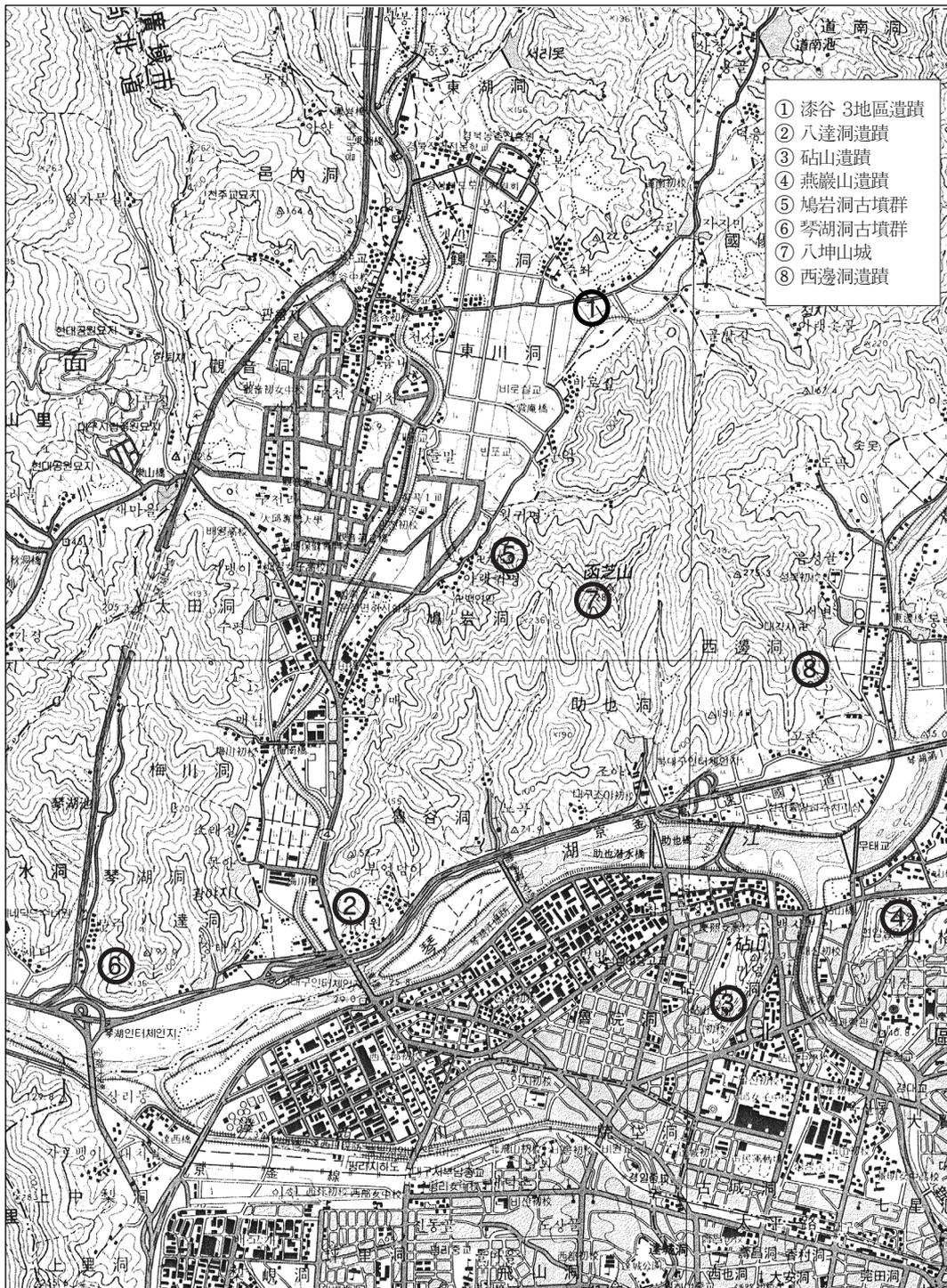
I. 머리말

대구광역시 칠곡지역에 대한 발굴조사는 대구~춘천간 고속도로건설¹⁾과 칠곡2택지지구²⁾에 대한 문화유적 발굴조사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칠곡지역은 八蒿川주변에 형성된 충적대지로 주변지역과 인근의 錦湖江주변에는 청동기시대에서 조선시대까지의 각종 유적이

* . ** . *** (사)영남매장문화재연구원

1) 尹容鎭 外, 1990, 『大邱~春川間 高速道路 建設豫定地域內文化遺蹟地表調査報告書』, 慶北大學校博物館; 尹容鎭 外, 1991, 『大邱~春川間 高速道路 建設豫定地域內文化遺蹟發掘調査報告書』, 慶北大學校博物館 · 大邱教育大學博物館 · 昌原大學校博物館.

2) 尹容鎭 · 崔兌先, 1993, 『漆谷宅地(2)地區 文化遺蹟基礎調査報告書』, 慶北大學校博物館 叢書; 慶北大學校博物館, 1993, 『칠곡택지(2)지구 문화유적 1차발굴조사 결과보고』; 慶北大學校博物館, 1994, 『大邱 漆谷宅地開發地區內 文化遺蹟 二次發掘調査 結果報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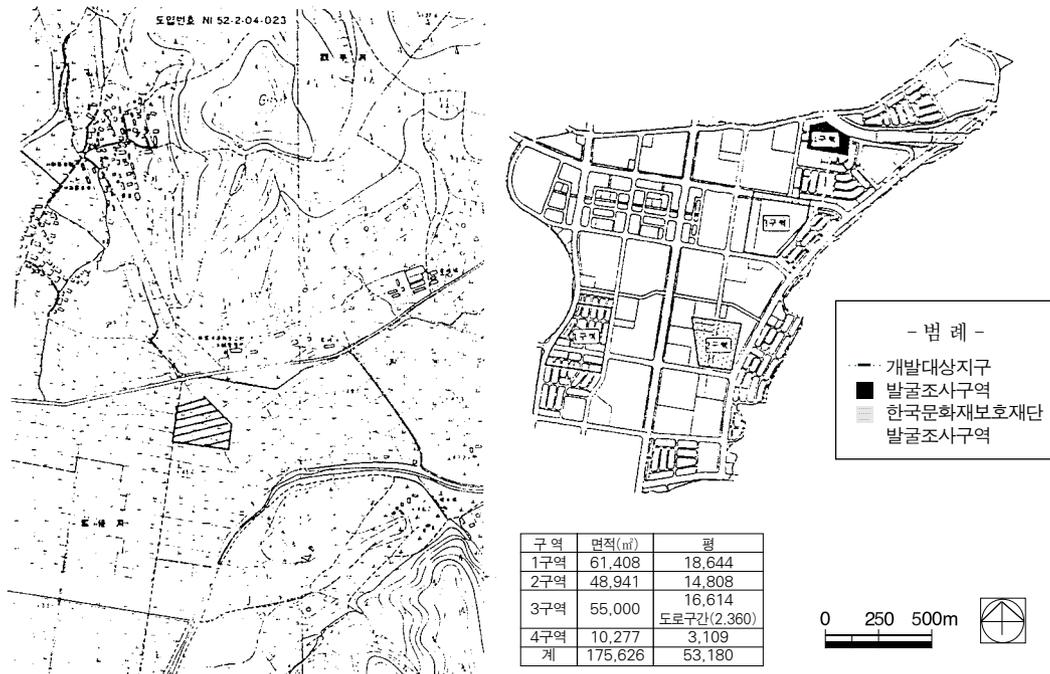


〈도 1〉 유적위치도 및 주변유적 분포도(S=1/50,000)

분포하고 있으며(도 1), 최근 도시화에 따른 급격한 개발로 많은 유적들에 대한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한국토지공사는 1995년도에 대구대학교 박물관에서 실시한 지표조사결과³⁾에 따라, 대구시 북구 東川洞 및 國優洞일대에 위치하는 칠곡 3택지 개발사업지역에 대한 시굴조사를 본 영남 매장문화재연구원에 의뢰하여 1996년 7월부터 12월까지 시굴조사를 실시하였다⁴⁾. 이 결과, I ~ IV구역에서 확인된 문화유적에 대한 유적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본 연구원에서는 I · IV區域을, 韓國文化財保護財團에서는 II · III區域에 대한 발굴조사를 각각 실시하여 현재 진행중이다(도 2).

칠곡 3택지 개발지구는 鳩岩洞古墳群⁵⁾과 칠곡 2택지 개발지구에 대한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三國時代의 大規模 生活聚落遺構와 연계된 유적이 분포할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시굴결과 靑銅器時代의 聚落⁶⁾(I 구역), 統一新羅時代의 生活遺蹟⁷⁾(II 구역), 後期無文土器時代의 生活遺



〈도 2〉 유적위치도

3) 대구대학교박물관, 1996, 「대구 칠곡 3지구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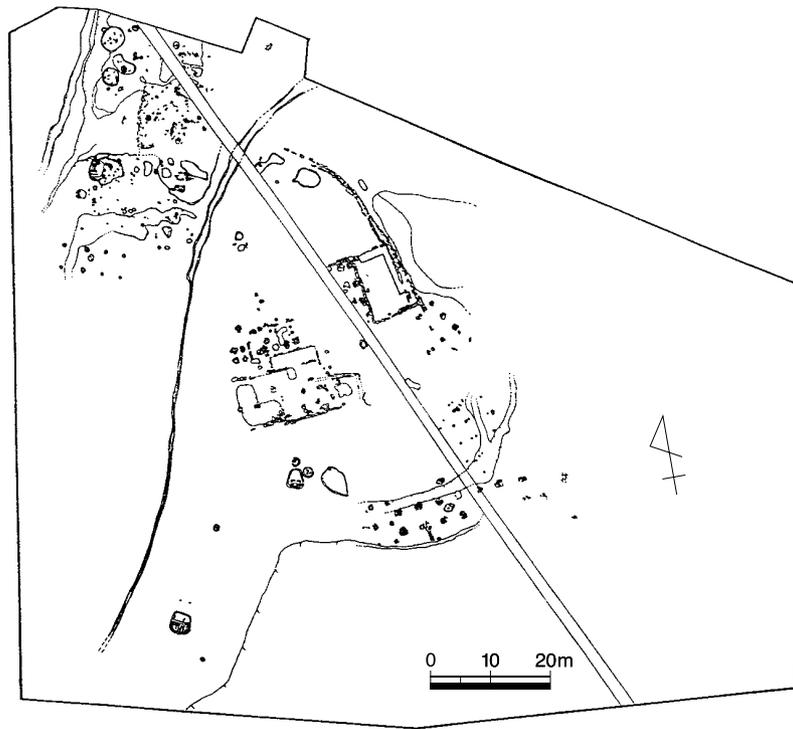
4) (社)嶺南埋藏文化財研究院, 1996, 『大邱 漆谷 3地區 宅地開發地區內 埋藏文化財 試掘調査 結果報告書』.

5) 金宅圭 · 李殷昌, 1978, 『鳩岩洞古墳發掘調査報告』古蹟調査報告 第2冊. 嶺南大學校博物館.

蹟⁸⁾(Ⅲ구역)과 高麗時代의 建物址⁹⁾(Ⅳ구역) 등이 확인되었다.

본 칠곡 3지구 Ⅳ구역에서 확인된 건물지유적은 기존 칠곡 2지구에서 조사된 삼국시대의 생활유적과는 성격이 틀리지만, 삼국시대부터 계속적으로 사람들의 정주생활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조사구역은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285번지일대 3,109여평(10,277㎡)으로 시굴조사 당시 기와퇴적층의 존재가 보고되었지만, 건물의 적심석이나 기단시설과 같은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 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積心建物址 외에도 堀立柱建物 및 각종 竪穴과 爐址, 溝 등이 북쪽으로 확대되면서 분포하고 있음이 밝혀졌다(도 3).



〈도 3〉 칠곡 3지구 건물지유적 유구배치도

- 6) (社)嶺南埋藏文化財研究院, 1998, 「大邱 東川洞 마을遺蹟 發掘調査-大邱 漆谷 3宅地開發區域內 I 區域 發掘調査-」현장설명회자료 16.
- 7)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대구칠곡유적발굴조사단, 1998, 「대구 칠곡 3택지 개발지구내 2구역 문화유적 발굴조사 -지도위원회 및 현장설명회 자료-」.
- 8)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대구칠곡유적발굴조사단, 1998, 「대구 칠곡3택지 개발구역내 문화유적 발굴조사」현장설명회자료.
- 9) (社)嶺南埋藏文化財研究院, 1998, 「大邱 漆谷 3地區遺蹟 發掘調査-建物址遺蹟-」현장설명회자료 13.

Ⅱ . 입지 환경

1. 역사적 배경

漆谷은 三韓時代때 辰韓의 軍彌國과 弁韓의 弁軍彌國이 위치한 곳으로 비정되고 있으며, 新羅時代때에는 斯同火縣 · 大木縣 · 八居里縣이 설치되었으며, 慶德王 16年(757年)에 각각 壽同縣 · 谿子縣 · 八里縣으로 개칭되어 수동현과 계자현은 星山郡(星州)에, 팔리현은 壽昌郡에 속하였다.

高麗初에 壽同縣이 仁同縣으로, 谿子縣이 若木縣으로, 八里縣이 八居縣(또는 八莒縣)으로 각각 개칭되었다. 顯宗 9年(1018年)에는 인동현과 팔거현이 京山府(星州)의 屬縣이 되었으며, 시기는 분명하지 않으나 약목현 역시 경산부에 內屬하였다. 高麗末에 이르러 恭讓王 2年(1390年)에는 인동현에 監務가 파견되어 약목현도 겸임하였다. 朝鮮初에 인동현에는 감무대신 縣監을 파견하였으며, 약목현은 인동현의 속현으로, 팔거현은 성주목의 속현으로 하였다¹⁰⁾. 宣祖 26年(1593年)경에 慶尙道 監營이 일시 팔거현으로 옮겨지면서 이 지역이 중시되었으며, 그 결과 1604년에 天生山城이 축조되고 仁同縣이 都護部로 승격되었고, 仁祖 18年(1640年)에 八居縣에 茄山山城이 축조되면서 八居縣은 漆谷都護部로 승격하였다. 高宗 32年(1895年) 甲午改革때 23部制가 실시됨에 따라 칠곡군과 인동군으로 개편되어 大邱府에 속하였으며, 다음해 13道制가 실시되자 慶尙北道에 소속되었다.

이 때, 지금의 觀音 · 東湖 · 鶴亭 · 東川과 邑內洞 一部를 八厲面으로 칭하고, 太田 · 梅川 · 八達 · 琴湖 · 泗水洞을 文朱面이라 칭하였으며, 道南 · 國優 · 鳩岩 · 觀音 · 東川과 邑內洞의 一部를 退川面으로 칭하여 오다가, 1914年 府面郡廢合에 따라 인동군이 폐지되고 3개면을 병합하여 漆谷郡 漆谷面이 되어서 漆谷郡으로 편입되었다. 1980년에는 邑으로 昇格하였으며, 1981년에 大邱直轄市에 編入되었다.

한편, 본 조사지역에 대해서 현지주민들은 “옥두깡”이라 부르고 있는데, 이는 과거에 이 곳에 감옥이 위치했던 데에서 유래한다고 하며¹¹⁾, 솟골에는 향교가 있었으며 주변부에는 기와가 마가 있어서 근세까지 조업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칠곡과 그 주변부에는 청동기시대에서 조선시대까지의 각종 유적이 위치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八達洞遺蹟¹²⁾, 鳳岩洞支石墓¹³⁾, 錦岩洞支石墓¹⁴⁾, 箕聖洞支石墓¹⁵⁾, 八莒山城¹⁶⁾, 鳩岩洞古墳群¹⁷⁾, 北室古墳群¹⁸⁾, 西邊洞古墳群¹⁹⁾, 西邊洞遺蹟²⁰⁾, 柯川洞古墳群²¹⁾, 琴湖洞古墳群²²⁾, 琴

10) 『東國輿地勝覽』卷28, 星州牧屬縣條 “八莒縣 在州東七十二里 本新羅八居縣 一云仁里 慶德王改名八里屬壽昌郡 高麗復稱八居 後居轉而爲莒 顯宗時來屬 別號漆谷”.

11) 鳩岩洞에 거주하는 남정수氏(62세) 제보에 의함.

12) 尹容鎭 外, 1993, 『大邱 八達洞遺蹟』慶北大學校博物館叢書 18. 大邱直轄市 · 慶北大學校博物館 : (社)嶺南埋藏文化財研究院, 1997, 「大邱 八達洞遺蹟 發掘調査」현장설명회자료 8; 兪炳瑛, 1998,

湖洞建物址²³⁾, 觀音洞 土器·瓦散布地Ⅰ²⁴⁾·Ⅱ²⁵⁾, 觀音洞 瓦廢棄場(Ⅲ)²⁶⁾, 柯川洞甕器窯址²⁷⁾, 漆谷 2宅地遺蹟, 漆谷鄉校 등이 있다.

「大邱 八達洞 青銅器時代 住居遺蹟에 대하여」『제8회 영남매장문화재연구원 조사연구발표회』31~63쪽; 박승규, 1998, 「大邱 八達洞遺蹟의 積石木棺墓」『統一과 歷史教育』제41회 전국역사학대회 발표요지. 386~400쪽.

13) 註 1)과 같음.

14) 註 1)과 같음.

15) 慶尙北道, 1980, 『慶尙北道文化財地表面調査報告書Ⅰ』.

16) 『東國輿地勝覽』卷28, 星州牧 古蹟條. “八莒山城 在縣東距州七十八里 石築 周二千四百二十三尺 今半頽落 內有泉二池一”.

17) 金宅圭·李殷昌, 1978, 『鳩岩洞古墳發掘調査報告』古蹟調査報告 第2冊. 嶺南大學校博物館.

18) 慶尙北道, 1980, 『慶尙北道文化財地表面調査報告書Ⅰ』.

19) 西邊洞古墳群에서는 3세기말에서 6세기말까지의 木槨墓(慶州型木槨墓), 周溝附 木槨墓, 周溝附竪穴式石槨墓, 橫口式石室墳 등과 高麗~朝鮮時代의 木槨墓, 骨壺 등이 발굴조사되었다.

(社)嶺南埋藏文化財研究院, 1998, 「大邱 西邊洞古墳群 發掘調査-서변동~북대구IC간 도로개설 구간내 문화유적 발굴조사-」현장설명회자료 17.

20) 西邊洞일대에 위치한 청동기시대 마을유적과 조선시대의 건물지유구로 본 원에서 현재 발굴조사중이다.

21) 註 1)과 같음.

22) 배한규·박보현, 1991, 「大邱 琴湖洞古墳群」『大邱~春川間 高速道路建設豫定地域內文化遺蹟發掘調査報告書』大邱教育大學 博物館 學術調査報告 第1冊.

23) 본 琴湖洞 建物址에서는 三國時代에서 高麗時代까지의 평와 및 유물이 수습되고 있다. 본 칠곡 3지구 건물지유적의 타날판과 동일한 평와(도 8-30, 31)가 확인되었다. 이는 칠곡과 관음동일대에는 동일한 생산지에서 제작된 기와들의 공급되었음을 보여준다. 본 지역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문지와 건물지 석열의 일부가 확인되었으나 부분적인 조사로 건물의 전체적인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건물지의 기단과 관계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석열의 전면에 와폐기층이 존재하는 점은 본 유적과 유사한 모습을 보여준다.

尹容鎮 外, 1991, 「大邱 琴湖洞 건물지」『大邱~春川間 高速道路 建設豫定地域內 文化遺蹟發掘調査報告書』慶北大學校博物館·大邱教育大學博物館·昌原大學校博物館. 111~141쪽.

24) 본 觀音洞 瓦 廢棄場에서는 본 칠곡3지구 건물지유적의 평와 타날판과 동일한 기와가 확인되었다(도 2, 24-1, 2). 이는 칠곡지역을 중심으로 한 기와수급에 있어서 동일 생산지역에서 공급되었음을 보여준다. 본 지역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별다른 유구흔적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표토면에 불탄 할석더미와 瓦片이 산재하고 있어서 건물지가 존재했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기와가 넓게 분포하고 있는 점은 건물지가 산 정상부에 위치했을 가능성이 큼을 보여주며, 산의 높이가 해발 125m임을 감안할 때 庵子나 祠堂이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박영철·김종철·이희준, 1990, 「大邱·慶北地域」『大邱~春川間 高速道路 建設豫定地域內 文化遺蹟地表面調査報告書』慶北大學校 博物館; 尹容鎮 外, 1991, 「大邱 觀音洞 瓦 廢棄場」『大邱~春川間 高速道路 建設豫定地域內文化遺蹟發掘調査報告書』慶北大學校博物館. 145쪽.

2. 유적의 입지

漆谷을 통과하는 八溪川은 架山(902m), 牛鷄山(466m), 梅峯山(630m)에서 발원하여 남류하다가 팔달교부근에서 琴湖江에 합류되는 主流의 길이 약 18km의 소하천이다. 이 八溪川 流域盆地는 남북방향으로 길게 형성되어있고, 東明부근에서부터 상당히 넓은 충적평야가 하천에 연하여 형성되어 칠곡 부근에서는 폭 1km를 넘는 최대의 폭을 나타낸다.

이 분지의 주위는 標高 50~500m의 丘陵性 山地로 둘러쌓여 있으며, 이들의 지질은 中生代 白堊紀에 형성된 慶尙系 堆積巖으로 북서쪽이 오래되었고 동남쪽으로 올수록 나중에 퇴적된 지층이다. 본 지역의 형성시기는 古扇狀地堆積物로 추정해 볼 때, 最終氷期 最成期(약 18,000년 B.P.전후의 시기)로, 유구가 확인되는 실트層은 後氷期 氣溫極相期(약 7,000~5,000년 B.P.)로 추정된다²⁵⁾.

본 조사지역은 북쪽의 주좌마을쪽에 위치한 鶴翼山(125.1m)의 산능선이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古河床(八菑川의 지류인 反甫川)에 의해 삭평되면서, 구릉의 양쪽사면은 각각 삭평 및 재퇴적과정을 거치는데 동쪽면은 삭평, 서쪽면은 퇴적지형이다. 유로변경에 의해 저지대는 점차 저습지화 되면서 동쪽은 회흑갈색 니탄층화 되었고, 서쪽은 능선쪽의 점질토와 풍화암반마사토가 교차로 퇴적되면서 평지화되었다. 이 층에서는 소량의 인화문토기와 도질토기편 등이 출토되었지만 삼국시대의 유구존재 가능성보다는 流水에 의해서 소량의 토기편이 휩쓸려들어 온 상황으로 판단되며, 이 지역에서 본격적인 정주생활과 관계되는 시기는 고려시대부터이다.

고려시대에 본 지역에는 건물지가 축조되면서 정지작업인 성토가 이루어진다. 성토된 지역은 동쪽과 서쪽지역 모두에서 확인되는데, 서쪽에서 확인된 모습은 저지대가 건물축조와 생활에 따른 자연퇴적 및 성토행위에 의해서 평탄화되는 상황을 보여주며, 동쪽에서는 두터운 매립층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성토매립층, 재퇴적층의 범위는 결과적으로 건물지와 관계되는 노지의 분포를 한정시키는데, 성토지대는 낮은 저습지대에 할석, 기와 등과 점토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배수와 지반문제 때문에 노지가 존재하기 어렵다. 실제로 爐가 위치한 지역은 모두 능선의 말단부로 건물지가 능선의 말단부를 정지하고 들어선 후 안정된 기반층을 이용하여 유구가 축조되었음을 보여준다.

25) 박영철 · 김중철 · 이희준, 1990, 「大邱 · 慶北地域」『大邱~春川間 高速道路 建設豫定地域內文化遺蹟地表調査報告書』慶北大學校 博物館.

26) 尹容鎭 外, 1991, 「大邱 觀音洞 瓦 廢棄場」『大邱~春川間 高速道路 建設豫定地域內文化遺蹟發掘調査報告書』慶北大學校博物館. 129~141쪽.

27) 尹容鎭 外, 1991, 「柯川洞甕器窯址」『大邱~春川間 高速道路 建設豫定地域內文化遺蹟發掘調査報告書』, 慶北大學校博物館.

28) 曹華龍, 1993, 「漆谷 周邊平野(八溪平野)의 堆積層 層相構造와 各 層의 形成時期 推定」『漆谷宅地(2)地區 文化遺蹟基礎調査報告書』慶北大學校 博物館 叢書19, 53~55쪽.

결국, 칠곡 3지구 4구역의 古地形과 유구는 낮은 구릉의 말단부와 주변의 저습지로 이루어진 지역을 인위적으로 성토한 뒤에 적심건물지와 굴립주건물, 그리고 이에 부속된 노지 및 수혈 등으로 구성된 모습을 보여주며, 그 전시기는 인간의 점유행위보다는 자연적인 유수운동에 의해 유물이 산포된 모습으로 추정된다. 본 건물지의 폐기원인은 화재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후 근세까지 이 지역은 계단상 수전으로 이용되다가²⁹⁾ 1970년대에 경지정리를 통해서 수전으로 계속 이용되었다.

Ⅲ. 調查內容

1. 建物址(사진1-①)

건물지가 위치한 지역은 구릉이 낮게 내려오는 선단부로 주변은 낮은 저습지이다. 구릉의 양쪽사면은 물에 의해서 재퇴적이 이루어진 곳으로 저습지화 되어있다. 건물을 짓기위해서 저습지에 기와, 돌 등으로 지반을 성토한 후 건물을 축조하였는데, 조사결과 瓦葺積心建物 8동, 堀立柱建物 3동 등 모두 11동이 확인되었다. 건물지는 최소한 2차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증축되었으며, 수축과정에서 부족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1차 건물지와 그 주변을 황색점토로 성토하고 2차 건물을 지었다.

건물군의 배치는 동쪽에 2호·6호·7호, 서쪽에 1호·5호, 남쪽에 3호, 4호, 북쪽에 8호 건물지가 위치하며, 모두 한 건물군의 구획내에 포함된다. 건물지는 담장석열에 의해서 내부와 외부로 구분되며, 외곽에 위치한 건물지는 5호 굴립주건물과 8호 건물지로, 서쪽에서 확인된 구와 북쪽 담장석열에 의해서 구분된다. 한편, 건물지의 남쪽면과 서쪽면은 조선시대 경작층에 의해서 대부분이 유실되었다.

1) 1호 건물지(사진 1-②)

1호 건물지는 2개의 기단 석열과 배수로에 의해서 상단건물과 하단건물로 구성되고, 내부에는 모두 4동의 건물지가 위치한다. 건물의 서쪽과 북쪽부분은 후대의 경작과정과 논둑에 의한 파괴로 불분명하다. 건물의 주축방향은 N-8°-W로 정북방향이다. 건물지는 최소한 2차에 걸쳐서 증축되었으며 증축과정에서 기단 서쪽과 내부를 황색점토로 성토했다. 진단구는 1-1호 건물지 내부를 황색점토로 성토하면서 녹청자 호를 매납했는데 건물초창시에 매납된 것으로 추정된다. 건물의 중앙에는 동서 배수호가 위치하며 'ㄱ' 자상으로 꺾인 모습이다. 1-2호

29) 근대 경작면에서 출토된 咸豐通寶로 볼 때, 적어도 咸豐年間(1851~1861)에는 경작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건물지 내부와 주변에서 확인되는 소토유구(9호, 16호)는 모두 2차 건물지의 성토층에 위치하는 점에서 2차 건물시기의 유구로 볼 수 있다. 건물의 각 건물의 기단 전면에는 폐와와 토기편 등이 폭 3.6m정도로 폭 넓게 깔려 있는데 보도와 같은 기능을 한 부석군으로 추정된다.

(1) 1-1호 건물지

1-1호 건물지는 하단에 위치하는 건물로 2차에 걸쳐서 중창되었다. 내부에는 배수시설이 있으며, 서쪽에는 건물확장에 따른 ‘L’ 자상의 성토구간(길이 320~700cm, 폭 320~650cm)이 있다.

1차 건물지는 평면규모가 정면 3칸, 측면 1칸 확인되는데, 원래 정면 5칸, 측면 1칸일 가능성이 있으나 확실하지 않다. 건물의 서쪽구간은 성토층이므로 1차 건물의 흔적을 확인할 수 없었다.

잔존하는 적심석의 대부분은 동쪽부분으로 2차 건물지의 성토층에 하부에 잔존한다.

2차 건물지는 평면규모가 정면 5칸, 측면 1칸으로 추정되며 북쪽 및 동쪽에 배수시설을 갖추고 있다. 배수로의 벽석은 세워쌓기했으며, 바닥면은 판석을 깔았으며 규모는 현길이 800cm, 폭 70cm이다. 건물지 내부에는 인위적인 성토층이 있는데, 증축시 기반층을 보강하기 위해서 서쪽 기단쪽에 기와, 돌 등으로 내부를 채우고 황색점토로 성토했다. 성토층 하부에서 귀목문막새가 출토되는 점은 1차와 2차 건물지 사이에 시기차이가 크지 않음을 보여준다. 기단 석축은 기반층을 정지한 후 L자상으로 절토한 뒤 석축을 쌓고 내부를 뒷채움하였다.

〈표 1〉 1-1호 건물지 主柱間 간격

		제1칸	제2칸	제3칸	제4칸	제5칸	비고
1차	정면	270cm	270cm	390cm	?	?	
	측면	320cm					
2차	정면	340cm	300cm	400cm	450cm	330cm	
	측면	370cm					

(2) 1-2호 건물지

1-2호 건물지는 상단의 중앙부에 위치하는 건물로 최소한 2차에 걸쳐서 중창되었다. 전면에는 ‘ㄷ’ 자형의 기단 석열이 위치하며 이를 기준으로 북쪽에 1-2호 건물지, 서쪽에 1-3호 건물지가 위치한다. 1차 건물의 규모는 정면 3칸, 측면 1칸으로 추정되며, 기단 앞에는 1-1호 건물지와 동일한 부석군이 있다.

1차 건물의 잔존규모는 정면 3칸, 측면 1칸으로 동쪽에서는 적심석의 흔적을 찾을 수 없지만, 기단과 빈공간의 존재로 볼 때 1-1호 건물지와 같은 정면 5칸, 측면 1칸의 구조일 가능성이 있다. 2차 건물의 규모는 정면 3칸, 측면 1칸으로 추정되며 1차 건물지를 재이용해서 중창하였다.

〈표 2〉 1-2호 건물지 主柱間 간격

		제1칸	제2칸	제3칸	비고
1차	정면	200cm	200cm	200cm	
	측면	350cm			
2차	정면	200cm	200cm	100cm	
	측면	400cm			

(3) 1-3호 건물지

1-3호 건물지는 상단 기단의 서쪽에 위치하며 논둑에 의해서 적심석의 일부가 결실되었다. 건물의 장축은 N-3°-W인 동향으로 상단기단과 일치되게 배치되었다. 잔존규모는 정면 2칸, 측면 1칸이지만, 원래는 정면 3칸, 측면 1칸의 건물지로 추정된다.

〈표 3〉 1-3호 건물지 主柱間 간격

		제1칸	제2칸	제3칸	비고
정면		?	350cm	180cm	
측면		170cm			

(4) 1-4호 건물지

1-4호 건물지는 건물의 제일 북쪽에 위치하며, 경작에 의한 파괴로 적심석 2개만 잔존하며 간격은 250cm이다.

2) 2호 건물지(사진 2-①)

2호 건물지는 1건물지의 북동쪽에 위치하며 후대의 배수로에 의해 건물의 1/3정도가 파괴되었다. 건물의 규모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건물로 2차에 걸쳐 증축되었으며, 화재에 의해서 폐기되었다. 건물의 장축방향은 N-8°-W인 동향이며 부속시설로는 마당과 작업공간이 있다.

마당은 2차에 걸쳐서 이용되었으며 전면에 잔자갈을 한 벌 깔았다. 길이 12m, 폭 6.4m.

1차 건물의 마당은 생토면을 이용했으며 길이 11.0m, 폭 5.4m이다. 내부에 ‘ㄴ’ 자상의 석열이 존재하는데 담장에 부속된 시설일 가능성이 있으며, 서쪽에는 폭 155cm로 평와를 垂積했는데 건물의 출입시설로 추정된다. 2차 건물은 기단 밖에 석축을 1열 보강했으며, 공간을 확장시키면서 안마당에 황색점토와 잔자갈을 각각 한벌씩 성토했다.

2차 건물의 상면은 1차 상면위에 사질토와 점질토로 성토한 후 전체적으로 잔자갈을 깔았다. 마당에 잔자갈을 전체적으로 깔면서 건물 기단앞에는 문디덤들을 놓았다. 디덤들은 성토층을 되파기한 뒤, 바닥에 할석을 깔고 위에 역암을 1개 놓아서 사용했다. 안마당에는 지붕이 무너

지면서 퇴적된 다량의 기와와 지붕 및 기둥목이 탄화된 상태로 확인되는데, 건물기단의 전면으로 약 1~1.5m정도 간격을 두고 귀목문 암·숫막새가 일렬로 출토되었다. 막새는 건물의 동쪽과 북쪽에서 주로 확인되며, 출토위치로 볼 때 지붕형태는 우진각지붕의 가능성이 크다.

마당은 두차례에 걸쳐 재사용되었지만, 귀목문막새가 두 층에서 모두 확인된 점으로 볼 때 1차와 2차 건물사이의 시기폭은 넓지않으며 1건물지와 같은 양상을 보인다.

작업공간은 건물지의 북쪽에 위치하며 북쪽 담장석열 주변에 15호 수혈이 위치한다.

추정 작업장은 기반층을 그대로 이용했으며 부속시설과 주혈은 확인되지 않았다. 시설물로는 대형 숫돌 1점과 주변에 대호를 1점을 매납했는데, 대호 내부에는 할석이 깔려져 있었다. 숫돌은 전면과 측면이 모두 사용되었으며, 표면에 패어진 가는 흙을 볼 때利器를 연마했다고 추정된다.

〈표 4〉 2호 건물지 主柱間 간격

	제1칸	제2칸	제3칸	비고
정면	350cm	350cm	350cm(?)	
측면	200cm			

3) 3호 건물지(사진 2-②)

3호 건물지는 1호 건물지의 남동쪽에 위치하며, 4호 건물지를 성토하고 축조했다. 건물지의 하부에서 확인된 溝에서 귀목문 숫막새가 출토된 점에서 볼 때, 3호 건물지의 시기는 타 건물지와 비교할 때 큰 차이는 없으며, 현대 농수로와 논둑에 의해서 건물지의 동쪽과 남쪽부분이 파괴되었다. 잔존 규모는 정면 6칸, 측면 1칸으로, 최소한 정면 7칸, 측면 1칸 규모의 적심건물로 추정된다. 장축방향은 N-70°-W로 남향이며 잔존길이 25.5m, 폭 3.5m이다. 건물지의 내부에는 잔자갈이 바닥면에 한 벌 깔려 있으며, 중앙쪽에 부뚜막(18호)이 있다.

〈표 5〉 3호 건물지 主柱間 간격

	제1칸	제2칸	제3칸	제4칸	제5칸	제6칸	제7칸	비고
정면	300cm(?)	400cm	370cm	400cm	370cm	400cm	400cm	
측면	350cm							

4) 4호 건물지(사진 2-②)

4호 건물지는 3호 건물지의 서쪽에 위치한다. 3호 건물지의 성토층 아래에서 적심석이 확인되며, 내부토에서 귀목문 숫막새가 출토되는 점에서 볼 때, 3호 건물지보다 앞서는 유구지만 큰 시기차이가 없다고 생각된다. 건물지의 장축방향은 N-6°-W로 동향이다. 근대의 경작으로 남쪽이 파괴되었지만 건물지의 잔존 규모는 정면 2칸, 측면 1칸으로, 원래 정면 3칸, 측면 1칸 이상의 적심건물로 추정된다. 주변에서는 대형 숫돌이 확인되었으며, 적심석 옆에 진단구

가 설치되었다. 진단구는 경부를 떼어낸 청자병 안에 다슬기를 채워넣고 매납했다. 잔존 길이 7.0m, 폭 3.0m.

〈표 6〉 4호 건물지 主柱間 간격

	제1칸	제2칸	제3칸	비고
정면	350cm	350cm	?	
측면	300cm			

5) 5호 건물지(사진 3-①)

5호 건물지는 굴립주 건물로 규모는 정면 3칸, 측면 1칸이며 장축방향은 N-20°-W로 남향이다. 중앙칸 내부에는 타원형의 수혈이 있는데 내부에 다량의 철기가 출토되었다. 건물 내부와 주변에서 다량의 소토괴, 목탄 등과 불명철기, 청동편 등이 출토된 점에서 볼 때, 본 건물은 공방적인 성격을 가졌다고 추정된다. 청동편은 외면에는 당초문이 양각되었으며 측면에는 톱니모양의 테가 돌아가는 기물편으로 구조품이다. 재 이용되기위한 素地로 추정된다.

〈표 7〉 5호 건물지 主柱間 간격

	제1칸	제2칸	제3칸	비고
정면	330cm	360cm	360cm	
측면	370cm			
시설	수혈			鐵器, 靑銅素地

6) 6호 건물지

6호 건물지는 굴립주 건물로 2동이 확인되었는데, 후대의 구에 의해서 건물 남쪽주혈의 일부가 결실되었다. 이 구는 3호, 4호 건물지보다 앞서므로 6호 굴립주건물은 이들보다 빠르다.

6-1호의 장축방향은 N-5°-W로 건물의 규모는 정면 4칸, 측면 1칸이 확인되지만, 정면 5칸의 구조일 가능성이 있다. 남쪽은 구와 3호 건물지에 의해서 확인되지 않는다. 건물에 부속된 시설은 갖추지 않았으며, 기반층위에 바로 축조하였다. 6-2호는 장축방향이 N-7°-W로 정면 3칸, 측면 1칸이다.

〈표 8〉 6호 건물지 主柱間 간격

		제1칸	제2칸	제3칸	제4칸	제5칸	비고
정면	6-1호	270cm	300cm	320cm	280cm	?	
	6-2호	300cm	300cm	300cm			
측면	6-1호	230cm					
	6-2호	320cm					

7) 7호 건물지

2호 건물지의 남동쪽에 위치한다. 2호 건물지의 1차 담장석열을 제거하고 축조된 적심건물로 규모는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추정된다. 건물지의 장축방향은 N-37°-W인 북동향으로, 길이 9.0m, 폭 6.0m이다. 건물 전면에는 3호 건물지로 이어지는 溝가 있으며, 건물 중앙에서 적심석의 하부에는 대호를 매납한 진단구가 확인되었다. 진단구는 적심석하부에서 확인되었는데, 굴광을 파고 구연부를 제거한 대호를 정치시켰으며, 내부에는 돌과 흙으로 뒤채운 후 적심석을 위에 만들었다. 건물의 폐기원인은 화재로 내부에서 다량의 목탄이 확인되었다.

<표 9> 7호 건물지 主柱間 간격

	제1칸	제2칸	제3칸	비고
정면	300cm	300cm	300cm	
측면	300cm	300cm		

8) 8호 건물지

8호 건물지는 유적의 북쪽경계지역에서 확인된 적심건물로 정면 3칸 이상의 규모를 가진다. 적심석 앞에 호를 1점 매납했으며 주변에서는 다량의 동물뼈와 목탄 등이 확인된다. 1호, 2호 건물지를 에워싸는 溝 밖에 위치하는 점에서 볼 때 외곽건물로 추정된다. 건물지의 적심석은 대부분 심하게 교란되고 결실되었다. 잔존길이 4.0m, 잔존폭 4.0m.

9) 9호

9호는 작업장으로 추정되는 수혈로 내부에 부뚜막시설과 노지(23호)를 갖추었다. 부뚜막시설은 수혈을 파고 2매의 돌을 세워서 만들었는데 1개만 잔존한다. 내부에 있는 수혈에서는 폐와와 자기편 등이 확인되며, 주혈은 평면상에서 불규칙하게 관찰된다. 10호 유구와 관계된 작업시설로 추정된다. 길이 9.5m, 폭 7.5m.

10) 10호(사진 3-②)

10호는 북서쪽에 위치한 작업장으로 할석과 기와로 만든 석열이 ‘ㄱ’자상으로 남아있다. 석열은 할석과 토기편, 기와편으로 구성되었으며 내부에서 귀목문암막새가 출토됐다. 석열 안쪽은 생토층을 정지하고 부분적으로 성토했는데 노지는 모두 생토층에 만들어져 있다. 노지는 모두 7개(24호~30호)가 존재하며, 노지 주변에는 노를 보호하기 위한 지붕시설로 추정되는 다수의 주혈이 있다. 작업장의 제사행위와 관계되는 진단구(청자 호, 유개호)는 28호 노지 서쪽 석열의 하부에서 확인되었는데, 내부를 성토하면서 진단구를 정치시켜 매납한 것으로 뚜껑으로 1매의 할석, 대접을 각각 이용했다. 길이 11m, 폭 10.5m.

11) 담장(사진 4-①)

담장은 건물군 전체를 둘러싸는데 2차에 걸쳐서 부분적으로 증축되었다. 1차 담장은 2차 담장석열 내부와 밖에 부분적으로 남아있다. 형태는 양쪽으로 할석을 놓고 내부에는 돌을 깔고

흙을 채웠다. 잔존길이 35.4m, 폭 0.8m로 타원형이다. 2차 담장은 1차 담장을 안쪽으로 축소시켜서 만들었으며, 양쪽에 돌로 쌓고 내부에 기와, 돌, 명황색 점토 등을 채웠다. 잔존길이 21m, 폭 1m이다. 출토유물은 청자접시, 슬래그, 귀목문막새 등이다.

1차 담장석열 밖에는 건물지를 신축하면서 부족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저습지를 매립한 성토층이 확인되었다. 성토방법은 저습지에 돌과 기와 등을 먼저 깔고 상부에 명황갈색 사질점토를 약 70cm정도 깔아다졌다.

12) 溝(사진 4-②)

구는 건물지 담장석열의 주변을 도는 것(담장경계 구)과 유적의 경계부에서 남북방향으로 길게 진행하는 것(배수구)으로 나눌 수 있다. 유적은 지형상 점차 서쪽으로 갈수록 낮아지는데, 전체 구는 유구의 범위를 제한하는 시설로 추정된다. 조사범위내의 잔존길이는 약 28~35m, 북쪽 경계부분의 폭은 1.4~2.8m, 구가 끝나는 남쪽지점의 잔존폭은 0.6~1.2m, 깊이는 20~100cm정도이다. 내부출토유물은 토기, 자기, 청자, 기와등으로 생활시 폐기된 것으로 구의 바닥면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고 있다.

담장경계 구는 건물지의 담장석열 주변에 돌아가고 있는데 서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동쪽부분은 길이는 약 65m, 폭 1.5~3.0m, 깊이 40~80cm로 성토층에 만들어져 있다. 출토유물은 시루, 호, 조질청자, 귀목문막새, 슬래그 등이 있다. 담장구의 서쪽부분은 1호 노까지 연결되며, 잔존길이는 약 99m, 북쪽 경계부분의 폭은 1.8m, 구가 끝나는 남쪽지점의 잔존폭은 0.6m정도, 깊이는 20~80cm정도이다. 남쪽부분은 후대경작 등으로 인해 상당부분 삭평되었다. 출토유물은 토제 시루, 호, 청자, 평기와 등으로 일상생활시 폐기된 것이다. 구의 바닥에서 확인된 모래층으로 볼 때, 구의 성격은 배수구로 추정된다.

2. 竪穴 및 爐址

竪穴遺構는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燒土化된 壁體部를 지닌 爐址로 모두 건물지의 주변에서 확인되고 있다. 다음은 住居址로 추정되는 竪穴로 내부에 爐址를 갖추었으며 기와와 토기 등의 유물이 출토된다. 마지막으로 폐기장이 있다. 평면형태는 부정형으로 내부에는 각종 토기, 자기, 기와, 돌 등이 폐기되어 있다.

1) 1號 爐址(사진 5-①)

1호 노지는 半地下式 爐로 중앙부의 토벽에 의해서 2개의 반원형 수혈과 주혈로 구성된다. 수혈은 각각 노와 작업장으로 구성되며, 수혈의 남쪽에 위치한 爐의 내부에는 강한 열을 받을 할석과 목탄, 기와 등이 두텁게 퇴적되었으며 상면에는 사질토와 목탄이 한 층 깔려있었다. 작업장은 전체적으로 단일층에 의한 퇴적을 보여준다. 수혈 중앙부의 토벽은 노와 작업장사이를 구분지우는 시설로 수혈을 정지후 폭 20~40cm정도의 명황갈색³⁰⁾(Hue10YR7/6)사질점토를

성토하여 만들었다. 노의 상면에는 할석을 11열로 바닥면 전체에 깔아놓았는데, 노를 구성하는 바닥시설로 추정된다.

1호 노에 있어서 구조상의 특징은 ‘ㄷ’자상의 소토벽체부와 내부 상면의 석열이다. 석열은 등간격으로 할석을 11열로 바닥전면에 깔았는데 면을 고르게 했다. 석열의 성격은 노와 작업장사이의 격벽부분의 보강과 노 내부의 바닥구조물의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노의 상면과 석열 상면과의 빈공간이 문제가 되지만 사이에서 목탄이 많이 검출된 점에서 불 때 연료를 채우면서 송풍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시설일 가능성이 클 것으로 추정된다. 상면은 전체적으로 고르게 소토화되었지만, 벽체와의 연결부분은 소토화되지 않았다.

노의 상면은 짙은 오렌지색(Hue10YR6/4)으로 소토화되었으며, 부분적으로 단단하게 굳은 범위가 확인된다. 상면에는 굵은 사토가 있으며 그 위에 굵은 목탄덩어리가 퇴적되어 있다. 목탄은 통나무형태를 갖추었으며, 장축방향으로 퇴적되어 있다. 작업장의 평면형태는 타원형으로 노지와 비슷한 모습을 지닌다. 내부에는 원형의 수혈이 4개 있다. 노-길이 320cm, 폭 165cm, 깊이 25cm, 작업장-길이 375cm, 폭 185cm, 깊이 18cm.

2) 2號 爐址(사진 5-②)

평면형태가 원형인 노지로 도가니를 사용한 爐이다. 노는 직경 50cm정도의 수혈을 파고 내부에 쌀겨를 혼입한 점토로 벽체를 만든 후, 내부에 목탄을 채우고 도가니를 정지시켜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당시 내부에는 도가니와 벽체가 뒤섞여 있는데 확인된 일부 벽체에는 원형의 구멍이 확인된다. 이는 송풍구와 관계된다고 추정되며 내부에는 노벽, 소토와 목탄 등이 관찰된다. 내부에서 확인되는 노벽체는 반구상으로 부서진채 도가니와 함께 채워진 상태였다. 도가니는 모두 사용한 것으로 조업을 끝내고 노와 함께 인위적으로 폐기시켰다. 노 내부에서는 2점의 도가니가 출토되었으며, 주변에서는 순청자 장동호와 토기편 등이 수습되었다. 길이 52cm, 폭 46cm, 깊이 20cm.

3) 4號 爐址(사진 6)

평면 부정장방형의 노지로 수혈중앙부에 할석으로 벽을 쌓아서 노와 작업공간을 분리시켰다.

노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으로 상면에는 장방형의 소토가 있으며, 상면의 서쪽에 2개, 동쪽에 1개의 수혈이 있다. 노의 벽체는 “ㄷ”자상으로 소토화되어 있는데 바닥면에는 벽체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노의 상면은 생토면을 정지한 후, 모래흙을 한 벌 깔고 그 위에 목탄을 한벌 깔았다. 상부퇴적층은 다량의 돌, 슬래그 등이 단일층으로 퇴적되어 있는데, 퇴적방향은 중앙벽체

30) 토양 색조는 小山正忠 · 竹原秀雄 編, 農林水産省農林水産技術會議事務局 監修, 1997, 『新版標準土色帖』(19版), 日本色彩研事業株式會社를 따름.

부가 노 내부로 무너진 모습이다. 이는 Ⅱ층 내부에서 확인된 제사유물의 존재(청자대접, 토제 병)로 볼 때 의도적인 폐기로 추정된다. 제사행위에 쓰여진 유물은 토제 병과 청자대접으로 병은 저부를 깨고 그 위에 배신부를 깬 청자대접을 도치시켜 얹어놓은 상태로 출토되었다(사진 6-②).

노의 구조는 장방형으로 추정된다. 벽체에는 슬래그가 형성되어있지 않으며 다만 황색(Hue2.5Y8/6)의 소토면이 형성되어있다. 소토면은 바닥상면까지 이어지지 않는 모습인데, 이는 노에 있어서 열을 주로 받는 부분이 바닥면이 아닌 중간부분임을 보여준다.

작업장과 노 사이에 위치한 격벽의 구조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1호, 21호의 예로 볼 때, 바닥면에 돌을 1단 깔고 그 위에 돌이나 점토로 벽체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노: 길이 274cm, 폭 85cm, 깊이 30cm, 작업장: 길이 274cm, 폭 174cm, 깊이 26cm.

4) 6號 竪穴

평면형태가 부정타원형의 수혈로 건물지와 관계된 폐와무지이다. 내부 퇴적은 흑갈색(Hue10Y3/2) 사질점토에 의한 단순퇴적층으로 상면에 별다른 시설은 없다. 내부에는 돌과 기와 등이 퇴적되었으며, 청동제 뒤꽂이, 귀목문막새, 청자편, 각종 평와 등이 출토되었다. 길이 500cm, 폭 424cm, 깊이 27cm.

5) 7號 爐址(사진 7-①)

7호 爐址는 평면형태가 매우 세장한 장방형의 半地下式 爐이다. 상부는 경작에 의해서, 북서쪽벽면은 배수로에 의해서 각각 파괴되었다. 벽체는 얇은 적색(Hue10R4/8)의 소토로 노의 안쪽은 회색(HueN6/)에 가깝게 소토화 되었으며 내부에 별다른 시설은 없다. 노 상면은 남쪽으로 10° 정도 계단상으로 기울는데, 이는 배출과 관계된다고 추정된다. 노의 남쪽에는 작업용 공간이 있는데 약간 깊은 수혈을 만들었다. 잔존길이 265cm, 폭 60cm, 깊이 30cm.

6) 10號 爐址

N40W40에서 확인된 爐址로 9호 수혈의 서쪽에 위치한다. 기반층은 흑갈색(Hue7.5YR3/28)사질점토로 21호 노지의 내부퇴적토이다. 노지는 상면의 일부만 잔존하며 오렌지색(Hue10YR7/8)으로 소토화되어있다. 21호 노지의 상면보다 약 10cm정도 높게 위치한 점에서 볼 때 21호 노지가 폐기된 이후 만들어졌다. 노의 평면형태는 타원형으로 추정되며 소토화된 벽체의 범위는 길이 110cm, 폭 72cm이며, 상면은 길이 46cm, 폭 30cm이다.

7) 11號 竪穴(사진 7-②)

11호 수혈의 평면형태는 방형으로 수혈주거지로 추정된다. 동쪽 벽면에 붙어서 노지로 추정되는 소토가 확인되며, 그 주변에서 三足大盤, 大盤 등이 출토되었다. 길이 320cm, 폭 300cm, 깊이 20cm.

8) 15號 竪穴(사진 8-①)

15호 수혈은 2호 건물지 북쪽에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의 수혈로 서쪽으로 돌출된 溝를 갖추고 있다. 내부토는 흑갈색(Hue10YR3/2)사질점토로 단일 퇴적층이며, 출토유물은 완형의 평와들과 “君生△”銘 平瓦이다. 溝는 수혈 안쪽으로 기우는 모습으로 내부에는 2매의 숫기와의를 횡치시킨후 상부에 1매의 암기와의를 놓았다. 길이 432cm, 폭 300cm, 깊이 24cm.

9) 21號 爐址(사진 8-②)

N40W40에서 확인된 爐址로 9호 수혈의 서쪽에 위치하며 10호 노지가 상부에 중복되어있다. 수혈의 평면형태는 부정타원형의 수혈로 내부에는 장방형의 노와 작업장이 위치한다.

노의 형태는 장방형으로 ‘ㄷ’ 자상의 소토화된 벽체와 상면에는 11열의 석열이 남아있는데 원래 12열의 석열이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석열은 5~7개정도의 활석을 높이가 일정하게 깔았으며, 하부에는 황색(Hue2.5Y8/8)소토가 240×100cm정도 범위로 확인된다. 돌들은 모두 강하게 열을 받았으며 석열 사이에는 소토, 슬래그, 목탄 등이 채워져 있다. 작업장과의 경계는 불분명하지만 북쪽에 2단으로 활석이 쌓여있는 점은 격벽과 같은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되며, 작업장은 서쪽으로 약간 경사진 상면을 지닌다.

노: 길이 160cm, 폭 352cm, 깊이 34cm, 작업장: 길이 460cm, 폭 498cm, 깊이 20cm.

Ⅳ. 出土遺物

유물은 건물지 내부와 주변부에서 출토되었는데 기와, 청자류가 주를 이루며 기타 금속제품 등이 있다. 유물의 시기폭은 12세기말에서 14세기초로 고려시대 후기유물이 대다수를 점하고 있다.

와전류는 막새류와 평와로 나눌 수 있다. 막새는 鬼目紋막새가 주종을 이루는데 모두 同范瓦이다(사진 9-①). 막새를 접합시키는 평와제작수법은 2가지가 확인된다³¹⁾. 平瓦는 어골문계열이 주종을 이루며 銘文瓦는 2종류가 확인되었다.

打捺板 1(도 4, 사진 9-②좌)은 길이 14.0cm, 잔존폭 3.8cm의 장방형의 판을 구획후 내부에

31) 암막새에 있어서 막새가 접합되는 평와가 2가지로 구분된다. 이들 평와는 모두 동일한 타날판을 사용한 점에서 같은 생산지에서 만들어졌다고 판단된다. 먼저 평와를 원통에서 분리시킨 후 바로 막새를 접합시킨 것과, 원통에서 평와를 분리한 후 다시 빗질과 물손질을 가한뒤에 막새를 접합시킨 것이다. 이 두 기와는 기와제작에 있어서 성형과정의 차이가 될 수도 있지만 공인의 차이를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

“君生△”의 銘文과 桴 외부에 唐草文을 시문했으며 타날문은 斜線文이다. 15호 폐와무지에서 출토되었다.

打捺板 2(도 4, 사진 9-②우)는 중앙부에 8葉蓮花文을 시문후 좌측하단에 “日”字를 새겼다. 연화문 안에 5개의 蓮子을 배치했으며 주문양은 魚骨文이다.

토기는 일상생활용기가 주를 이루며 기종은 시루, 호, 옹, 병 등과 도가니, 도침 등이 있다.

대호는 건물지 주변에 단독으로 매납된 예가 많은데, 진단구와 저장시설 등으로 추정되며, 시루, 대반, 호 등은 실생활에 사용되었다. 도침은 도가니와 함께 생산과 관계된 공방 부속구이다. 건물지 성토층에서 도침이 출토된 점은 본 건물지 주변부에 이 시기의 가마터가 존재할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건물에 자기류가 공급될 때 같이 섞여 들어왔을 가능성도 있다³²⁾.

자기는 청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일부 녹청자, 흑유, 백자 등이 있다. 청자는 상감청자와 철화청자가 주를 이루며 기종은 대접, 병, 종지, 탁잔 등이다(도 5, 사진 10-①). 순청자에는 음각문과 양각문이 있는데 주로 음각문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 문양은 雲文, 唐草文, 牡丹文 등이 시문되었으며, 기종은 대접, 종지, 잔, 탁잔 등이 주를 이룬다. 상감청자에는 蓮唐草文, 荔枝文, 雲鶴文, 菊花文 등이 시문되었으며, 기종은 대접, 八角標匙, 盞이다. 철화청자에는 蓮花文, 連珠文, 牡丹文, 草文 등이 시문되었으며, 기종은 잔, 병, 호, 장고 등이다. 이들 제품들은 康津 龍雲里系統과 지방가마 생산품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康津 龍雲里系統이 주를 이룬다. 녹청자는 병과 호가 주를 이루며, 백자는 소편으로만 확인되는데 화형잔의 구연부와 종지(?)의 저부로 평굽이다. 백자는 扶安 柳川里系統과 中國 元代白磁가 출토되는데 중국제 백자는 내면에 음각문이 시문된 대접이다(사진 10-②).

금속기는 주로 청동제품과 철제품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裝身具와 生活用具 등이다. 장신구로는 은제 뒤꽂이와 동곳, 청동방울이 있고, 생활용구는 수저, 철제 못, 철제 팽이, 철제저울추와 이형철제품 등이 있으며 素地로 추정되는 청동용기편이 있다. 철제 팽이는 모두 대호 내부에 넣어진 채로 출토되었는데 진단구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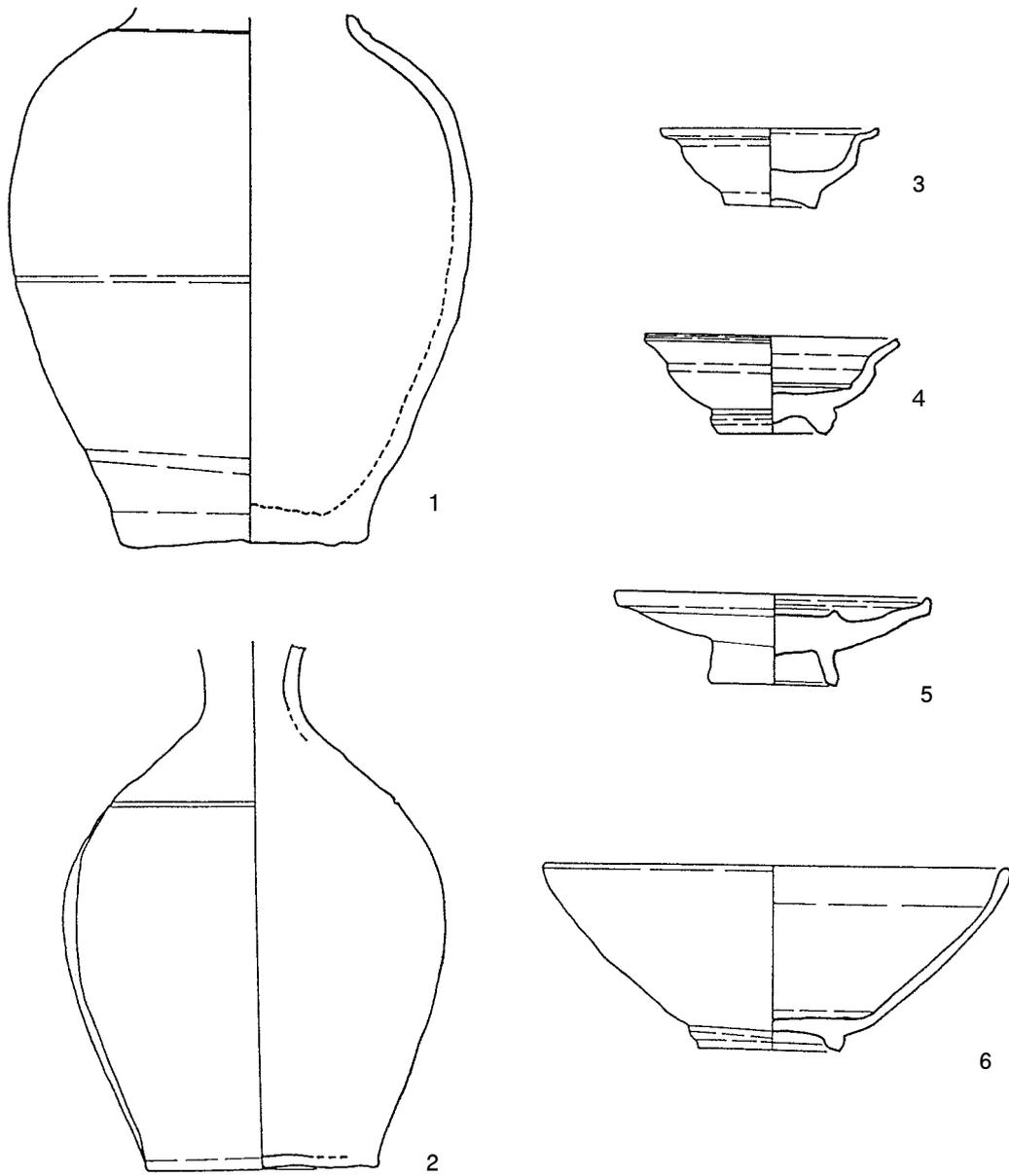
옥석제품으로는 유리제 옥, 수정제 다면옥, 비루 및 용범, 숫돌 등이 있다(사진 11-①).

爐址 내부에서는 다량의 슬래그와 함께 소량의 구리괴가 출토되었으나, 본 노에서 구리를 가공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자연과학적인 분석을 요한다. 다만, 도가니의 외면에서 구리성분이 확인되는 점에서 볼 때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32) 실제로 莞島 등지에서 발굴된 고려시대의 漕運船에서는 완성품인 각종자기와 함께 도침 등이 같이 출토된 바 있다.



〈도 4〉 명문와 타날판(1:15호 수혈, 2:2호 건물지 동쪽 담장) 1/2축소



〈도 5〉 출토유물(1~5:1호 건물지, 6:2호 건물지 동쪽 성토층) 1/3축소

V. 考察

1. 建物址의 性格에 대해서

본 유적에서 조사된 건물지는 모두 11동으로 3동의 굴림주 건물을 포함한다. 본 유적 건물지의 특징은 측면이 1칸 구조로 길이에 비해서 폭이 매우 좁으며, 내부에 노지를 갖춘 건물이 많은 점이다. 1호, 2호, 3호, 4호 건물지, 5호 굴림주건물의 건물내부와 주변에는 노지와 대형수들 등이 확인된 점에서 볼 때 작업과 관계된 건물일 가능성이 있으며, 성토층 내에서 슬래그가 확인되는 점은 건물축조시점에 이미 주변지역에 별도의 공방시설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주변지역에 본 건물지와 유사한 성격의 지닌 유적이 존재했었다고 추정된다.

먼저, 본 유적에서 출토된 “君生△”명문은 본 유적의 성격과 관련해서 하나의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이 명문과 관련한 문헌자료는 없지만 海印寺 藏經閣에 소장된 貞祐 2年銘 群生寺刊 金剛般若波羅密經板³³⁾에 나타난 “群生寺”에 비교해 볼 수 있다. 이 명문에 의하면 群生寺는 符仁寺(夫人寺)³⁴⁾와 관계있는 사찰로 추정되며, 본 건물지유적은 부인사와 같은 생활권에 속한다는 점에서 관련성을 구할 수 있다. 貞祐二年 甲戌은 1214년으로 高麗 高宗元年에 해당하며, 본 유적에서 12세기 후반에서 14세기 전반까지의 청자가 출토되는 점에서 볼 때 시기적으로 일치한다. 다만, 群生寺라는 사찰의 위치가 확인되지 않는 점과 그 성격이 불명인 점에서 볼 때, 이와 관련지우기엔 어려움이 있다.

건물지에 사용된 기와는 귀목문막새로 초창, 중창 모두 동일한 기와를 사용하였다. 이는 이미 사용한 기와의 재사용으로도 볼 수 있지만, 적어도 새로 이입된 기와가 확인되지 않는 점에서 볼 때 각 건물들 사이에 시기차이를 설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한편, 고려시대에 칠곡은

33) 薩田亮策, 「海印寺雜板巧」, 『朝鮮學報』第138輯, 朝鮮學會, 50쪽.

上祝
 皇齡萬壽 國泰民安 兵載年豐 法輪常轉
 先亡父母妹子女子 兼及法界生亡同生淨
 士之願 特彫金剛般若 印行廣布者
 貞祐二年甲戌一月日道人 迅機誌
 無求居士周 通富書
 群生寺主持重大師 深古
 施財刊板
 符仁寺大師 清水 孝如刻

34) 慶北大學校博物館, 1986, 『夫人寺 地表調査報告書』; 李明植 · 李熙敦, 1989, 『符仁寺址一次發掘調査報告書』 學術調査報告 第三冊, 大邱大學校博物館; 李明植 · 李熙敦, 1991, 『符仁寺址二次發掘調査報告書』 學術調査報告 第四冊, 大邱大學校博物館.

행정중심지인 若木에서 떨어진 주변지역인 점과 막새를 건물에 사용할 수 있는 계층이 제한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적어도 官廳이나 寺院과 관련이 있는 건물이 존재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2. 爐의 性格 및 生産物에 대해서

칠곡 3지구건물지유적에서 조사된 노지는 20기로, 4가지 형식으로 구분된다.

I형 : 장방형의 노와 작업장을 갖춘 반지하식 노로 규모가 대형이다. 단독으로 존재하며 노의 상면에는 10~12열의 석열과 3~5개의 수혈이 있으며, 노 내부에는 다량의 슬래그와 벽체로 사용된 활석, 기와, 목탄 등이 확인된다. 1호, 4호, 21호 노.

II형 : 타원형의 반지하식 노로 경사진 상면을 지니며 벽체가 있다. 낮은쪽에 빈 공간이 있는데 제품을 빼내기 위한 시설로 추정된다. 7호 노.

III형 : 장방형 혹은 원형의 지상식 노로 장방형의 상면을 가지며, 대부분의 노가 이 종류에 속한다. 벽체는 대부분이 결실되었지만 부분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8호, 9호, 10호, 13호, 17호, 21호~30호 노.

IV형 : 원형의 노로 반지하식구조일 가능성이 있는 도가니 노이다. 상면은 깔겨와 점토를 섞어서 노벽체를 만든 후 내부에 다량의 목탄을 넣은 후 도가니를 정치시켜 사용한 노로 2호 노가 해당된다.

본 유적에서 조사된 노의 성격은 내부에서 출토된 슬래그와 청동괴 등 시료에 대한 자연과학적인 분석을 통하여 검토되어야겠지만, 분석조사가 미 실시된 관계로 현재까지 관찰된 초보적인 결과를 가지고 고찰하겠다. 단언할 수 없지만 슬래그에서 철성분이 확인된 점과 노 내부와 도가니에서 구리성분이 육안으로 관찰되는 점으로 볼 때, 본 유적에서 확인된 노는 적어도 구리제련 및 정련, 혹은 철과 관계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국내에서 본 유적과 유사한 성격의 유구가 조사된 유적은 김해시 신안제철유적³⁵⁾과 梁山 勿禁宅地開發地區遺蹟³⁶⁾, 慶州 王京遺蹟³⁷⁾ 등이 있다.

35) 부산대학교박물관, 1997, 「김해장유 택지개발사업지구 신안제철유적발굴조사 약보고서」

김해시 장유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조사된 신안제철유적에서는 '가' 지구에서 小型爐 2기, 원형 수혈 1기가, '나' 지구에서 3기의 爐가 조사되었다. 노 주변에서는 다량의 Slag가 수습되었는데 '가' 지구는 鐵生産遺構, '나' 지구는 銅生産遺構로 확인되었다. 유적의 조업시기는 확실하지 않지만, 토기, 청자, 백자, 옹기편 등이 검출된 점에서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의 유적으로 추정된다.

36) 梁山 勿禁宅地開發地區遺蹟의 범어지구에서는 주거지 24기, 소형 수혈유구 6기, 주혈, 도로유구, 우물 2기 등으로 구성된 7~8세기경의 생활유적이 조사되었다. 이중 주거지는 내부에 2~5개의 소형수혈을 갖추었으며 내부에서는 순도 높은 철광석, 슬래그, 소토 등이 조사되었다.

가촌지구에서는 6세기경의 주거지 2기, 수혈 12기, 주혈 등이 조사되었으며, 내부에서는 철광석이

신안제철유적에서 확인된 노지는 원형에 가까운 말각방향으로 노의 상면은 淺鉢狀을 띠며, 모두 두터운 소토가 형성되었으며, 본 유적의 Ⅲ형에 속하는 노지들이다. 경주 왕경유적에서 확인된 수혈유구는 본 유적의 Ⅰ형에 속하는 노지들로 내부구조가 유사하다. 이들 노지의 사용시기는 고려~조선시대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구리정련로가 조사된 대표적인 유적인 日本 住友(스미토모)銅吹所跡³⁸⁾에서는 조사된 노지들을 분류한 결과 구리생산 가공과 관련한 다양한 성격이 밝혀졌다. 따라서, 먼저 住友銅吹所跡에서 확인된 노지를 간략히 살펴보고 본 칠곡 건물지 유적과의 유사점을 살펴보겠다.

먼저, 精鍊爐는 공방에서 精鍊作業에 사용되는 노를 총칭하는데, 貴鉛³⁹⁾에서 銀을 뽑아내는 灰吹 등, 구리 정련 이외에 사용되는 노들도 포함한다. 이를 외관에 따라 구분하면 A~C의 3가지로 나뉜다.

- A. 지표를 판 원형의 노 : 間吹⁴⁰⁾ · 合吹⁴¹⁾ · 小吹⁴²⁾, 鉛吹
- B. 지표를 파들어가서 회를 묻은 수혈. 이것에 토벽을 돛상으로 덮고, 토벽의 전면은 작업할 수 있도록 크게 열려 있다. 灰吹⁴³⁾.
- C. 지상에 높은 外觀 箱形의 노. 전면에는 箱爐에서 나온 용융물(貴鉛)이 흘러 떨어지도록 경사진 溝와 그것이 남아있게 한 지표의 수혈로 구성됨. 南蠻吹.

확인되었다. 이들 유적은 인근에 위치한 勿禁鑛山에서 채광된 철광석을 1차적으로 선별하는 작업장으로 추정되고 있다.

n.n. 1997, 「梁山 勿禁宅地開發地區遺蹟 發掘調査」『嶺南考古學』21, 嶺南考古學會, 218~220쪽.

37) 1997년도에 이루어진 王京遺蹟 0E129조사경내에서 2개의 수혈유구가 조사되었다. 수혈은 고려시대의 도로유구아래에서 확인되었으며, 통일신라시대의 도로유구가 폐기된 이후에 만들어졌다. 수혈 내부에는 다량의 불맞은 기와편, 목탄, 소토 등이 채워져 있었으며, 상면에는 석열과 격벽시설이 존재한다. 전체적인 형태와 규모는 칠곡 3지구 건물지유적과 동일한 모습을 보여 준다.

호수	장축방향	규모(cm)	석열	격벽시설	내부퇴적물
1호	NE-SW	290×140×20	12열×1단	중앙부에 1열	불맞은 기와, 돌, 목탄, 소토
2호	E-W	300×170×20	10열×1단	장벽쪽에 1열	

n.n. 1998, 「1. 王京遺蹟 發掘調査」『年報』第8號 1997.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18~19쪽.

38) 鈴木秀典 外, 1998, 『大阪市 中央區 住友銅吹所跡發掘調査報告』, (財)大阪市文化財協會.

住友銅吹所跡은 江戸時代의 구리제련소로 다양한 형태의 구리 정련로가 조사되었다.

39) 銀을 포함한 용융액.

40) 荒銅에 銀이 0.04%以下 採收되지 않은 銅을 間吹床에서 정련하는 공정.

41) 南蠻吹에 있어서 최초의 공정으로 銅을 용해시키면서 鉛을 섞어 넣는 공정.

42) 吹銅을 구조하는 공정. 槲吹(槲銅을 만듦)와 地賣吹(型銅을 만듦)가 있다.

43) 出鉛(일정이상-0.04%~0.06%이하)의 銀을 회수할 수 있는 荒銅에서 분리된 貴鉛(含銀鉛)과 木炭을 灰吹床에서 가열하여 一酸化鉛은 재속에 가라앉고 재위에 남은 灰吹銀을 회수하는 공정.

間吹·合吹·小吹는 용융점이 1,084℃의 구리를 정련 혹은 주조하며, 灰吹·鉛吹는 모두 328℃에서 鉛을 녹인다. 그리고, 南蠻吹는 구리를 유연하게 만들어서 銅塊중의 貴鉛을 흘러 나오게 한다. 따라서, 각 노의 노벽은 금속화학적으로 특성을 지니며 각각 구분이 가능하다. 또, A型에서도 구리와 납을 노 내부에서 직접 용융시키는 間吹·合吹·鉛吹와 노 내부에 도가니를 넣고 그 안에서 용융시키는 小吹는 노 내벽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인다.

住友銅吹所跡에서 조사된 정련로는 모두 6개 유형으로, 노 상면에 목탄 가루와 정선된 흙을 섞어 만든 내화토(スバイ)⁴⁴⁾를 전면에 깔은 (橢)圓形이다.

I 류는 최대경 60~80cm, 깊이 20cm인 타원형의 사발모양의 수혈에 黃灰~淡灰色의 모래자갈이 섞인 실트(silt)를 두께 5cm정도를 바르고, 내화토와 淡灰~灰白色의 모래자갈이 섞인 실트층을 교대로 曲面에 깔았다. 노 아래와 주위흙은 20cm정도 강하게 적색으로 소토화되었다.

II 류는 크게 땅을 파고 내부에는 북쪽에 접해서 거의 등간격으로 3기의 노를 동서방향으로 배치했다. 남쪽은 열을 받았으며 경사도 약 20°의 土師質 사면을 지니며 내부에는 내화토를 깔았으며 직경 30~50cm의 수혈이 존재한다. 3개의 수혈들의 사이간격은 2.45~3.0m이다.

III 류는 (橢)圓形의 수혈에 灰白色의 재가 굳어진 모습으로 측벽과 재의 下面(內底面)이 매끈매끈하게 열을 받아서 변색되어있다. 측벽 상부는 적색화가 강하며, 내저면은 거의 검붉은 모습이 많다. III a~III c로 세분되어진다.

III a류는 灰穴의 내저면이 비교적 평탄하며 완만하게 만곡하는 모습. 평면 타원형에 내경 45~60cm전후, 내저면까지의 깊이는 10cm정도이다. 내저면 아래에는 두께 2~5cm의 (黃)褐色의 모래자갈이 섞인 점질토를 덧발랐다.

III b류는 평면형은 타원으로 장경 50cm, 단경 40cm, 내저면까지의 깊이는 35cm정도이다. 장축의 단면형은 U자형, 단축의 단면형은 V자형에 가깝다. 부분적으로 기와를 사용했다.

III c류는 가는 목탄이 섞인 회백색의 재 아래에 적색화된 소토면이 있고, 灰穴이 존재하지 않는다. 灰를 굽는 시설일 가능성이 있다.

IV 류는 지표에 만들어진 수혈로 상단은 내경 45~60cm정도의 정원형, 깊이는 30~35cm로, 원저를 보인다. 단면은 포탄형에 가깝다. 앞뒤에 있어서 경사도에 차이가 있는데, 한쪽은 수직에 가깝고, 다른쪽은 기울어진 모습이다. 벽면은 강하게 열을 받아서 단단하게 소성되었다. 수혈 내부에 다른 용기를 넣어서 금속을 용융시켰다고 보여지며, 주위 10~15cm정도가 강하게 적색소토화되었다. 이 유형은 노 내부에서 도가니를 이용하여 구리를 녹인 小吹의 노로 추정된다.

V 류는 광산에서 운반되어진 荒鉛⁴⁵⁾을 지표에 매납된 鐵鍋내에서 용융시켜서, 櫟鉛⁴⁶⁾으로 만드는 노로, I 류에 포함되어진다고 추정된다.

44) 외관은 흑색모래가 섞인 粘質실트.

45) 광산에서 동광석을 제련한 것이 粗銅이다. 鍍(광산에서 제련한 품위 50%전도의 銅)을 다시 가공한

Ⅶ류는 내면에 내화토를 얇게(두께 2cm정도) 덧붙인 노로, 평면이 60~70cm정도의 (橢)圓形으로, 깊이는 20cm정도이다. 바닥은 대부분 원저로 주변부의 소도화 정도는 약하다. 내화토의 두께가 얇은 점이 I 류와의 차이점으로, 내화토 아래에 灰白~淡黃色的 점질실트를 두께 1~2cm정도 붙였다.

住友銅吹所跡에서 확인된 다양한 정련노는 사용목적에 따라 적절한 규모의 노가 운용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칠곡 건물지유적에서 확인된 노지는 住友銅吹所跡에서 확인된 노지들과 형태적으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인 규모와 특징에서 살펴볼 때, 住友 I 류, II 류 노지와 유사성이 추정된다. 또한, 여러 가지 형태의 노가 공존하는 점은 다양한 작업공정이 동시에 이루어짐을 보여주며, 이러한 작업내용은 I 형 노에서 IV형 노로 공정이 변화됨을 추정할 수 있게 한다. 결국 칠곡 건물지유적의 공방에서는 제련과 정련이 동시에 연계된 모습을 보여준다.

국내에서 본 유적외에 구리 도가니 혹은 구리정련관계시설이 조사된 유적으로는 慶州市 皇南洞 376遺蹟⁴⁷⁾, 東川洞 681-1遺蹟⁴⁸⁾, 東川洞 764-12遺蹟⁴⁹⁾, 東川洞 791遺蹟⁵⁰⁾, 東川洞 789-10遺蹟⁵¹⁾, 淸州 雲泉洞寺址⁵²⁾, 扶餘 舊衙里⁵³⁾, 扶餘 雙北里, 官北里, 扶蘇山 建物址⁵⁴⁾ 등이 있으며, 동천동 681-1유적, 동천동 791유적에서는 다수의 구리 정련노가 조사되었다. 노의 상면에는 흑회색의 고운 모래점토층이 한벌 깔려있었는데, 이는 日本 住友銅吹所跡과 같은 양상이다. 칠곡 건물지유적의 노지에서는 노의 상면에 내화토를 깔아놓은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다. 노 상면에서 확인되는 차이점이 시기 혹은 기술의 차이를 반영하는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지만, 적어도 통일신라시대인 동천동 681-1유적, 동천동 791유적과 고려시대인 칠곡

平銅과 床尻銅이 있으며, 품위는 90~95%이다.

46) 棒狀의 金屬 鉛.

47)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박물관, 1994, 「慶州 皇南洞 376遺蹟」 현장설명회자료.

崔炷 外, 1994, 「韓國 最初の 慶州市 皇南洞 出土 유리 熔融 도가니 및 유리구슬에 대한 研究」 『한국전통과학기술학회지』제1권제1호, 한국전통과학기술학회, 11~33쪽;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박물관, 1998, 『발굴유물특별전』.

48)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박물관, 1998, 앞책.

49) 宋春永 · 鄭仁盛, 1997, 「慶州市 東川洞764-12番地 주택 신축부지 發掘調査 略報告」 『博物館年報』第6號, 大邱教育大學校博物館 39~87쪽.

50) 한도식 · 김영화 · 박진, 1996, 『慶州市 文化遺蹟 地表調査 報告書』영남매장문화재연구원 학술조사보고 제2책, (社)嶺南埋藏文化財研究院 · 慶州市, 58쪽.

51) n.n, 1998, 「5. 慶州 東川洞 789-10番地內 遺蹟 發掘調査」 『年報』第8號, 1997,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51~64쪽.

52) 淸州大學校博物館, 1985, 『淸州雲泉洞寺址發掘調査報告書』, 淸州大學校博物館古蹟調査報告第7冊.

53) 崔孟植, 趙貴衡, 吳鍾吉, 1993, 『扶餘舊衙里 百濟遺蹟發掘調査報告書』, 扶餘文化財研究所 · 忠淸南道, 圖版40-⑩.

54) 金鍾萬, 1994, 「扶餘地方出土 도가니」 『考古學誌』第6輯, 韓國考古美術研究所, 109~122쪽.

〈표 1〉 노지 현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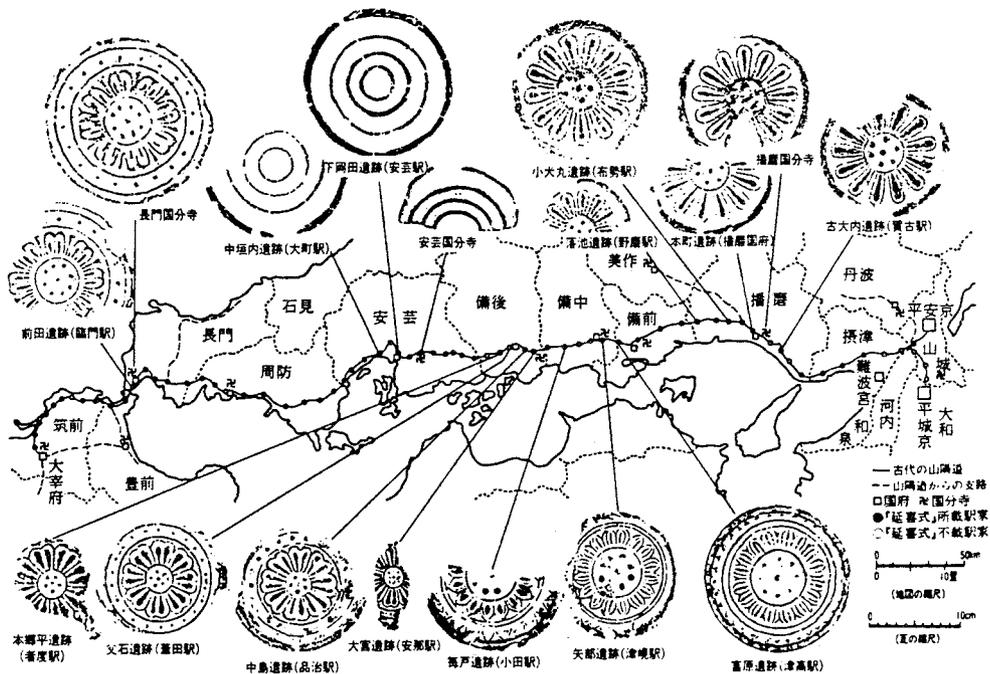
호수	성격	규 모 (cm)			내 용	비고
		길이	폭	깊이		
1호	爐	360	340	28	노(340×180)의 상면에 12열의 석열. 안에는 5개의 수혈이 있고, 노와 작업장(324×160)사이에 토벽이 있다.	
2호	爐	52	46	10	원형의 도가니 노. 반구형의 벽체를 지니며, 내부에는 도가니가 정치되었다.	
4호	爐	259	274	16	장방형 노(274×85)와 작업장(274×174)으로 구분된다. 1열의 천석으로 내부공간을 구획했으며 내부에는 4개의 수혈. 노 폐기후의 제사행위로 토기병 위에 청자대접을 도치시킴.	
7호	爐	(265)	60	30	장방형 노. 경사진 계단상 상면을 가지며, 남쪽에 돌을 이용한 시설이 남아있다.	
8호	爐	110	75	5	타원형 노지	
9호	爐	105	65	5	타원형 노지	
10호	爐	144	75	·	타원형 노지	
12호	爐	450	(210)	7	장방형 노. 규모는 길이100cm, 폭125cm로 2차례 이용되었다.	
13호	爐	125	105	3	타원형 노지	
16호	爐	(55)	(35)	·	타원형 노지	
17호	爐	(158)	(95)	·	타원형 노지	
21호	爐	620	460	35	장방형의 노지(270×380)로 상면에는 석열이 10~12열 있다. 구리괴 출토.	
23호	爐	66	50	·	타원형 노지로 상면(24×22cm)만 잔존.	
24호	爐	93	84	2	타원형 노지로 상면(78×48cm)만 잔존.	
25호	爐	80	42	·	타원형 노지로 상면(35×24cm)만 잔존.	
26호	爐	44	40	5	타원형 노지로 상면(24×20cm)만 잔존.	
27호	爐	76	50	·	타원형 노지.	
28호	爐	42	38	·	타원형 노지로 상면(25×17cm)만 잔존.	
29호	爐	76	62	7	타원형 노지로 상면(46×32cm)만 잔존.	
30호	爐	42	34	·	타원형 노지로 소토층만 잔존	

건물지유적의 노지에 있어서는 노의 구조적인 차이가 확인되며, 이는 당시의 작업기술과 관련 될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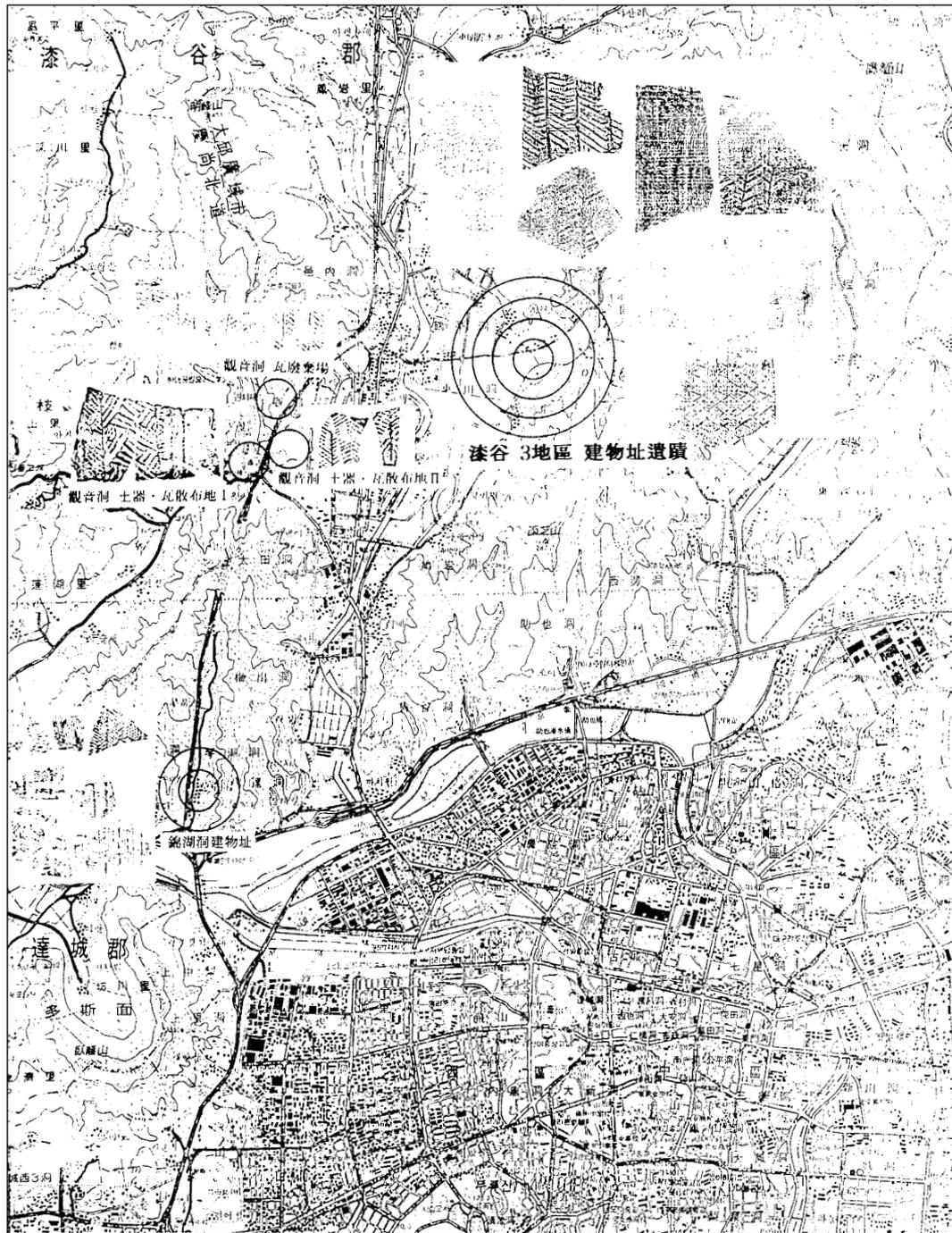
본 유적에서 확인된 I型~IV型 爐와 철제 저울추, 도가니, 슬래그, 靑銅素地 등과 각종 자기, 막새기와 등을 통하여 살펴볼 때, 이 지역은 고려시대 후기 지방관청에 부속된 관영수공업 공방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한편, 이러한 생산시설의 존속과 유지관리에 있어서 郷·所·部曲과 같은 당시 사회의 특수집단의 생활지역과의 관련성과 '君生' 銘文이 나타내는 寺院經濟와의 관련가능성에 대해서도 역시 함께 검토할 여지가 있다.

3. 同范瓦 分布에 대해서

동범와는 한 지역내의 단일제작집단에 의해 동일한 타날판으로 제작된 기와이다. 통상 막새류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평와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진한 편인데, 이는 타날 판에 의한 직접적인 비교가 부족한데 기인한다. 본 유적에서 확인된 평와와 동일한 평와가 출토된 유적은 琴湖洞建物址, 觀音洞 土器·瓦散布地 I·II, 觀音洞 瓦廢棄場 등으로 고려시대 건물지가 위치한 유적이다. 이들 유적들은 모두 漆谷에서 若木으로 가는 도로에 위치한 점에서 입지적으로 유사하며, 본 건물지에 사용된 것과 같은 평와가 확인된 점은 기와의 수급관계



〈도 6〉 日本 山陽道の 驛家유적과 기와의 분포관계



〈도 7〉 칠곡지역의 同范瓦 출토상태

를 비교하는데 중요하다⁵⁵⁾. 日本의 경우 山陽道 周邊의 驛家와 출토 암막새의 출토비교를 통해서 主體的으로 출토되는 유적과 客體的으로 출토되는 유적의 차이점을 한 지역에 있어서 한 기와가 통일적으로 사용된 모습으로 추정하고 있다(도 6)⁵⁶⁾.

칠곡 건물지와 주변의 건물지유적들은 모두 古道路주변에 위치하는데, 이를 통해서 도로를 중심으로 한 당시 交易체계와 流通상황을 추정해 볼 수 있다(도 7). 이들 유적에서 확인된 동범와는 모두 반경 8km이내에 분포하고 있으며, 이는 고려시대에 칠곡지역을 중심으로 한 기와의 수급관계 交易망을 추정복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고려시대의 기와가마가 아직 주변지역에서 발견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확인될 가능성이 크며, 다양한 타날판에 의해 제작된 평와의 공반관계를 통한 비교고찰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유적 주변지역에서 확인된 동범와들은 당시 칠곡주변의 한 생산지에서 주변 여러곳의 一般需要에 複數供給한 것으로 수요공급에 있어서 어느정도의 지역적인 제한과 통제가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4. 도가니에 대해서

도가니는 광석을 분말형태로 만들어 광물을 끓이는 용기로 金, 銀, 銅, 鐵, 琉璃 등을 가공하는 도구이다. 금속 및 유리를 가공하여 제품을 만드는 공방에 있어서 도가니는 정연로, 단야로와 함께 필수불가결한 도구로 공방의 존재를 확인하는데 있어서 표준유물의 위치를 점한다. 본 유적에서 출토된 도가니는 모두 2점으로 원저에 구연부는 거의 직립하며 주구를 갖추었으며 전체적인 형태는 포탄형으로 金鍾萬의 Ⅱ類型에 속한다⁵⁷⁾. 본 도가니는 사립이 섞인 점토로 틀을 만들고 외면에 쌀겨를 섞은 점토를 한겹 발라서 사용했다. 외면에는 슬래그와 유리질 피막이 형성되었으며, 내면은 고열에 의해 회색으로 변색되어있다. 내부에 끓였던 鑄液이 잔존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물질을 녹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외면 일부에 남아있는 적색의 금속매개물을 살펴볼 때 구리(Cu)의 가능성이 있다. 본 도가니 사용방법은 출토상태로 볼 때

55) 평와의 수급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로는 慶州 王京遺蹟의 “儀鳳四年皆土”銘 平瓦가 望星里瓦窯址에서 생산되어 공급됐으며, 월성, 황룡사, 안압지, 사천왕사에 사용된 각종 평와 및 막새가 望星里瓦窯址 및 多慶瓦窯址에서 공급된 점과, 慶州 錫杖寺址에서 출토된 평와와 같은 동범와가 堀佛寺址와 天龍寺址에서 확인된 바 있다.

박홍국, 1988, 「月城郡 內南面 望星里 瓦窯址와 出土瓦埴에 대한 考察」『嶺南考古學』5, 嶺南考古學會, 57~96쪽; 姜友邦 外, 1986, 『堀佛寺址』, 文化財研究所 慶州古蹟發掘調查團; 東國大學校慶州캠퍼스博物館, 1994, 『錫杖寺址』, 東國大學校慶州캠퍼스博物館第4冊.

천용사지출토 평와자료에 대해서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의 이은석선생의 도움을 받았다.

56) 高橋美久二, 1997, 「律令制支配と交通体系の整備」『交易と交通』考古學による日本歴史9, 雄山閣, 77~79쪽.

57) 金鍾萬, 1994, 「扶餘地方出土 도가니」『考古學誌』第6輯, 韓國考古美術研究所, 109~122쪽.

노내부에 정치하여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며, 여러점을 동시에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본 도가니와 비교가능한 유물로는 淸州 雲泉洞(興德寺址)출토품이 있다. 이 도가니는 구연부가 강하게 외반하며 동체가 장동형에 원저인 점이 특징이다. 칠곡 건물지출토품은 원저에 동체부가 약간 외경하면서 구연부는 직립으로 주구가 있다. 고려시대 공방지에서 출토된 도가니는 그 수가 적기 때문에 비교검토가 어렵지만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는 점에서 적어도 지역적인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본 유물은 사립이 많이 섞인 점토로 내형을 만들고, 쌀겨가 섞인 고운 점토로 외면전체를 한 번 덧발랐으며, 주구는 구연단에 약간 돌출된다(사진 11-②). 높이 13.5m, 구경 12.5cm.

Ⅵ. 맺음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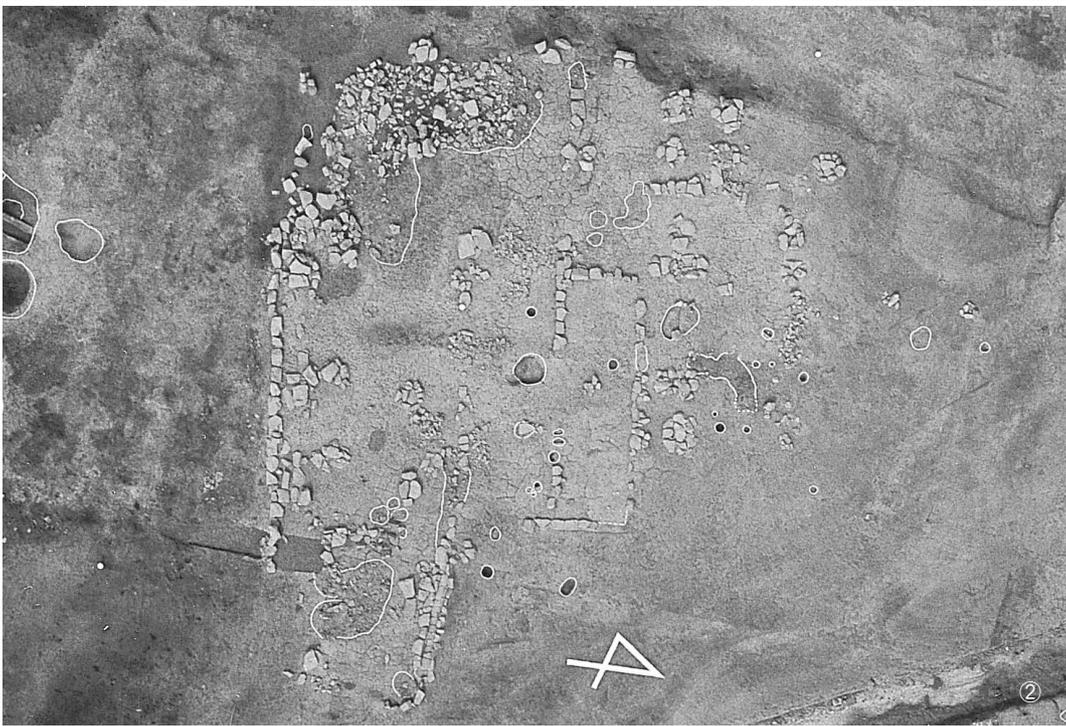
漆谷 3地區 建物址遺蹟은 大邱地域에서 조사된 寺址이외의 대규모 건물지유적으로 瓦葺積心建物 8동, 堀立柱建物 3동과 노지 및 수혈 30기가 조사되었다. 본 유적은 당시 생활권의 외곽지대로 건물성격에 대해서 다소 검토를 요한다. 漆谷이 중요시되는 시점은 朝鮮時代 宣祖 26年(1593年)경에 慶尙道 監營이 일시 八居縣으로 옮겨지고, 天生山城이 축조되며, 仁祖 18年(1640年)에 八居縣에 茄山山城이 축조되면서 漆谷都護部로 승격된 이후이다. 따라서, 고려 시대에 이러한 대규모 건물지가 위치했던 사실과 다수의 노지 등 생산시설이 집중적으로 확인된 점에서 볼 때, 본 유적의 성격은 地方官衙나 寺刹(群生寺?)에 부속된 工房의 성격을 지녔다고 추정할 수 있다.

건물의 존속시기는 2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지만 초창과 중창 건물이 모두 同范瓦(鬼目紋막새 및 平瓦)를 사용한 점으로 볼 때 큰 시간차이가 없으며, 주변지역과의 비교를 통해서 한 지역에 동일한 기와가 공급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 유적은 모두 古道路(驛路) 주변에 위치하는 점에서 당시 교역체계와 유통상황을 추정해 볼 수 있었으며, 이러한 교역관계는 당시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진 교역권의 범위를 추정할 수 있게한다.

건물지의 존속시기는 고려시대 말기인 13세기말에서 14세기초를 전후한 때로 추정되며 출토유물은 각종 土器·磁器·金屬器 등이다. 도기는 주로 대호, 시루, 대야, 병 등으로 일상생활용기 등과 도가니, 도침 등이 있다. 자기는 청자, 백자, 녹청자 등으로 기종은 대접, 접시, 병, 종지, 탁잔, 잔 등 일상생활에 사용된 기물들이다. 청자는 순청자, 상감청자, 철화청자가 출토되었으며, 백자와 녹청자는 소량이 확인되었다. 금속기는 청동제 머리 뒷꽂이와 수저, 저울추 등과 素地로 이용된 청동용기편이 있다.

건물의 진단구는 토제병과 청자대접 혹은 청자병을 이용했다. 대호의 경우 수혈을 파고 매납했으며, 나머지는 건물 내부에 흙을 성토하면서 같이 매납하였다. 진단구 내부에 별도로 매납한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4호 건물지에서는 청자병안에 다슬기를 넣었음이 확인되었다.

조사결과 본 유적의 성격은 고려시대 후기의 생산공방유적으로 위치지을 수 있으며, 출토된 유물을 검토한 결과 주변지역과의 기와 등 물품의 수급관계 및 교역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생산유적의 운영주체는 적어도 중앙또는 지방관아로 볼 수 있으며, 당시 사회에 있어서 특수집단인 鄉·所·部曲과 함께 보다 폭넓은 검토를 필요로 한다.



〈사진 1〉 ① 유적전경 ② 1호 건물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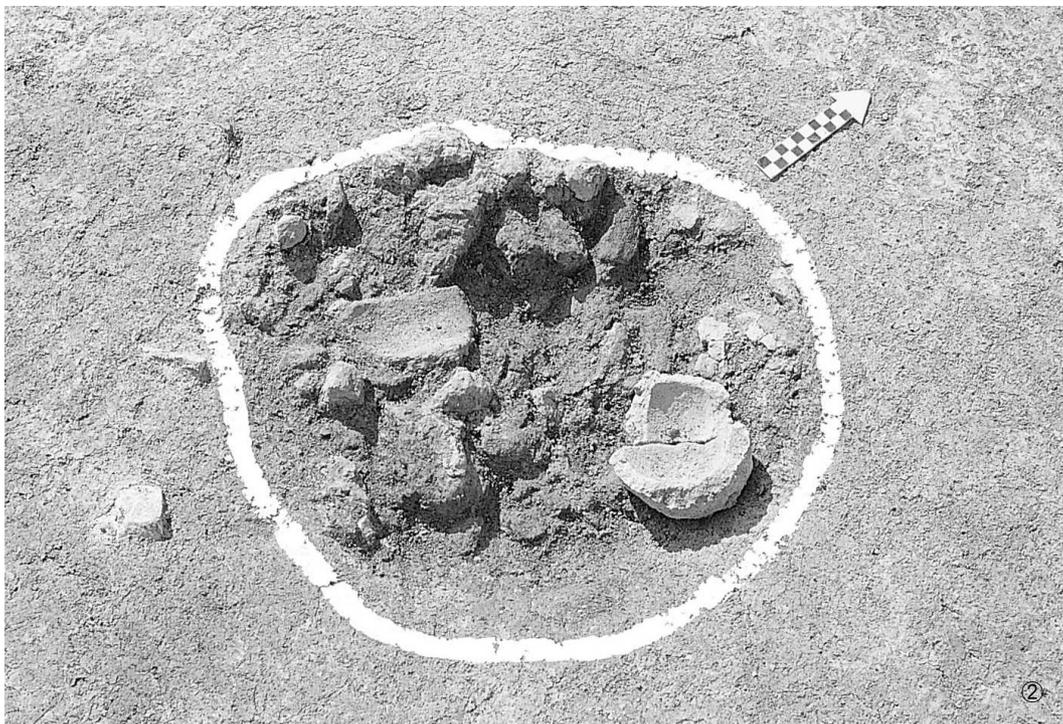
〈사진 2〉 ① 2호, 7호 건물지 전경 ② 3호, 4호 건물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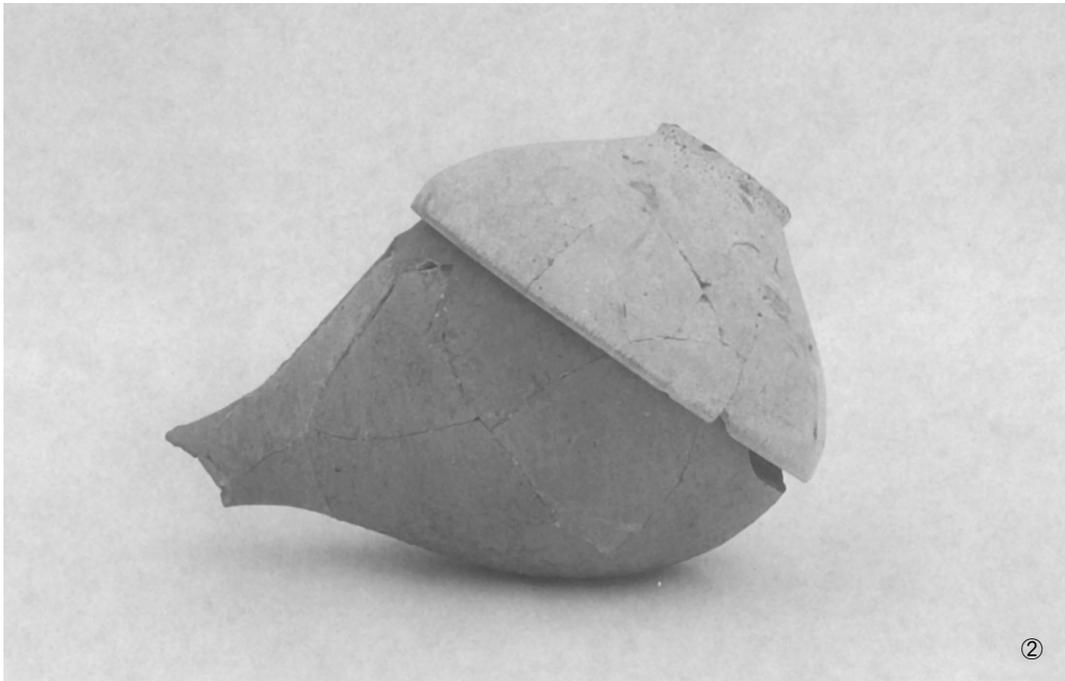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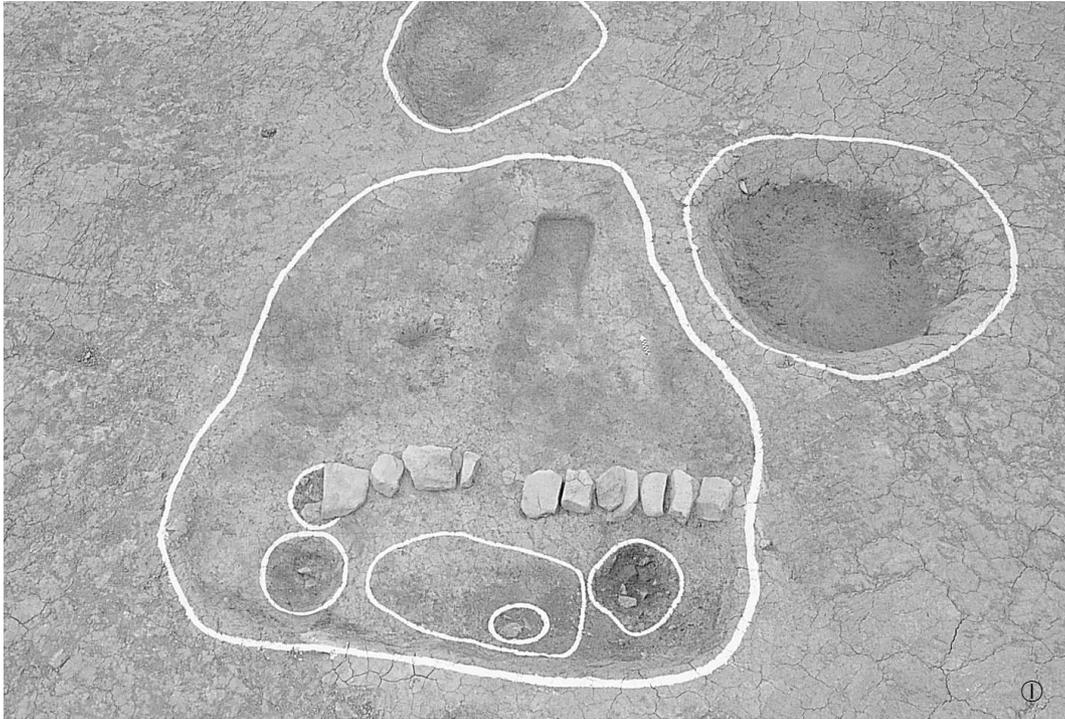
〈사진 3〉 ① 5호 건물지 전경 ② 10호 작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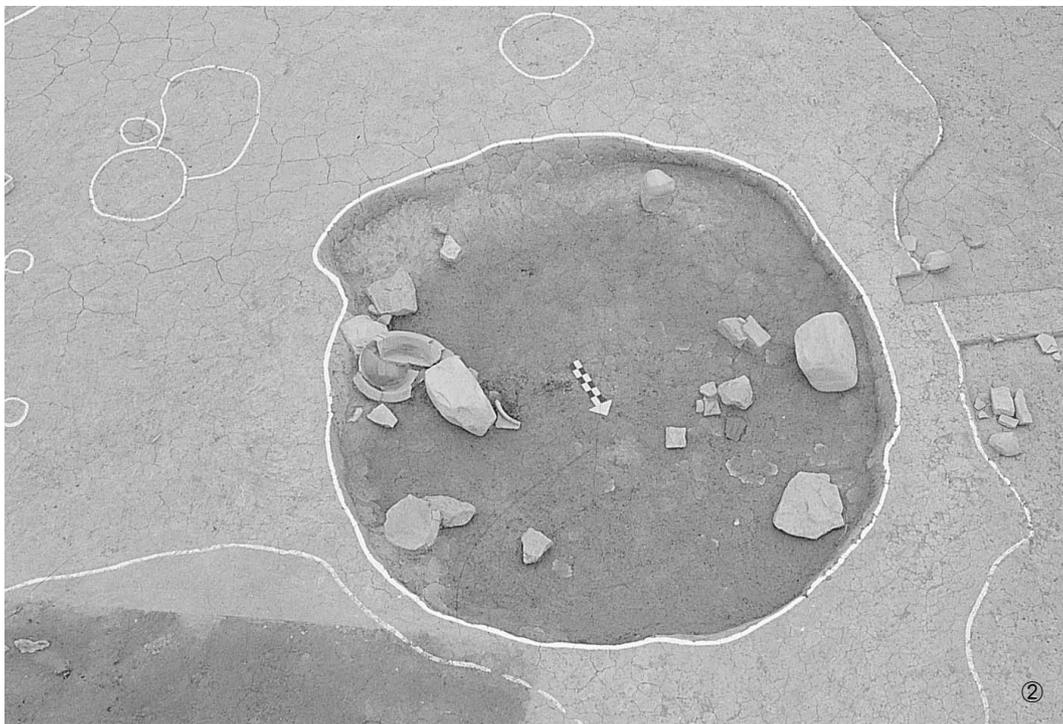
〈사진 4〉 ① 담장석열 ② 구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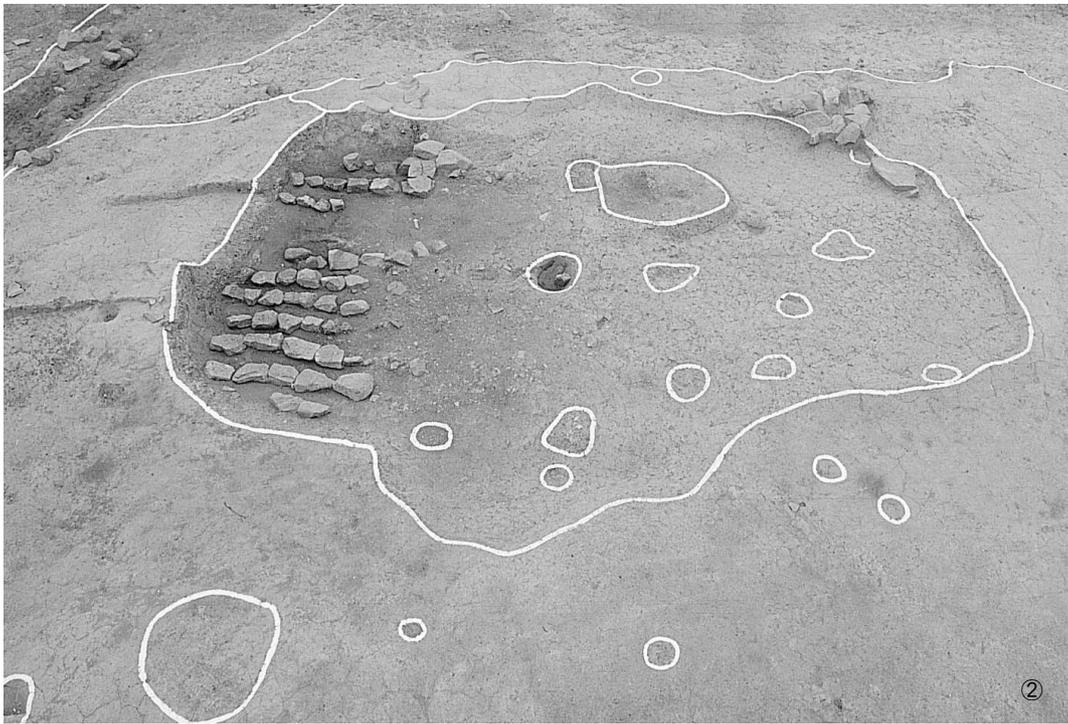
〈사진 5〉 ① 1호 노지 ② 2호 노지



〈사진 6〉 ① 4호 노지 ② 4호 노지 진안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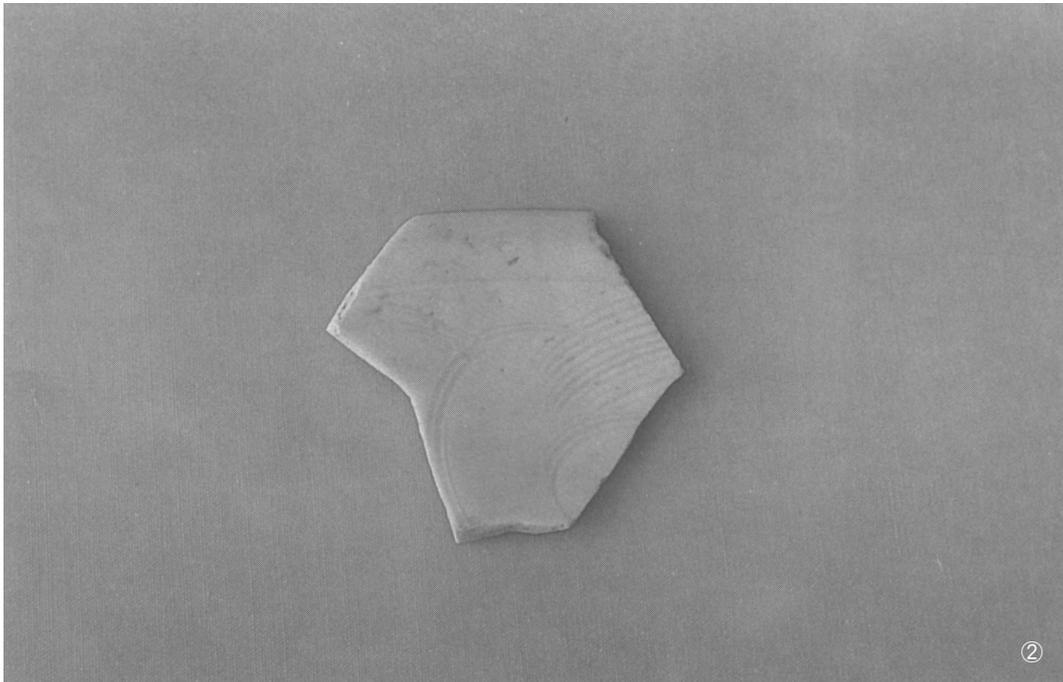
〈사진 7〉 ① 7호 노지 ② 11호 노지



〈사진 8〉 ① 15호 수혈 ② 10호 · 21호 노지



〈사진 9〉 ① 귀목문 막새 ② 명문와



〈사진 10〉 ① 청자 ② 중국백자



〈사진 11〉 ① 석제품 ② 도가니

嶺南文化財研究 9

인쇄일 : 1998년 12월 26일

발행일 : 1998년 12월 26일

편집 : (사)영남매장문화재연구원

발행 : (사)영남매장문화재연구원

社團 嶺南埋藏文化財研究院
法人

The Yongnam Institute of Cultural Properties

718-910 경북 칠곡군 가산면 천평리 221

전화 : 054-971-8085, 8086

전송 : 054-971-8083, 8090